

## 진리의 전달자

성경말씀: 눅1:1-4

2014년에는 누가복음을 강해하려고 마음먹었다.

구약, 신약의 여러 인물, 사건, 교훈,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시작과 끝, 기초와 기둥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지요, 참 사람이시다.

요14:1-9, 도마와 빌립,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요17:3).

드문드문 공부하는 것보다 1년 정도 시간을 정해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그래서 약 1년 동안 오전에 누가복음을 강해하려고 함, <진리의 전달자: 누가>

### 누가복음

기록자: 누가,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4년

수신자: 데오빌로와 그리스 사람들. 누가는 완전한 사람을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시하였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성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빛’을 뜻하는 누가는 의사였으며(골 4:14) 고등 교육을 받아 문화를 잘 이해한 사람이다. 그는 삶의 후반부를 바울과 함께 했다.

주제: 그리스도의 진리 전달

목적: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임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누가복음의 첫 네 절은 이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 준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연대기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의 사건들을 포함한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다윗과 아담에까지 이르는 마리아의 계보를 보여 주며 또 그리스도의 기도의 삶(3:21; 5:12-16), 가난한 자들의 배려(6:20-25; 12:16-21), 여인들의 위치를 높이는 것(1:24-58; 2:1-7, 36-38, 46-52), 음악(1-2장) 등도 담고 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부터 초대 교회의 설립에 이르는 역사를 잘 정리해서 보여 준다.

핵심 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19:10), 핵심 단어: 찾아 구원하다, 누가복음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19:10), 영적 교훈: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이다.”

### 누가

1. 의사: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받는 의사’라고 불렀다(골4:14).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의 병을 고치는 의사였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에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천대받던 여인들의 기사가 많이 나온다. 또한 아이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배려가 많이 나온다: 부자와 나사로(16장), 가난한 과부의 기도 이야기(18장), 나인 성의 과부(7장)

2. 음악가. 그의 복음서에는 하나님 찬양이 많이 나온다. 마리아의 노래(1:46-55), 사가랴의 노래(1:68-79), 천사들의 노래(2:14); 시므온의 노래(2:29-32)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감사의 기쁨의 찬양이 나온다. 삭개오의 감격의 기쁨(눅19:9-10)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눅15:10).

3. 이방인(골4:11). 성경기록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기록함. 사도, 대언자, 초기 사역자들의 대부분이 유대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에 관한 기록과 그분의 교회 설립에 관한 기록은 이방인 누가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차이가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고후5:17)

4. 성경기록자요 역사가.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으며(신약 성경의 4분의 1) 사도행전의 여행의 대부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다. 행16:11에는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며 여행하고 고난당하

며 결국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그의 임종을 지켜본 인물이다(딤후 4:11).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 전과 후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식과 판단과 충성과 의료 기술 등으로 인해 초대 교회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는 것이다.

### 누가복음의 특징

1. 복음(gospel)이란 좋은 소식 혹은 복된 소식을 뜻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을 담은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눅19:10).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2:10)  
개인과 군중, 남녀노소, 가난한 자와 부자, 병든 자와 건강한 자, 죄인과 성도 등 다양한 사람의 복음
2.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다. 장 수로는 마태가 길지만 내용은 누가가 가장 길다. 그만큼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았다.
3. 단순히 긴 것만이 특징이 아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기사들이 있다: 침례자 요한의 출생, 마리아 수태고지, 탕자 이야기, 삭개오, 회개하는 강도,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 등 누가의 기록이 없으면 이런 귀한 사건들이 전달 될 수 없었다.
4. 여러 사람들이 차례대로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함(2).  
누가는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차례대로 써서 알림(3).
5.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가?  
복음서 수신자: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눅1:3; 행1:1). 아마도 그는 팔레스타인에 거하는 유명 인사였으며 이교주의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름 자체가 개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6. 이러한 작업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이 수반된다. 왜 그는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였을까?  
그는 성도들 가운데서 확실히 믿게 된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다(1).  
우리도 알고 있는가?  
확신을 갖게 되니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든 진리를 알려야겠다는 강한 확신  
그 일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4).  
이 복음서를 통해 이미 믿고 있는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더 든든히 갖게 하는 것(4)
  - a.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2:10-11)
  - b.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2:34-35)
  - c. 성령님의 역사: 요한(1:15); 사가랴(1:41, 67); 시므온(2:25-27); 예수님의 수태(1:35); 침례(3:22); 광야 인도(4:1), 그리고 오순절(행2)로 이어짐

### 진리의 전달 사명

결국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였다(벧후1:20-21)

그는 자기만 진리를 알지 않고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AD 90년경에 성경이 완결되고 그 이후로 번역되면서 전 세상에 퍼짐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진리가 퍼지는 것을 원치 않음

진리의 전달자들이 피를 흘리며 진리를 전달함

위클리프: 1380년경에 신구약이 완역된 최초의 영어 성경을 만든 사람,

위클리프의 주장: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땅의 어떤 사람이든 하늘의 어떤 천사이든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피하고 멀리하되 마치 지옥으로부터 온 괴물을 멀리하듯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준 진리와 자유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영국에서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인 14세기에 체포된 롤라드 파 사람들은 산 채로 화형을 당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위클리프의 성경 역본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그 성경책을 목에 매단 채 책과 사람이 다 화형당했다.

1428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뼈를 기어이 찾아내서 불태웠다.

틴데일: 보통 사람들에게 영어 성경을 들려주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 천주교회 박사의 말 “성경이란 필요 없소.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  
틴데일의 말: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의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화형대에서 죽음

누가, 바울, 베드로, 요한, 위클리프, 진리의 전달자들의 희생과 수고로 1611년에 영어로 완전하게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됨.

이 성경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 들어 있다.

우리는 누가처럼 확실히 믿는 바가 있는가?

확신시키려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누가처럼 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바울이 죽기까지 누가가 성경의 복음 선포자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쓴 것처럼 애를 쓰고 있는가?

불신자든 신자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히 알리게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맡은 가장 큰 일은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누가와 바울, 위클리프, 틴데일같이 우리에게 전달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애를 쓰자

## 새 일에 필요한 의로운 사람들

성경말씀: 눅1:5-25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4000년을 끝내고 신약을 시작하려 하신다(갈4:4).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인물들이 나타난다.

서정주 시인의 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눅1-3장은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진귀한 기록,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목자들, 천사들, 시므온,

안나, 침례자 요한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눅1:3). 초임의 주인공, 새 일

우리는 지금 재림의 주인공을 바라며 새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

어떤 사람들이 새 일을 할 수 있을까? <새 일에 필요한 의로운 사람들>

### 시대적 상황

예수님의 초림 당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때였다.

BC 606년 바빌론 포로생활 70년, 메대 페르시아 고레스 BC 536년 예루살렘 귀환, 성전, 성벽 건축  
하만이 일어나 온 세상의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함,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BC331), BC 323 요절  
남(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과 북(시리아 셀레오쿠스)으로 나뉘, 중간에 낀 이스라엘은 늘 전쟁  
북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장, 헬레니즘, BC 168-164년 이스라엘의 성전 훼파  
제사장들의 타락, 마카비 등장, 그러나 나라의 운세가 기울어 결국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함. 그리고 BC 40년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됨

포로 귀환 이후 여전히 배도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대언자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대언자가 등장하지 않음

요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제사장 타락, 끊임없는 전쟁, 메시아 대신 에돔 사람이 왕이 됨  
백성들의 상태는 절망 그 자체였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러데 바로 이런 때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AD 300년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탄압, 중세 암흑시대 1000년 이상, 암울한 시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이루신다. 말씀의 부흥  
우리나라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절망적이다. 진리를 찾는 자가 드물다(렘5:1-2).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 영적, 육적 모든 문제, 성경 말씀의 부흥

우리의 사람을 살펴보자: 이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사가랴와 엘리사벳(5)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엘리사벳: 하나님의 맹세, 합치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기억하신다.’

언제 맹세하셨는가? 시89:33-37: 다윗의 씨가 메시아로 와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 다스린다.

이들의 특징(6): 주님의 모든 명령에 따라 흠 없이 걸으며 의로웠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성경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이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딤후2:14)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써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누가는 5-6절에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서 보여 준다.

헤롯: 그 당시 그는 왕이었으나 가장 사악한 자 중 하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난했으나 의로운 자  
하나는 재능이 많아 많은 일을 수행한 괴물 통치자요, 다른 하나는 이름도 없이 조용히 경건하게 지내는  
의로운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미워한 자, 사랑한 자, 자기 아들과 아내와 여러 명을 죽인 살인자,  
다른 하나는 겸손하게 성전에서 봉사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제사장, 하나는 에서의 후예, 하나는 야곱의  
후예, 하나는 전갈 같은 아들들을 이스라엘에게 남겨 준 자,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침례자 요한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남긴 자, 하나는 메시아를 직접 죽이려 한자,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한  
자(67-79).

그런데 역사가 누가는 헤롯에 대해서는 ‘유대 왕 헤롯’이라고 짧게 쓰고는 사가야 이야기만 함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다.

###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문제(7)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이 없었다. 더욱이 연로하여 소망이 없었다. 65세가 되면 농인, 80세가 되면 매우 연로함. 이들의 소망은 아브라함과 사라였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었을 것이다.

### 사가랴의 제사장 직무 수행(8-10)

구약 시대 성전을 짓기 바로 전에 다윗은 제사장을 24개 계열(조)로 나누어서 한 조가 일주일 씩 일 년에 두 차례 성전에서 봉사하게 함(대상24:8).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전 제사장 아비아 계열(8째), 그 당시 8000명 제사장, 각 계열 330명, 사가랴에게 제비가 떨어져 그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게 됨, 어쩌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영광, 마지막 영광, 그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의롭게 걸을 때 이런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 사역을 외치고 다니지 말라. 조용히 의롭게 가정생활하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 기회가 온다. 성전 밖에는 경건한 무리들이 기도하며 사가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 주의 천사(11-17)

분향을 마쳤을 때 주의 천사가 향단의 오른쪽에 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사로 인해 두려워 함 천사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Fear not, 총 63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아브라함 창15:1, 이스라엘 사43:1, 5, 요셉 마1:20, 여인들 마28:5)

그 이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우리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메시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13-17).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줄 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

누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로운 성도에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올바른 성도에게 주님의 기도 응답: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선한 행위가 나와야 한다(엡2:8-10).

### 사가랴의 의심(18-20)

사가랴의 응답: “표적을 주십시오.”,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13). 기도가 응답되자 오히려 의심하며 표적을 구한다. 제사장, 성경 박사, 의인, 기도, 아이러니,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의 반응(롬8:26)

처음에는 사가랴가 놀랐으나 이번에는 가브리엘이 놀람, 이게 무슨 말인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음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표적을 준다(19-20).

믿음이 있고 의로워도 실수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아브라함과 하갈, 반석을 내리치는 모세, 밧세바 와 간음한 다윗, 세 번 부인한 베드로 다 의인이지만 실수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 천사의 말 응답(21-25)

백성의 반응(21),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22)

사가랴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할 수 있었지만 불신으로 인해 잠시 말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잠시 책망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 백성의 표적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됨(24-25)

그 뒤 예언대로 침례자 요한의 출생함(57-66)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그가 말을 하게 됨(64).

그의 선포의 핵심(67-79): 죄들의 사면을 통한 구원(77), 이유: 메시아 탄생(78-79)

하나님의 두려움이 퍼짐(65). 새 일에는 이런 두려움이 따라야 한다.

### 결론

우리의 삶이 암울할 때, 교회의 영적 상태가 암울할 때, 기도하자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나서 의롭게 되어 묵묵히 의로운 일을 하는 자, 실수해도 쓰신다.

##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성경말씀: 눅1:26-38

지난주, 예수님의 초림, 매우 암울한 시대, 침례자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께서 맹세를 기억하신다’, 메시아 왕국의 새 일에 필요한 사람의 특징: 성경 신자, 구원받고 선한 행위가 넘쳐나서 의로운 사람(1:6)

###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람의 죄 문제, 죄로 인해 질병, 슬픔, 고통, 아픔, 사망, 대신속죄의 필요성

사람이나 짐승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완전한 희생예물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함 아들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려면 사람의 몸을 입어야 한다(히10:4-5). 이를 위해 어머니가 필요함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놀라우며 귀중한 것, 특히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38),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유대인들의 예측: 성전,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갈릴리’에서 이야기가 시작됨(26) 예수님 탄생 당시의 갈릴리: 유대인들이 경멸한 곳, 보통 이방인들의 갈릴리(마4:15), 특히 나사렛은 무명의 도시(No 언급), 빌립과 나다나엘: 나사렛의 예수님 소개, 나사렛 떨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요1:45-46)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온다. 15세 정도, 성경지식이 적음, 가난함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가난한 아이들 출산, 그리고 죽을 보통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영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대제사장이나 왕의 딸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가?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출생하는 큰일을 했다: 두 극단

1. 카톨릭: 마리아 숭배,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공동 구원자, 무염시태, 몽소승천, 예수님은 2인자 아기 예수,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 ‘To Jesus Through Mary!’ No!

에베소 교회(계2:1-7), 첫 사랑을 잃은 교회,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우리라(5), 디모테, 요한 에베소 공회(주후 431년), 7대 불가사의 ‘다이아나 신전’ 마리아 숭배 채택, 지진/화산으로 멸망

2. 많은 기독교인: 마리아 무시(1:42, 43, 48)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고 다만 ‘복 받은 여인’이라고 믿는다(28, 48): 예수님의 얼굴의 근원

마리아는 유다 지파 출신, 처녀(27절, 사7:14), 나사렛의 목수인 요셉과 정혼함(마13:55), 둘 다 가난함

이 당시 결혼 풍습: 정혼, 곧바로 남편과 아내가 됨, 육체적 결합은 남편이 거할 곳을 마련한 뒤 이루어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뱐 것이 드러나매”(마1:18)

### 가브리엘의 등장(26-29)

엘리사벳의 수태 뒤 여섯째 달(26)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남(26-27). 가브리엘은 500년 전에 다니엘에

게 또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위엄 있는 존재로 나타남(11절). 성경의 천사는 다 젊은 남자로 나타남.

천사의 말(28), 28절 카톨릭 역본 “은혜가 충만한 자여” No! 중세 마리아 숭배의 근원

성경 번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

마리아의 복의 원인: 주님이 함께하심.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해야 함. 그래야 성공한다.

창39:23, 막내딸에게 보낸 글: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보니 세상사는 게 힘들다. 세상의 재물과

지위, 명예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돈, 직장, 배우자 걱정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마리아가 불안해함(29): 컴퓨터, TV, 책 등이 없던 시대

마리아는 깊이 생각함: 대단히 중요한 구절,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해야 함.

### 수태고지(30-34)

천사의 설명(30-31), 두려워하지 말라(13절),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는다.

예수: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그 당시 흔한 이름, 여기서 그쳤으면 큰 일이 못 됨.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32-33): 위대한 분,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좌, 영원무궁토록 이스라엘 통치, 메시아 왕국이 무궁함

예수: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신다”(마1:21).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 그러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눅2:68-69; 롬15:8)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마1:23),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요1:1; 14).

마리아의 반응(34):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은 알지만 방법을 모름  
“세상에서 이런 일은 처음 듣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질문: 어떻게 처녀탄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요?(요3:9)

이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사려깊게 생각하고 물어야 한다.

### 천사의 설명(35-37)

천사의 설명(35): 성령님이 덮는다는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파위가 함께한다(창조, 휴거,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파위).

그 거룩한 것(창3:15의 여자의 씨)은 하나님의 아들

남자와의 결합에 의한 출생이 아니라 처녀탄생: 기독교의 근본 교리 중 하나, 이것을 부인하면 불신자  
죄 없이 출생, 죄 없이 생활, 자신의 죄 없이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 죽음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성도의 둘째 탄생과 비슷함: 성령님의 다시 태어나게 하심,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 체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이 체험은 위로부터 온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의 ‘다시’는 ‘위로부터’이다(요3:7).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요5:18):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로 들어오심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 신성과 인성 이 둘을 가지신 유일한 분(요20:28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엘리사벳의 임신을 보라. 마리아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미리 예를 준비하신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1. 사라의 웃음: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창18:14).

### 마리아의 겸손과 믿음(38):

‘주의 여종’, 마리아는 죽음을 감수하고 받아들였다. 그 당시 결혼하지 않고 사생아를 낳으면 죽음에 처해짐.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로마 시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고통을 당하며 같은 것을 고백하였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다. 우리의 주

마리아는 몸(38)과 혼(46)과 영(47)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였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38).

하나님의 뜻만 선다. 주기도문(마5:10), 심지어 예수님도 그리 기도하셨다(마26:39),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리아는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눅2:34-35).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혼의 고통을 당함(요19:25).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 곧 구원자로 믿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자리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하였다(행1:14).

### 하나님의 일꾼의 성품

1. 영이 가난하고 겸손하였다(마5:3).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2. 말씀을 깊이 생각하였다.
3.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다.
4.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 크리스마스 이야기

성경말씀: 눅2:1-20

어리 때 주일 학교에서 12월이 되면 학생들이 크리스마스이브 발표회를 위해 여러 날 연습하곤 했다.

그때 꼭 성경 암송을 하곤 했는데 오늘 읽은 눅2:1-20이 바로 그 구절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 말씀,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낭송하는 구절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는 누구인가? 바로 이 아기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11)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 탄생의 여러 요소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메시아

사람의 죄, 타락, 메시아 약속(창3:15), 여자의 씨 뱀의 머리, 메시아는 천사나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계시가 진행되면서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유대인(창12:1-3; 민24:17), 유다 지파(창 49:10), 다윗의 자손(삼하7:1-17), 처녀 탄생(사7:14),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 탄생(미5:2)

1. 탄생 시기(1): 그 무렵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제국 유지를 위해 조세 등록이 필요하였다.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함. 구레뇨는 두 번 시리아 총독을 지냄, 처음 BC 4, 알렉산더 이후로 유대는 시리아의 부속 지방으로 평가됨. 도올 등의 AD 6년 주장 No!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아 계열(1:5), 임신, 그 뒤 6개월 뒤에 마리아 수태, 침례자 요한 BC 4년 유월절 경에 출생, 예수님은 BC 4년, 장막절 즈음에 태어났다(10월 중순). 33년 반을 사시고 AD 30년 4월의 유월절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2. 하나님의 섭리(1-4): 역사(History)는 그분의 이야기(His story)이다.

그 당시 카이사르가 통치하였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사용하여 조세 등록 요셉과 마리아 역시 세상 치리자의 명령에 따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자기 고향으로 감(100km)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루신다. 이것을 '섭리'라고 함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

마리아와 요셉: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무슨 큰 목표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로 이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롬8:28의 섭리를 믿자.

또한 초림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이 시대에 재림의 역사도 조용히 이루심을 믿자. "거룩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사는 성도가 되자."

3. 베들레헴(4): 롯과 보아스의 고향, 다윗의 고향, 목동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던 곳

뜻: 빵집,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는 빵이 나온다. 그냥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

요6장: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요6:35-40

이 빵을 먹은 적이 있는가? 누구든지 오기 바란다.

4. 여관에 방이 없었다(7).

크리스마스 발표회, 한 아이가 이 대목을 맡았다.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극이 시작되자 그 아이는 도저히 마리아에게 방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낳으세요." 연극은 망쳤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심정이 있는가?

큰 교회는 많다. 성도들도 성숙하다고 한다. 목사도 설교를 잘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5. 하나님이 구유에 들어갔다(7).

구유는 소, 말의 여물 통, 온 세상/우주의 소유자, 존재하게 하신 분이 가장 천한 구유에 들어갔다.

가장 비천한 자리, 그리고 가장 참혹한 사형 틀에서 죽으셨다.

인간으로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다.

막10:35-40,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한 자리 주십시오. 제자들의 시기(41)

예수님의 말씀(10:42-44)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한다(히13:13).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치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먼저 수치의 십자가(cross), 그 뒤에 영광의 왕관(crown)을 받는 사람

6.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남(8-9). 놀라운 소식을 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10)

복음의 핵심 내용: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메시아), 주(11)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생긴다.

“모든 일이 잘된다는 말이 아니다.”, 행16의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혀도 기쁘다는 말이다.

세상 일이 잘 안 돼도 궁극적으로 기쁘다. 천국이 내 것이다. 아이러니 중의 아이러니

복음은 종교의 속박을 물리친다. 종교는 슬프게 만든다. 아무 희망이 없다.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다. 이 생명은 잠시 뿐이고 죽은 뒤가 영원하다. 그래서 죽은 뒤에 영원한

기쁨을 보장해 주는 종교가 산 종교이다. 오직 기독교만이 그 기쁨의 길을 준다(요11:25-26).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주님이시다(행4:12).

7. 구원자 탄생의 목적(14)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과 세상과 우주와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 그래서 특히 공예배가 중요하다. 통영, 광양에서도 온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시는 일 총정리(고후5:19)

그 결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롬5:1)

사람들은 스스로 화평이 거하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 땅에 화평이 있다.

그분은 평화의 통치자(사9:6)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히7:1), 멜기세덱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다(7:2).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늘 평안이 있다(요14:27; 16:33).

세상 종교는 사람을 무섭게 만든다. 믿음+행위, 환난 통과

**결론**

예수님 탄생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알고 기억해야 한다.

1.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신다. “욕심내지 말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자.”
2.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참 하나님, 참 사람, 구원자, 메시아 주님
3.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시다. 그분을 먹었는가?
4.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있는가?
5.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인가?
6. 우리는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아는가?
7.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 영광의 흰머리(누가복음 강해 5)

성경말씀: 눅2:21-38

대부분의 사람들(젊은이들)이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며 산다. 나 역시 그랬다. 30년이 지났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나 늙고 결국 죽는다는 것이다.

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 복지, 삶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심지어 자식들의 외면 속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와 노인 따로 없다.” 노인은 나 자신, 나의 과거, 나의 미래이다.

성경은 노인들 공경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긴다.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레19:32).

가정에서 교회에서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나쁜 자(딤후5:8)

요즘 저의 어머니 소원: 아프지 않고 죽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

행복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죽을 때 걱정 없이 죽는 사람’

“나 죽어 시신 되고 시신 전에 나였으니 나와 시신 따로 없다.”,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들이 나온다.

하나님께서서는 메시아를 보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침례자 요한,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 동방의 지혜자

들, 그리고 끝에 다시 한 번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들 이야기를 다루신다. 노년을 잘 준비해야 한다.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잠16:31). <영광의 흰머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평안히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 이야기, 가장 큰 행복

### 배경

21절: 여드렛날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맺으신 언약의 증표(창17:12, 99세)

바로 그 날 요셉과 마리아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확정함(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철저한 유대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요4:22). 이만희, 안상홍 이방인 메시아는 No!

22-24절: 레12장의 여인의 정결례, 아들의 경우 40일이 지난 뒤 번제 헌물(1년된 어린양)과 죄 헌물(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가난하였으므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드림

25-38: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남

시므온의 나이는 나오지 않으나 29절을 보면 나이 들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노인임을 알 수 있다.

안나는 36-37절에 따라 매우 나이가 많았다. 15세 시집, 7년 결혼, 과부 84년, 106세 기적

이 두 사람의 특징: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분을 눈으로 보고 평안히 죽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어떤가?

지금은 재림의 때이다. 우리와 교회의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주님께서 우리 때에 오시면

죽지 않고 휴거 받아 주님을 볼 것이고 재림을 늦추시면 죽었다가 부활하여 주님을 볼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 평안히 죽어야 한다. 평안하다는 말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마10:28).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암4:12).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 있을까? 평안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성

23절: 시므온(듣는다)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1. 침례자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들은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눅1:6).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쓰신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나와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송을 받아야 한다.

2. 독실하다: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 구체적인 사례가 37절의 안나(구약의 한나, 은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은 성전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대언자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메시아가 성전에 임할

줄로 믿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말3:1).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이대로 적용할 수 없다.

### 3. 신약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노인들의 특성

구원받아야 한다.

딤후2:2-5

바로 이런 사람이 평안히 죽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다.

### 4. 한마디로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25).

26절: 꿈이 존재하던 구약시대,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을 계시해 주셨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마귀의 그리스도도 있다: 적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도 있다:

거짓 그리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귀에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 완전한 계시 성경을 주셨다.

### 5.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계시해 주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복이 되고 평안이 된다.

시므온과 안나의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전쟁과 가난으로 살기가 힘들

### 6. 이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의롭고 독실하게 주님을 기다렸다.

이 주님이 곧 이스라엘의 위로(25),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분(38)

### 7.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예수님 승천 후 2,000년이 지났다. 세상이 변화였다: 진화론, 범신론, 상대주의, 도덕과 윤리의

타락, 성경 변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들의 교회에 오시면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들고 이 땅에 햇불처럼 타오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재림의 때를 분별하고 있는가?

### 8. 우리 마음속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잘못된 예수는 인생을 망치게 한다.

성경속의 예수님, 참 하나님, 참 사람, 창조자, 구원자, 재림자, 심판자. 우리의 형제

### 9.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과 육체의 죽음이 평안이 될 수 있다.

29절의 시므온의 고백: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게 허락하옵소서.

평안히 죽으려면 혹은 평안히 휴거를 받으려면 주님의 구원을 보아야 한다(30).

예수라는 이름이 곧 구원이다. 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구원받고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요, 이방인들의 구원자이다(32).

행4:12

### 10. 예수님이 하시는 일:

1. 많은 사람을 넘어서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34).

예수님이 가면 사람이 둘로 나뉜다. 실족하는 사람과 일어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틀에 박힌 종교인,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비방의 표적이다(34). 십자가를 선포함이 어리석은 일이다(고전1:18).

일어나는 사람(죄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신뢰하는 자들,

이단이라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자)

2.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히4:14).

의인: 그리스도의 심판석, 죄인: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석

사람 마음의 모든 동기가 다 드러난다(렐17:9-10).

### 결론

사람은 다 죽는다. 예외가 없다.

가장 행복한 사람: 죽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한다.

천국행 티켓은 유일하게 어린양의 피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며 죽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여야 한다.

사랑침례교회의 모든 노인들이, 앞으로 노인이 될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 원한다.

## 참 사람이신 예수님(누가복음 강해 6)

성경말씀: 눅2:39-52

지난 주: 가장 행복한 사람: 죽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신을 차리고 의롭게 살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며 죽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여야 한다.

###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혹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100% 하나님, 100%  
사람, 유일무이한 존재,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단이 됨. 또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움.

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무디의 설명, 개미들, 홍수

예수님은 중재자여야 한다. 중재자가 공평하게 중재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완벽한 지혜, 말, 하나님임을 인식한 것으로  
오해함, No!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기록으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

### 예수님의 열두 살 이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40)

1. 키가 자랐다. 모든 사람처럼 태어나서 기저귀에 똥도 싸고 오줌도 누고 배고프면 울기도 하고 먹고  
키가 자랐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옷을 갈아 입혀 주었고, 아기가 입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려 하면  
“예수야! 그것을 입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말이다.” 그 아기는 다른 아기들과 똑같았다.
2. 영이 강하게 되었다. 인격체는 지정을 갖는다. 생각과 마음과 감정
3. 지혜가 충만하였다. 지식과 분별력, 이 둘은 성령님이 함께하셔야 가능함(요3:34). 한량없이 받음
4.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자신의 아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넘쳐흘러남
5. 참 사람이셨다(누가의 반복): 눅2:52에 기록된 대로 지혜와 키가 성장했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 다만 죄는 없으셨다.
6. 어떤 사람의 말: “나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었음을 믿지 못한다. 나는  
그분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만 믿는다.” No!
7. 그분은 분명히 아기로 오셨고 한 여인이 그를 돌보아야만 했다. 한 여인이 그를 보살피고, 먹여주고,  
씻어주어야만 했다. 한 미천한 여인이 하나님을 씻어 주어야 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한다(딤후3:16).
8. 예수님은 요1:1; 17:5처럼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요1:14)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고전1:25). 유일한 방법
- 9 그 이유: 100% 사람이야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구원할 수 있다(히  
4:15-16). 히5:7-10의 필요성
10.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바울은 빌2:5-11에서 설명한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며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형체를 비우셨다. 그래서 울기도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목 말라 하기도 하시며 잠도 주무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신음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100%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

이러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권위 있게 기적들과 함께 행하셨다.

이 같은 두 본성의 연합은 출생 시에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여느 아이와 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100% 사람이셨다(2:52).

### 드디어 12살에 예수님의 두 본성 인식: 예루살렘 방문(41-50)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일 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다: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예수님도 12살에 올라가심: 보통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는 12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간주됨

물론 그 전에도 양아버지 요셉과 함께 올라갔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이 중요하므로 누가가 기록함

예루살렘 경배 후 돌아가는 데 예수님은 그대로 남음: 하룻길을 간 뒤에 없어진 것을 앎.  
마리아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어머니로 섬기는 종교가 있다: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여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허사다.

사흘 동안 찾다가 드디어 그분을 성전에서 만남(46): 성경박사들과 함께 앉아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함. 그분의 말은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람(47): 눅20장에도 동일한 일, 성령님의 지혜 성전에서 무엇을 읽으셨을까? 당연히 구약성경 두루마리

창3:15, 시2:7, 사6:4; 9:6, 53:4-5

이런 구절들을 읽고 박사들과 대화하며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생아가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고 말한다 (48). 예수님은 자기의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다(49).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다. 33절, 43절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개역성경 NIV, 그의 부모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

must라는 단어가 사용됨. 예수님은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반드시 왕국을 선포해야 한다(눅4:43).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눅9:22). 나무위로 들려야만 한다(요 3:14)

그 사명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히10:5, 9),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어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일,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 드디어 12살에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과 사람이심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깨닫지 못함

심지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함(마16:21-22).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분의 사명을 확실히 아는가?

### 12살부터 30살까지의 삶(51-52)

마리아와 요셉에게 복향하며 삶: 요셉은 가난한 목수, 예수님도 목수로 가업을 이어가며 복종함.

예수님의 특징(52):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다. 호감 있는 존재 골2:3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52). 부모에게 순종

바르게 듣고 물을 줄 알아야 한다(46).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순종하며 바른 것을 묻고 대답하며 키가 지혜가 자라서 18년이 지나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수행하게 될 때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눅3:22)

우리 역시 이런 칭찬을 듣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으셨다.

1. 가정교육, 2. 순종 교육, 3. 땀 흘리는 교육, 4. 사회 의식 교육, 5. 외로움 교육: 요셉과 마리아 심지어 6명의 동생들도 그분을 알지 못함, 6. 회당 교육, 7. 자연 교육, 8. 반복되는 일상의 교육, 9. 18년간 기다림의 교육, 10. 시험과 유혹의 교육, 11. 경험의 교육, 12. 섭리의 교육
- 바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완벽한 남자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성장해서 드디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 회개의 선포자 침례자 요한(누가복음 강해 7)

성경말씀: 눅3:1-14

지난 주: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런 분은 없었다. 이유: 아버지의 일을 이루며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유일한 방법, 지혜), 그것을 위해 처녀 탄생의 기적이 필요하였다.

### 배경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탄생,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천사들과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 동방의 지혜자들이 다 필요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먼저 달려가 길을 예비할 전령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이 전령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다. 침례자 요한 우리도 그분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한다. 결국 주님에게 불명예를 안긴다. 이것을 피하려면 본보기를 잘 따라야 한다. 그 본보기 중의 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다.

<회개의 선포자 침례자 요한>, 그의 사역의 준비와 사역의 핵심인 회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침례자 요한의 준비 과정

눅1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성전 봉사, 천사, 천사의 말(1:15-17)

1. 주 앞에서 큰 자, 2. 나사르 사람(민6:1-21): 삼손 등, 3.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말4:5-6)

드디어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BC 4년경 4월에 침례자 요한이 출생함(1:57-66):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함(66)

사가랴의 대언: 메시아 왕국(68-75), 회개의 사역자(76-77), 주 예수 그리스도(78-79)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유대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냄(80). 아마 10세 이후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광야: 예수님 40일, 바울 다마스쿠스 사건 이후 아라비아 광야, 모세는 40년, 요한 20여 년 물리적인 광야도 중요하지만 광야의 원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면서 뼈를 깎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필요함.

와신상담: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왕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월나라의 왕 구천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하였고, 그에게 패배한 월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한다. 세상일도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하나님의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오늘 신학원 학생, 신입생, 성경 연구를 위해, 인격 함양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상 공부 이상으로 하며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해야 한다. 신학원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영이 강하게 될 때까지(80)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좋은 일꾼은 그냥 되지 않는다. 책상에 앉아야 한다. 그것이 광야이다.

### 드디어 때가 왔다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때가 왔다.

1-2절: 티베리우스 시대, ... 여러 유명한 자들이 언급됨.

4분 영주: 원래는 한 왕국을 넷으로 쪼개어 4분의 1을 다스리던 왕, 그 이후에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 헤롯 대제의 사후에 시리아는 4조각으로 나뉘어서 4명(빌라도,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루사니아)이 다스림. 이두래: 가이사라 빌립보 위, 드라고닛: 시리아 남부, 아빌레네; 다마스쿠스 동쪽 레바논 산 근처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음: 공식적으로는 대제사장이 한 명, 종신직, 타락한 후에는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 몇 년 간의 임기가 있었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불리며 일정 부분 권위를 행사함,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는 그의 장인 (요18:13)

누가는 유명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로 초점  
물론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 이들을 언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뜻도 있다.

1. 하나님의 일에서 세상의 유명 인사들은 다 들러리다.
2.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3. 이 일을 위해 광야가 필요 하였다.
4.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다(메시아 대언).

### 요한의 사역

3절: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침례가 아니라 회개가 초점이다. 회개한 뒤에 상징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의식을 거함  
이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물 침례가 아니다. 침례자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양임을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구약 성도이다. 그는 침례 성도의 조상이 아니다.  
요한의 침례의 목적: 요1:31, 그의 사역은 오직 유대인들과만 상관이 있었다.

4절: 대언자 이사야의 예언(사40:3-5),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니 그분을 맞이하라.

그분이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며 이때에는 땅의 지형마저 변하게 된다.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임  
그때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예수님이 곧 100% 하나님이다.

### 종교인들에 대한 정죄

7-8절: 종교인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부류, 침례자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독사들의 세대: 예수님도, 이들은 다 유대인으로 철저한 종교인

이들의 특징: 종교 규율, 열심, 가문, 직위, 전통 자랑,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열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마23:15)

하나님의 말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종교심을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어떤가? 킹제임스 성경, 근본주의, 세대주의, 독립 교회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면 파멸한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다(9). 주님을 모르는 자는 오늘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 회개와 회개의 열매

파멸을 피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8)

회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는 것

이렇게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그분의 생명이 들어간다. 그분의 삶, 개, 돼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다 걸레 누더기, 개똥(개차반),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든다고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

11절: 그 당시 유대 사회는 40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며 전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많았음  
그러므로 진정을 회개하면 나보다 가난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 친족을 배려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가난을 보면 구제해야 한다.

영적인 가난도 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 이들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만 배불리 먹고 지내면 안 된다.

이사야 대언자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물으실 때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해야 한다.

이런 일을 위해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위한 희생이 커야 한다. 5월, 12월의 헌금

12-13절: 세리들,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필요 이상으로 거둬, 14절: 군사들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말: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변한다는 말: 남편, 아내, 자식, 변해야 산다.

### 결론

크리스천 믿음의 기본: 회개와 믿음(행20:21)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행)가 있고 매일 일어나는 회개가 있다.

회개가 강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회개가 약하면 개인과 교회가 무너진다. 회개를 잘하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 옥토가 되어야 한다.

침례자 요한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며 자기를 준비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 침례자 요한(누가복음 강해 Ⅱ)

성경말씀: 눅3:15-18

지난 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전령으로 백성의 마음을 예비한 침례자 요한, 그의 선포 핵심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크리스천 믿음의 기본: 회개와 믿음(행20:21)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행11:18)가 있고 매일 일어나는 회개가 있다. 구원 이후에도(계2-3) 회개가 강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는 어떤가?

### 배경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종종 주님의 일이 자기 일이 되며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은 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이 대신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사42:8; 48:11).

행12:20-23, 헤롯 왕의 연설,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23절의 저주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영광과 칭찬을 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 요한의 자기 위치 설정

유대 광야에 요한이 등장함, 400년 동안 대언자가 없었음,

하나님의 대언이 나오니 말 그대로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함

15절: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다. 무엇을? 메시아를 기대함.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음.

일이 잘될 때 내 위치를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는 죄를 짓기 가장 좋은 때

심지어 종교지도자들도 사람을 보내 요한에게 물음(요1:19-27)

요한의 대답: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20). 목사나 사역자는 이 점이 분명해야 한다.

나의 정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23).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

나의 위치: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눅3:16; 요1:27)

나는 주님 앞에 달려가서 백성의 마음을 예비하는 책무를 지닌 자,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각인시켜야 한다(주방, 설거지, 주차, 교사, 찬양대, 방송실, 집사, 지역 인도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교회가 주님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 그리스도나 교회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개인이 망하고 교회가 망한다.

### 요한의 메시지

그의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었다.

1. 자기의 일 확정, 나는 겨우 물 침례를 준다(16). 물 침례 자체는 구원을 주지 못한다. 오직 회개하라고 말씀만 선포할 뿐이다.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의 상징으로 물로 침례를 줄 뿐이다.

2.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주의 일을 하려는 모든 사람의 마음 자세

내 일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에게 사로잡혀 그분의 능력으로 일한다.

3. 그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렸다.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하나님의 아들(요1:34)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 예수님의 일

1. 성령 침례를 주신다. 침례는 잠그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이 마련하신 유일한 죄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 푹 잠긴다. 이러한 일을 성령 침례라고 한다.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난다. 요3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3, 5)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4)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서 나와야 한다(5). 양수 침례, 성령 침례, 두 번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는 '하늘에서'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영원히 성도 안에 들어와 거주하신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봉인으로 봉인되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 침례는 구약과 공생애 기간 중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신약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시는 말씀(행1:4-5; 행2:1-4).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약 교회에 속하게 된다.

성령침례는 어떻게 받는가? 기도원 가서 데굴데굴 굴러야 하는가? 불처럼 뜨거워져야 하는가?

아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

롬10:8-10, 13, 선포자가 있어야 한다. 17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선포를 들어야 한다.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위치를 깨들으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죽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의 영을 살리시면 그는 성령 침례를 받아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첫째 임무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심으로 성령 침례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님의 침례 사역과 교회 형성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성령 침례를 받았는가? 구원받았는가?

이 사람들만이 알곡으로 그분의 공간에 들어간다(17).

## 2. 불 침례를 주신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공의롭다. 그러므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롬2:6-11,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와 격노와 진노를 받는 자

하나님은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영존하는 불을 예비하셨다(마25:41).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마귀를 따를 때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를 불속에 집어넣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예수님의 둘째 사역은 불신자를 위한 것이다(17).

알곡이 아닌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신다.

불 속에 푹 잠겨야 하므로 이것은 불 침례이다. 오순절/은사집회의 불 세례를 받으면 큰일 난다.

마귀에게 푹 잠기는 일이다. 신사도운동, 빈야드, 펜사콜라 부흥, 헤브리티치 등 모두 마귀의 불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마10:28),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 지옥불의 심판을 면해야 한다. 오늘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

### 요한의 삶 요약

1.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다.
2. 그는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3.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히 알고 오직 그분만을 선포하였다.
4. 이러한 삶의 정수는 그의 선언에서 드러난다(요3:30).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5.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특권을 받음. 나를 낮추어야 하나님이 올리신다.
6.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자세가 되어 있는가? 특히 일이 잘될 때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

## 그리스도의 시험(누가복음 강해 4)

성경말씀: 눅4:1-13

지난 주: 침례자 요한의 위치 설정(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다, 전령이다). 그리스도만 높인다.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 침례, 불 침례 선포,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한다.” 우리는 어떤가?

### 배경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온 우주의 초미의 관심사, 사가라,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침례자 요한, 목자들, 동방의 지혜자들, 가브리엘, 천사들, 삼위일체 하나님(눅3:21-22), 마귀가 등장할 차례 예수님은 침례 이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와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로 가심 성령 충만: 침례자 요한, 오순절 이후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엡5:18).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질적으로 다르다. “성령님이 무한정 계시는 분”(요3:34) 이런 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다.

여러 시험, 그중 대표적인 것 3가지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마6:13)와 달리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 A. 대제사장의 직무 완성을 위해 반드시 시험을 당하셔야 한다(히4:15).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는 분이셔야만 우리를 위해 중보할 수 있다.
- B.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히2:18)
- C. 누가의 시험 순서는 마태의 것과 다르다. 마태는 중요성 순서, 누가는 신학적 순서(창3, 요일2)
- D. 여기의 세 시험은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당하는 시험, 히4:15의 모든 시험

첫 사람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원인(창3:6), 욱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요일2:16). 인류의 구원자라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시험을 이겨야 한다. 아담과 모든 사람 실패 <그리스도의 시험>

### 첫째 시험(욕신의 정욕, 3-4절)

1. 의심을 품게 만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의 수법, “하나님이 말씀 하셨느냐?”(창3:1)
2. 네 마음대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 능력이 있다. 그러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3. 예수님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요6:1-13). 이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준 것과 비교된다. 실제로 이런 일은 7년 환난기의 후반부에 이스라엘에 광야로 쫓겨날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실 것이다(계12:14). 그러므로 주님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4. 마귀는 해도 되는 것을 적당하지 않은 때에 하라고 한다.
5. 마귀 퇴치 방법은 “기록된바”의 성경 기록이다(4). 신8:3, “기록된바”의 의미: 모세가 15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지금 그대로 있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에 있어도 말씀들이 모두 보존되었다.
6. 개역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완전한 성령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것을 제거하면 사람이 살 수 없다. 잠30:5,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7. 요6:63, 마24:35,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들(단어들)을 보존하신다.
8. 우리 손에 그 단어들(단어들)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믿는가?

### 둘째 시험(안목의 정욕, 5-7절)

1.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 줌
2.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다. 마귀의 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한다(요2:15-17).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12:31; 14:30; 16:11), 이 세상의 신(고후 4:4),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 문화를 생산해 낸다. 특히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는 더욱 더 마귀 문화가 세상을 사로잡는다. 동성애, 도덕과 윤리의 타락, 살인죄의 증가, 종교 통합, 사탄 숭배
3. 마귀는 예수님에게 온 세상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실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분에게 속할 것이다(계11:15). 또 한 번 좋은 것을 적당하지 않은 때에 요구하게 한다.

4. 조건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은 실로 마귀에게 자신을 내주었다. 유명 연예인 중에는 사탄에게 몸을 파는 자들도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 숭배
5. 주님의 방법은 선 고난, 후 영광, 마귀는 그 반대. 주님은 먼저 갈보리 고난, 초림 사역, 후에 재림과 영광,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먼저 고난과 희생, 뒤에 영광, 우리 교회: 먼저 성경(고난 작업), 그 뒤 교회,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 고난이 먼저, 그 뒤 영광(딤후4:7-8), 그래서 젊은이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신학원 학생들도 마찬가지, 지도자가 되기 원하면 마찬가지
6. 우리 주님의 말씀, “기록된바” (신6:13; 10:20),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주님께서서는 마귀에게 “바로 내가 네 주 즉 너를 창조한 존재이다”라고 하시면서 경배를 요구함
7.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둘 중 하나를 경배하며 산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 위해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다. 마귀의 타락의 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경배를 찬탈함(사1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한다. 중간 지대는 없다.
8.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가?

### 셋째 시험(인생의 자랑, 9-12절)

1. 높은 곳(성전 꼭대기)으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말3:1-2,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고 다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인기 짱
2. 이것 또한 재림의 문맥, 초림에 적용하고 있다.
3. 그리고 마귀는 심지어 성경까지 사용한다(10-11). 이 시대 마귀의 사역자들 역시 성경을 사용하고 그럴듯하게 나타나 성도들을 유혹한다(고후11:13-15).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4. 그런데 성경을 변개한다. 시91:11-12, 11절에서 ‘네 모든 길에서’를 삭제함, 우리의 인생 여정의 모든 것에서(심지어 슬픔 고통에서도, 유금희 자매 어머니 소천, 강미선, 김진용, 강경희 자매), 12절에서 ‘언제라도’ 추가, 언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된다.
5. 이단들의 특징: 성경 왜곡, 그 결과는 파멸이다(벧후3:15-16), 빠지는 이유: 그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6. 예수님의 말씀,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신6:16), “내가 네 주다.”
7.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해야 한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의로 프리바 물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서는 안 된다(출17:1-7).
8.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것을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다.
9.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는가?

### 결론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시험을 받는다.

인간의 공통 시험, 아담 이래로 모두 실패, 예수님 승리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야 한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보존된 말씀이 있다.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기신 주님께 달려가야 한다(히4:15-16).

우리 주님이 이 시험들을 이기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 성경 기록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누가복음 강해 10)

성경말씀: 눅4:14-30

지난 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탄생, 초미의 관심사,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침례자 요한, 목자들, 동방의 지혜자들, 가브리엘, 천사들, 삼위일체 하나님(눅3:21-22), 마귀가 등장할 차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기시고 우리를 구조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심. 둘째 아담

### 배경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성령 충만 속에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심(14). 요1:19-4:54 내용이 이때 일어남. 누가만 그분의 고향 나사렛에서의 일을 기록한다.

주님의 일 혹은 사역(18): 복음 선포, 마태: 하늘의 왕국의 복음, 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막1:1)=하나님의 왕국의 복음(1:14), 누가: 복음(4:18; 7:22)

복음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기준은 무엇인가? 마음대로 규칙을 짜고 행하는가? 아니다! 메시아가 와서 선포하고 해야 할 일도 규정되어 있다. 성경 기록에! 성경 기록을 벗어난 메시아는 No!

복음: 고전15:3-4,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성경 기록대로 하는 성경 신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는 썩을 대로 썩었다(사1:10-12; 롬10:1-3).

예수님은 이것을 개혁하실 책무를 가진 분이다. 지금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서 돌아왔다. 기적을 행하신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14-15). 이쯤 되면 기존 틀을 모두 무시하고 새 판을 짜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다. 한 번만이 아니라 매번, 자기의 관례대로(16)

물론 율법의 성취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예배를 중히 여기셨다. 개인 예배 중요, 그런데 공예배는 규칙적으로 습관을 만들어 참여해야 한다.

이 시대 교회가 썩었다. 사실이다. 그래도 가능한 한 공예배를 가야 한다.

공예배를 게을리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된다(히10:24-25).

### 회당 예배 및 성경 기록 성취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회당이 세워짐. 예배: 개회 기도, 믿음 고백(신6:4-9), 기도, 구약성경 낭독, 회당의 치리자나 방문하는 랍비의 간단한 설교(행13:14-16), 기도

이 날 예수님은 방문자 랍비, 섬기는 자가 이사야서 두루마리, 예수님은 사61:1-2를 설교 본문(눅 4:18-19)으로 택함,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현장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사61:1-2를 메시아 구절로 이해하고 있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택하더니 읽으시고 21절에서 “이 성경 기록이 이 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고 선언하심.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선언한 것이다.

### 메시아 사역의 내용(18-19)

[주]의 [영]께서 임하사 기름을 부으심(한량없는 성령 충만).

1.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구약시대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 땅의 백성, 공의와 공흠, 십일조의 일부, 초대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들 배려, 교회는 사회사업 단체가 아니지만 마찬가지 배려),
2.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3. 포로 된 자들 구출, 4.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5.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6. [주]의 받아 주시는 해 선포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 성취

- I.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으며 이때에 온 땅은 경작되지 않고 안식하였다(출23:10-11; 레25:1-7).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관하는 것을 보여 주시게 하기 위해 안식년 제정. 안식년에 땅에서 저절로 자란 과일이나 곡식을 가난한 자들과 종들에게 그냥 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인정을 베풀게 하셨다.

- II. 희년(Jubilee) 50년마다 치르는 히브리 사람들의 명절. 이것은 7년이 일곱 번 지난 뒤에 왔다(레 25:8-17). 안식년 다음 해의 희년도 안식년, ‘주빌리’라는 말은 ‘소리 나다’ 혹은 ‘흐르다’를 뜻하며 희년이 다가옴을 알리는 나팔소리(양 뿔 나팔)를 가리켰다. 희년에는 아무도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았으며 땅은 저절로 내는 것들로 채워졌다.

(a) 개인의 자유 회복: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속물을 되찾았고 히브리 사람으로 종이 된 사람들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자유를 얻었다(레25:1-55). 7월 10일(레25:9)은 속죄일이고 산헤드린은 이때에 나팔을 불게 하였으며 종들은 곧바로 자유를 얻고 땅은 본 주인에게 돌아갔다(13, 47-55). 이것은 공홀의 법, 히브리 사람들 간의 평등 유지, 주님은 모든 것을 배분해 주는 분, 자기들은 청지기, (b) 재산의 회복(25:15), (c) 빚 면제

안식년/희년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 기록을 완전히 성취하려 오심. 즉 희년 제도의 완성(사61:1-2)

그래서 주님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며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오셨다. 눅4:31-42, 마귀, 병여기의 희년은 오직 메시아만 완전히 이룰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동일하다. 우리는 사회사업을 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긴다.

사랑침례교회 존재의 목적: 기쁨의 해 선포, 4:18-19 낭독

### 나사렛 유대인들의 문제

1. 복음 선포를 들음. 메시아 기적을 봄. 그런데 믿지 않음
2. 고향 사람들의 생각: 저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사람이 되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대신 속죄의 의미

현시대 사람들의 문제: 사대성인, 좋은 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3. 그들의 또 다른 주장: 가버나움에서 행한 많은 기적을 여기서도 행하라. 예수님의 거절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이 고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긴다. 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마12:39),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눅16:29-31
4.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도 포함한다. 유대인들의 관점: 아브라함의 씨, 선민, 이방인은 개돼지.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려 오셨다.

구약시대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 a. 엘리야 시대: 바알 숭배, 3년 반 동안 기근, 음식이 없다. 고아와 과부 양산, 왕상17:8-16,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의 과부에게 보낸다. 과부의 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빵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빵을 만들라. 순종할 때에 비가 올 때까지 가루 통이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음.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냐? 이방인이다.
- b. 엘리사 시대: 왕하5장,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출받았다. 그는 이방인이었다. 왜 구원받았느냐? 너희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 c. 선민, 조상, 재산, 업적, 명예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나의 가난한 상태, 병들어 신음하는 상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복음의 혜택을 누린다.

5. 유대인들의 반응: 회개는커녕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하려 함.
6. 하나님의 복음이 제시되면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난다. 한 부류 순종, 다른 부류 저항과 불순종, 극도의 증오, 우리는 어떤가? 이 좋은 소식이 우리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허락하는가? 처음에 진리를 들으면 잠시 좋아 하다가 곧 진리로 삶을 바꾸라고 하면 증오하는 자들이 많다.

### 결론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우리도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한다.

창조와 양심과 성경을 통해 사람이 알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다. 진리가 삶을 바꾸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한다(요8:31-32; 14:6). 영적인 파산 상태, 죄의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 제자의 조건, 임무, 자세(누가복음 강해 11)

성경말씀: 눅5:1-11

지난 주: 그리스도의 사역 1. 영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 2.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침 3. 포로 된 자들 구출 4.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 선포, 5.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함, 6. 주님께서 받아 주시는 기쁨의 해 선포, 두 반응, 오히려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는 자들

### 배경

마귀 들린 자(눅4:33-37; 40-41), 병든 자(38-39), 왕국 선포(42-44)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놀람(32), 권세와 권능에 마귀들이 쫓겨나감(36)

사람들이 구름베처럼 몰려들, 결국 땅에서 설교를 못하고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하심(3)

드디어 왕국 선포에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함. 시몬과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등장, 제자

제자: 스승의 길을 배워 따르는 사람, 행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전에는 제자라 불림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고 따라가는 제자, “제자 삼자”는 말이 얼마나 유행하는가?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제자의 조건, 임무, 자세는 무엇인가? <제자의 조건, 임무, 자세>

### 제자의 조건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아마 어부의 가정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어부로 잔뼈가 굵음

고기 잡는 데는 도사, 특히 게네사렛 호수(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끌어당기라(4).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 밤에 얕은 데서 한다고 함. 지금 아침에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심

내 경험과 전혀 맞지 않음. 그러나 그는 5절에 따라 그대로 한다.

베드로는 일생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해야 했다.

사람의 판단에는 그의 배경, 지식, 위치, 혈통 등이 크게 작용한다.

심지어 세상일도 잘 판단하며 살아야 한다. 더욱이 영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이때에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베드로는 바르게 판단하였다. 무엇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5절)

그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자기의 경험을 무시하고 바르게 실행하였다.

창15의 아브라함,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

요3의 니고데모: 권세, 유대인들의 치리자, 쉽지 않다.

요4의 수가 성의 여인: 사마리아 백그라운드

눅19의 삭개오: 세리

행9의 바울: 종교인, 열정, 쉽지 않다

공통점: “경험, 지식, 권세, 배경, 혈통에 맞지 않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눅4장의 나사렛 거주민들: 요셉의 아들, 배척하고 죽이려 함,

요7장의 수제사장, 바리새인들(7:45-52):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도 속았느냐? 갈릴리

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처녀 탄생, 갈릴리 목수의 아들, 대신 속죄, 이해가 안

된다. 아예 들어보 생각도 안 한다.

순종의 결과: 6-7절,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담을 정도로 많이 잡힘

회심: 8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니 제 경험이 다 소용없습니다.” 지식, 명예, 권세

“주님은 심지어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

요1장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제자 혹은 일꾼은 아니었다.

주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의 특징: 나의 무능함과 추악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인 되심을 체험해야 함

사6의 이사야의 주님 체험: 이미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 1-3,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의 반응: 5절, 7절의 위로의 말씀, 그 뒤에는 그는 60장을 더 기록함, 예수님의 대언 중

가장 중요한 대언은 이사야서에 기록됨

우리는 어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 받은 뒤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제자의 임무

모든 어부들이 놀람,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10).

예수님의 임무 부여: “이제는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낚으리라.”

주님의 말씀의 오묘함: “사람들을 구원시키리라. 자유를 주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No!

“낚으리라.” 베드로는 어부, 그가 가장 잘하는 일, 고기 낚는 것, 그때의 쾌감, ‘사람들을 사냥하라’ 이해가 어려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라. 장기를 살려서 사람을 구하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최대 장점을 살려서 사람을 낚아야 한다. 지식, 명예, 재물, 인품, 섬김 목회/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설교로 구하려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다.

무엇이든 내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교회의 임무: 교육과 교제(성도의 성숙)와 선교(진리 선포)

교회는 목사에 의해 성격이 결정된다: 설교/강해/성경공부/저술, 전도, 섬김 및 심방 위로

우리 교회의 장점: 설교/강해/성경공부/저술 미디어 선교, 개인의 구령

요즘 김항수 형제님의 유튜브 동영상: 많은 사람이 변화된다. 그분의 장점

김대용, 이성준, 이정원, 장용철, 남윤수, 박장균, 정다운소라, 이청원, 김경민, 주경선, 곽윤찬, 유나얼, 김재욱, 잘할 수 있는 일로 사역

주방, 주차, 아이들 교육, 방송실, 집사, 지역 인도, 교사, 찬양, 주일 예배 참석, 현금 큰일을 하려 하지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섬겨라.

그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사랑침례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동의 보상을 받는다.

## 제자의 태도

고기도 그냥 낚을 수 없다. 지식이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성경 지식, 세상 지식 그리고 인품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품 곧 성화. 인품의 변화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본인은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데가 있다: 한킹의 말씀보존학회

“개역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면 “이 새끼, 저 새끼,” 안하무인 이런 사람들, 이런 맛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언행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니 들어가는가? 사람은 외모를 본다. 말과 행실이 고와야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자유, 무슨 책, 무슨 사이트 자율적으로 한다.

다만 여러분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험한 말이 오가는 책, 사이트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약3:9-10, 사도 바울, 예수님 어느 누구도 이런 품행을 보인 적이 없다. ‘성도의 언행’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골4:6).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 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4:29).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라. 37 네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들로 네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마12:36-37).

## 결론

사6:8,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구원받기 원하는가?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한다. 주인,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나는 죄인입니다. 무능합니다. 더럽습니다.”

사람을 낚으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이러려면 성경 지식과 인품, 특히 언어 습관 회개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공훈이 풍성이 주어질 것이다.

## 나병에서 벗어나기(누가복음 강해 1군)

성경말씀: 눅5:12-15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주님의 영이 임하시매 그분께서 1. 영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 2.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침 3. 포로 된 자들 구출 4.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 선포, 5.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함, 6. 주님께서 받아 주시는 기쁨의 해 선포, 육신의 병(나병)을 고쳐 주심

### 배경

나병: 출4:6-8에 모세의 표적으로 처음 등장, 이스라엘과 이집트에게 보여 주는 표적

Leprosy 39번, leper(17, 6), leprous(6), 총 68회

구약에서는 악한 일이 생길 때 나병이 발생함

미리암(민12:10-15), 나아만과 게하시(왕하5), 웃시아(왕하15)

한센 병(1871년): 초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치료 가능, 발전하면 격리되어 환자 촌으로 들어가야 함

특징: 신경을 죽이므로 아무 고통 없이 살이 녹아내림

지금은 많지 않으나(인도 등)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다(마8:21; 막1:40; 눅5:12; 17:12)

벤허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 사53, (1) 그분은 슬픔의 사람, 고통을 잘 아는 분(53:3)

메시아의 사명 중 하나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는 일(사53:5)

사35를 보면 메시아 표적(사35:3-6), 질병 치유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을 눅4의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 예언하심

<나병에서 벗어나기>, 육체의 질병, 죄의 질병에서 벗어나기

### 나병과 죄

나병의 출처: 출15장, 이집트 탈출, 수르 광야 3일 동안 물이 없음. 마라의 쓴 물, 불평, 나무를 물에 던짐, 질병 치료 약속(출15:26), '이집트의 모든 질병 치료',

아마도 나병 역시 이집트 산, 그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었다. 몹쓸 병, 가장 무서운 병

치명적인 병은 많은 경우 아프리카에서 온다: 에이즈, 에볼라, 아마 나병도(모세의 나병 표적)

이집트는 세상을 뜻하며 실제로 무서운 병도 거기서 많이 왔다. 함의 저주

나병 판단 및 정결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나병이 발생함

레13(나병 판단), 14(나병 치료 후 정결례)

엄격한 규정을 둔 이유: 나병은 사람의 힘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

나병의 치료는 '정결하게 씻는 것'(cleansing)으로 표현됨, 이 말은 사람의 죄를 씻는 것과 같은 말  
그래서 자세히 나병을 살펴보면 사람의 죄와 특징이 매우 비슷하다.

1. 사1:4-6에서 이사야는 유다의 죄를 나병에 비유함(6)

2. 피부보다 깊은 데 있다(레13:3). 그래서 표면에 약을 바른 것으로는 치료 불가능

3. 서서히 퍼진다(레13:7-8).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퍼진다.

4.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레13:44-45). 형태 변형, 수치, 치욕

5. 환자의 출회/격리(레13:46), 지옥

6. 살아 있으나 죽은 자처럼 여겨짐(민12:12)

7. 환자의 웃은 불로 태움(레13:52), 죄로 인한 결과는 다 불태워진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오직 '정결하다', '부정하다' 선언하는 것

부정한 자로 판명되면 출회를 당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함(레13:45-46)

그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나아만 이야기

그래서 나병은 정결례 의식에서 죄와 마찬가지로 속죄(atonement)를 해야 했다(레14:18-21, 29, 31, 57). 이 속죄에 필요한 것은 어린양의 피와 기름(레14:12, 14, 15)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1) 나병을 고쳐주시며 (2) 모든 사람의 나병인 죄 문제를 보여 주신다.



## 나병에서 나오려면

1. 나병 환자는 자기 병에서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병을 지닌 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기 원치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다.  
12절의 나병 환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어기고는 예수님을 찾아 왔다.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그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려운 질병이 생기면 병 고침을 바라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와야 한다.  
또한 죄의 병을 알고 있으면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
2. 그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에게 왔다. 사람들의 소문: 마귀들, 질병(눅4), “나도 나올 수 있다.”  
이집트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세리, 창녀, 나병 환자, 누구든지 문제 있는 사람)  
마9:13
3. 그는 예수님에게 앞드려 긍휼을 간청하였다. 오직 긍휼, “제 것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영혼의 병을 고치기 원하는 사람도 나와야 한다(눅18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4.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볼 때 병을 포함한 인생의 문제들이 풀린다.  
풍랑 속의 제자들(마8:25), 가나안 여인(마15:22)  
십자가의 강도(눅23:42), 다마스쿠스 도상의 바울(행9:6)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 나와야 한다.  
요일5:14, “다 낫는다는 말이 아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고칠 수 있다.  
우리의 죄병도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  
구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롬10:9-10, 13).
5.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13).  
그분 스스로 부정하게 되셨다(고후5:21; 뱀전2:24).  
“내가 원하노니 정결하지어다”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하실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지금도 하실 수 있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 병약함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병에서 구하실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지금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홀로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루셨다!”.
6.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는 영원히 나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주님이 우리의 죄병을 치유하면 그 즉시 단번에 영원무궁토록 죄병에서 벗어난다.
7. 그 이후에 그는 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이며 정결례 의식을 행하였다.  
신약에서는 침례를 행하여 죄병에서 나음을 만천하에 알린다.
8.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므로 알리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는 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림(15)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  
우리의 죄병이 나오면 말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죄병도 고친다.

## 결론

나병은 무서운 병, 격리, 주님만 고치는 병, 인생에서 육신의 질병을 앓을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

죄병은 무서운 병, 지옥 격리, 주님만 고치는 병, 누구나 죄병을 타고난다. 죄병에서 낫기 위해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와야 한다. 오늘 이 시간

##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누가복음 강해 13)

성경말씀: 눅5:12-15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주님의 영이 임하시매 그분께서 1. 영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 2.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침 3. 포로 된 자들 구출 4.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 선포, 5.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함, 6. 주님께서 받아 주시는 기쁨의 해 선포

지난 시간: 나병을 고쳐 주심,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나병과 죄는 매우 비슷하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오늘은 나병 치유 이후 실제로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살펴보려 함

### 죄

죄: 사람은 자꾸 약화시키려 하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게 비난하고 심판하시는 것

1. 우연히 생긴 일; 가증한 것, 2. 실수; 나병, 3. 결점 혹은 부족; 불법, 4. 우연; 선택, 5. 잘못; 원수 되게 하는 것, 6. 매력적인 것; 치명적인 것, 7. 연약함; 의도적인 것

a. 죄는 성경에 적어도 700번 이상 나온다(단수 죄 448회, 복수 sins 172회, 다른 명사).

b. 죄라는 단어는 창4:7에 가인과 함께 처음 나온다. 창18:20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두 번째로 나온다. d. 마지막으로 죄는 계18:5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언급된다.

c. 성경은 죄 이야기: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 '죄'는 무엇인가?

d. 성경 조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성의 대비: 한 존재의 순수성과 다른 존재의 더러움

e. 2000년 전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마리아의 순결함을 이야기함(마1:20-21).

f. 예수님이 오신 근본 목적: 죄 문제 해결, 그 뒤 30년이 지나서 요1:29

2. 죄의 정의: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롬3:23) '창조물이 의도적으로 창조자가 마련한 한계 안에 거하지 않으려는 것이 죄다.'-L. S. Chafer

3. 죄의 기원, A. 우주에 들어온 죄의 기원: 땅의 창조 이전에 루시퍼와 그의 추종 천사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음, 그 이후로 사탄은 죄의 원천과 기력이 됨(사14:12-14; 겔28:12-18)

B. 이 세상 죄의 기원: 사람이 선악과 먹음으로써 죄를 땅에 가져옴(창3:6).

4. 죄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롬3:23).

5. 죄의 사악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성의 깊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죄와 불법(사59:2).

A.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의 타락,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엄청난 독). 이 정도로 죄는 심각한 문제이다.

B. 하나님의 해결책

1. 하나님의 아들이 극도의 고난을 겪고 죽어서 이것을 제거한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정도로 죄는 하나님 편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2.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 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3. 불신자의 심판: 영원한 지옥 불(마25:41),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

6. 죄의 결과: 죄의 삯은 사망(롬6:23)

1. 육적 죽음(창5:5; 시90:10)

2. 영적 죽음: 둘째 사망, 불신자(마7:23; 마25:41; 계2:11; 20:6, 14; 21:8)

a. 영적 죽음은 미래에 있지만 불신자는 이 시간 이미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어 있다(엡2:1-12).

b.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잘린 꽃과 같다. 잠시 화려해도 곧 말라버린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7. 죄 사면의 필요 요소: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히9:22).

### 본문

1.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박사, 서기관(눅5:17, 21)

백성의 지도자로서 거짓 대언자들을 구별할 필요와 의무가 있었음(신13, 18).

침례자 요한에게로 사람이 몰려들자 그를 심문함(요1:19-34): 그리스도, 엘리야, 그 대언자

누가복음에서 처음 바리새인이 나옴: '분리하는 자', 포로 생활 이후 말라기 대언자 당시 '하시딤',

처음에는 좋았지만 가면서 율법주의자가 됨. 글자의 포로가 됨, 서기관도 마찬가지(마23:23)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들었다고 좋은 성도가 되지 않는다. 위선자가 될 수 있다.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아무 소용없다. 성경 왜곡, 해석 왜곡, 자기 뜻 관철, 결국 바리새인의 말로

2.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며 병을 고침(17): 눅4:18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헤브리 터치', 안수, 이수라장 인위적 꾸밈 No!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신다. 목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3. 나병을 고친 뒤 이번에는 마비 병 환자가 그분께 옵니다(18)  
나병은 더러움 자체, 마비 병은 죄로 인한 무기력, 이것 역시 하나님만 고친다(3복음서 기록 중요함).
4. 무리로 인해 지붕으로 가서 덮개를 들어내고 자리에 누인 채 주님 앞으로 내려 보냄(19)  
병 고침을 받으려면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죄병도 마찬가지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한다. 죄병도 마찬가지  
그리고 믿음을 갖고 와야 한다. 죄병도 마찬가지  
이때에 주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다. 죄병도 마찬가지
5.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선언하심(2)  
병이 먼저가 아니라 죄가 먼저임  
이 사람이 병 고침/죄 용서 받은 이유: 믿음, 하나님은 돈, 학식, 지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신다.  
이 사람이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 때 주변 사람들도 감동받아 그를 도우며 믿음을 발휘함  
이때 그 친구들 앞에는 방해물이 없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친구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한다.  
병이 있고 거기서 나아가 함을 알리는 교회  
낫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교회, 미디어 선교 현금, 서울의 한마음 미션, 한마음 침례교회
6.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 신성모독, 하나님만 죄들을 용서하신다. 자기가 하나님인가?(21)  
바로 이 점을 보여 주시고자 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십자가 처형의 원인
7. '죄들을 용서 받아라'와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더 쉬우나? 사람 편에서는 둘 다 어렵다(23).  
그래도 사람 편에서는 말로 '죄들을 용서 받아라'고 하는 것이 쉽다.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둘 다 쉽다. 그런데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은 죄들의 용서: 이것이 없으면 둘째 사망  
예수님은 이미 이 환자의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죄들도 용서하셨다.  
믿음 없이 죄들의 용서 불가능(히11:6)
8. 내가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보여 주려 한다. '일어나 걸어가라'(24)  
사람 편에서는 정말로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셔서 자신의 권능(파워)을 보여 주심  
이로써 예수님은 육신의 병과 죄의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 주심  
예수님은 마귀들도 내쫓으심(눅4:33-36)  
즉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메시아(24절의 사람의 아들)요,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입증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고전4:20; 롬14:17).  
우리의 믿음 사역(성경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한다.  
죄병과 육신의 병에 들린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한다.  
마귀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경 사역과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서 물러가기를 원한다.
9.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감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며 영원하고 즉시 새 삶을 보여 주었다.
10. 우리가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한다. 7년 역사, 아침하는 말, 타협, 오직 말씀,  
킹제임스 성경, 교회가 된다. 병자가 낫는다. 복음이 선포된다. "이상하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말씀으로 육신의  
병도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

##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한다(누가복음 강해 14)

성경말씀: 눅5:27-39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주님의 영이 임하시매 그분께서 1. 영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 2.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침 3. 포로 된 자들 구출 4.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 선포, 5.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함, 6. 주님께서 받아 주시는 기쁨의 해 선포

지난 시간: 나병을 고쳐 주심, 죄들을 용서하심,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한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새 일을 새롭게 바르게 하게 하시는 일

### 유대교

유대인: 아브라함부터 시작, 500년쯤 지나서 모세 시대에 시내 산에 율법, 출19:5-6

십계명, 성막, 성전 예배, 일곱 명절, 안식일, 안식년, 희년, 희생예물(죄, 범법, 화평, 음식, 자원) 시민법, 이런 복합 제도를 유대교라고 하며 여기의 중심은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은 유대교는 낡은 것으로 사라져야 하고 기독교 혹은 기독교의 구원은 새로운 창조임을 보여 주심

### 마태를 부르심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 세금을 충실히 거두고 있었음(27). 세금 부과율은 어느 정도 세금 징수자(세리)에 따라 달랐다. 그래서 세리는 원하면 쉽게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아마 세리의 세금 징수에는 늘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눅3:12-13). 그러나 정직하게 거둔다 해도 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비쳐져서 유대인들이 싫어함. 죄인으로 매도함

여기의 레위는 세금을 도둑질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럼에도 창녀와 세리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는 죄인으로 평가되었다. 이 말은 곧 그는 왕따를 당해 친구들이 없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는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과 권능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이다. 다만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감히 그분께 갈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를 찾아오시고는 그의 이름을 마태(하나님의 선물)로 바꾸어 주심(27).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다. 그리고 과분한 복을 주신다.

이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름(28).

그리고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 자기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29).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림: “어찌 너희가 창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음, 종교 지도자들은 기존 틀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음 사랑침례교회의 가치: 신약교회를 한다. 영혼의 자유, 목사의 제사장 탈피, 헌금의 원리(십일조)

이런 것이 그리 어려운가? 아니다. 그런데 왜 못하는가?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서 예수님은 기존의 낡은 틀을 깨뜨리는 분이시다. 죄인으로 정죄하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을 찾아와 구원하시고 12제자의 반열에 넣어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신다(마19:28).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이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네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신다.

#### 1. 나는 의사로 죄 병을 고치러 왔다

기존 종교 지도자들은 마태와 세리, 창녀를 정죄 받은 죄인으로 보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병자로 보심, 병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미 12-16절의 나병 환자 치료, 17-26절의 마비병 환자 치료, 죄들의 용서 가능함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우리는 전통대로 율법을 지키므로 안전하고 너희는 죄인이다.

겉을 보면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마23:25-28). 그러나 그들 역시 죄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병이 걸려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엡2:1-2).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필요를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부터 이스라엘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다.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진단을 내림(렘6:14), 조금 고치고는 다 고쳤다고 함 이 시대에도 오순절/은사주의 목사들이 거짓 진단을 내린다. 영이 피폐한데도 땅에서의 번영 신학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계3:17-18)

좋은 목사/친구는 바르게 진단해 주는 사람, 좋은 약은 씬

세상 부귀가 먼지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먼지이다. 죄, 사망, 둘째 사망  
진단받은 뒤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가야 한다.

그리고 유일한 치료약인 십자가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아야 한다(히9:22).

주님의 말씀(31-32), 우리는 어떤가? 한 때 병든 자들이었는가, 온전한 자들이었는가?

눈먼 자들이었는가, 눈 뜬 자들이었는가? 예수님을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러 오셨다.

2. 나는 신랑으로 기쁨을 주러 왔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의 모임을 싫어했고 동시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우리 주님은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가는 곳에는 늘 기쁨이 넘쳤다.

종교는 금욕과 고행을 요구한다(천주교, 불교, 이슬람, 각종 이단들, 금요 집회, 철야, 40일 금식,

계룡산) 등.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정상적인 생활과 기쁨을 준다. 신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싫다. 틀에 박힌 근엄함, 예배 형식, 기쁨이 있는가?(예배, 헌금, 섬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1주일 동안 진행됨. 말 그대로 기쁨이 흘러넘침

하나님께서서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기뻐하시고 신랑은 군대의 의무도 1년간 면제해 줌(신24:5)  
물론 유대인 제자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빼앗기고 울며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랑이 정혼한 뒤 지금 함께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 집에  
계신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부활/휴거를 통해 자신의 신부를 모두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전4:13, 18,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의 신부가 된 자들을 종교인들처럼

고행으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교회에 오면, 어디든지 형제/자매들이 모이면 기뻐야 한다.

3. 나는 새 옷을 주러 왔다.

옷이 낡으면 구멍이 난다. 낡은 옷의 구멍을 새 형질으로 기우면 둘 다 망가짐.

a 새 옷이 강하므로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놓음

b. 새 옷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음

c. 기독교는 유대교의 구멍을 메우는 종교가 아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 틀이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보혈이 옛 사람의 뽕 뚫린 구멍을 메꾸어 주는 것이 아니다.

고후5:17, 새로운 창조물, 모든 것이 새롭게 됨, 땀땀이 아니라, 아예 새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만 바꾸고 모든 것은 과거 틀 그대로 하면 땀땀이다(여러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여러 목사님들이 새롭게 교회를 하기 원한다. 그러려면 땀땀이 아니라 완전히 다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신약 교회이다. 유대교의 연장, 수정, 보완, 땀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4. 가죽부대

고대 중동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잘 다듬은 뒤 다리가 있던 부분을 꿰매서 부대로 사용했으며

여기서 목 부분은 부대에 액체를 넣거나 빼는 데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쉽게 이런 부대를 메고 다녔다.

부대가 오래되면 딱딱해지면서 망가지기 쉬움

여기에 새 포도즙을 넣으면 가스가 생기면서 가죽 부대가 터짐. 포도즙과 부대 모두 망가짐(32)

그러므로 새 포도즙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33).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 옛 것이 좋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옛 것에 안주하려 함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교회 운영, 섬김 등 모든 것 상식과 이성).

예수님은 낡은 가죽부대인 유대교 시스템의 종말이 올 것을 예고하셨다(히8:13; 9:1).

결국 유대교는 AD70년에 망함.

유대교의 율법: 도덕법, 의식법(예수님 성취), 시민법(사라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시대(벧전2:5, 9)

목사가 성도들을 강제로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아니다(고후1:21).

5. 요약: 죄인들 고침, 신랑으로 기쁨, 새 옷, 새 포도즙은 새 가죽 부대에

## 안식일의 참된 의미(누가복음 강해 15)

성경말씀: 눅6:1-11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

새 것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어울린다.

기독교는 샤머니즘, 유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소크라테스 땀뺑이 아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옛 사람을 땀뺑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이다. 예가 필요함 새 것을 새 것에 담아야 함을 보여 주시기 위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심, <안식일의 참된 의미>

### 안식일

‘안식’(Sabbath, rest)이라는 말은 ‘멈추다, 그치다, 쉬다’는 히브리 동사(샤우바스)에서 나온 ‘안식일’은 말 그대로 ‘늘 하던 일에서 떠나 쉬는 날’이다.

- A. 안식일은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이다(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창1:5, 8 등).
  - a. 창2:2-3 안식일(일곱째 날, 히4:4).
  - b. 안식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째 날이다. 변한 적이 없다(마24:20). 지금도 이스라엘
- B.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법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심(창20:8-11). 1차적으로 모세 율법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출31:13; 겔20:12, 19-21).
  - a.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1주일에 하루를 떼어 안식함. 그러나 법은 아님
  - b. 법으로 지키는 것의 의미: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출31:14-15; 민15:32-36).
  - c. 교리적으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며 이방인들(세상)과 교회(그리스도인)와는 무관
- C.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 a. 자신들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했다(출20:8-11).
  - b. 자신들의 구속자를 기억해야 했다(신5:15).
  - c. 우리도 이런 정신을 본받아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창조자와 구속자를 기억해야 한다.
  - d.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안식 제도’는 결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창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막2:27).
- D.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으며 이때에 온 땅은 경작되지 않고 안식하였다(출23:10-11). ; 레25:1-7). 7일 창조, 7일 1주, 안식년, 희년, 7 명절
  - a.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BC 606-536)의 원인: 렘25:11-12; 대하36:21
- F.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잊고 형식만 갖추기 시작하였다.
  - a. 금지 규정 39가지: 1) 바느질, 2) (밭)가는 일, 3) 곡식 타작, 4) 골라내는 일, 5) 빵 반죽, 굽는 일, 6) 양털 깎기, 7) 불끄기, 쪼기, 8) 망치질, 9) 1km 이상 걷는 일 등, 안식일이 고통이 되고 짧, 형식화
  - b. 지금 식으로 말하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주일 성수, 십일조 하는 것과 비슷함
  - c. 이런 전통이 금식과 안식일로 나타남.  
금식(사58:3-7), 안식일(사58:13-14)
  - d. 결과 속이 다른 위선의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함: 기도, 구제, 금식
  - e. 오락을 금하는 것은 좋은 일, 그러나 극단으로 나가면 안 된다.
  - f. 주일(안식일) 성수, 금식, 십일조 등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 G. 신약 성도들의 안식일 준수: No!
  - a. 구약의 율법 명령들은 이제 폐기되었고(고후3) 크리스천들은 이제 율법 하에 있지 않음(롬6:14).
  - b. 실제로 유대인들 외에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없음(거리 문제 약 1km, 전등, 차, 가스 레인지, 불 등)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그 주변에 모여 살았다.
  - c. 안식교, 안증회 등 토요일 예배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 발상
  - d.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였음(150년경에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거의 확정됨).

## 안식일의 왜곡과 정정

1-2절: 곡식 받을 지날 때 곡식을 따서 비벼 먹음, 바리새인들의 지적: 안식을 범함

타인의 곡식을 먹어도 됨(신23:24-25), 그러나 안식일에는 안 됨

3-4절: 다윗이 행한 일(삼상21:1-6), 다윗이 도망가서 놓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감, 모두가 지친 상태, “빵 5개나 무엇이든 주십시오(3), 제사장이 빵을 줌”

‘보여 주는 빵’(12지파 혹은 12달의 12개)을 안식일에 성막의 성소에 둠(레24:5-9).

의미: 하나님의 얼굴(임재), 빵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레24:8)

제사장만 먹을 수 있음(9),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빵을 먹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곤궁에 처함.

대제사장이 허락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 의미: 사람이 사람의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

5절: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라.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나? 사람을 위해 하루를 제정하신 것이 아니냐?(창2:2-9, 막2:27-28)

나는 안식일의 주니라: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자다.

너희의 전통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 간호사, 소방대원 주일성수 불가

새벽기도, 금요 철야, 구약의 십일조 등 한국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철폐하려고 내가 왔다.

행15의 예루살렘 회의: 베드로의 말(행10), 야고보의 판결(19): 우상, 음행, 피 등 금지(28)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사람의 전통이 사람을 얽어매서는 안 된다(우리의 이성과 상식).

6-11절: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고침, 숨어서 몰래 고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침

예수님의 포인트(9절)

하나님의 법 혹은 규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얽어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복장: 단정하게, 자매들 가능하면 무릎 아래 치마, 아이들도 걸러 있는 셔츠 신발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믿음의 유무 판단).

구원받으셨습니까? 날짜, 구원 성경 구절, 절대 의심하면 안 됨, 공식대로 나와야 하는 규정 사람을 잡는 규정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놓쳤다(마23:24-26): 모기에 긴장, 낙타는 삼킴

예수님의 말씀: 마9:12-13

종교인들의 거부 반응이 심하게 나타남(11): 병자가 나왔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냄.

우리는 어떤가? 교회의 규정, 내가 세운 규정이 사람을 망치게 하지는 않는가?

구원: 내가 배운 대로 해야만 구원, 성장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신다.

그 뒤에 말씀을 먹고 성장하면서 법도 지키고 좋은 성도가 된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조금 홀로 두어야 한다.

“구원받고 나니 더 힘들어요.”, “며칠만 기쁘고 더 힘들어요”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예배, 기도, 말씀, 헌금, 교제 등을 속 중심에서 우리나라서 하라는 말이다.

## 결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복된 소식 선포, 구원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보존된다. 어울린다.

우리는 새 사람인가? 우리는 신약 교회인가?

우리는 안식일 규정으로 사람을 잡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규정은 없는가?

속이 겉보다 중요하다.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든 것보다 그것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 제자 선택의 기준(누가복음 강해 16)

성경말씀: 눅6:13-16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 새 것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어울린다.

이 일을 위해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마16:18) 승천 후에도 교회가 지속되게 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다. 성경의 하나님: 사람을 세워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신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임명함 <제자 선택의 기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나도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무엇이 기준인가?

### 제자 선택 과정

예수님은 이미 여러 제자들을 택하셨다(13). 눅5:11(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27-32 마태 13절을 보면 그중에서 특별히 열둘을 택하셨다.

제자: 선생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이 중에서 특별 선택을 받은 사람이 열둘 있었다.

주님은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13). 특별 임무를 띠고 파송 받은 사람

조건: 주님을 본 사람(행1), 사도의 표적(고후12:12), 현시대 신사도운동은 이단 사이버

12절: 병든 자, 마귀 들린 자, 종교인들과의 만남, 이제는 일을 위임할 필요가 생김

그래서 주님은 밤새 기도하심: 반대가 거세짐, 십자가 처형, 이길 힘을 달라고

자신의 교회를 이끌 사람들 선택: 하나님의 인도, 이 중 하나는 마귀, 처음부터 아심(요6:64), 신중

### 12 사도 선정(마10:1-4; 막3:13-19; 눅6:12-16): 중요함

베드로(작은 돌)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 인도(요1), 그리스 사람들 인도(요12)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천둥의 아들, 헤롯에게 죽임을 당함,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복음, 계시록 벧세다 출신의 빌립: 사도행전 6-8장의 복음 전도자 빌립이 아니다. 요14:8-9, 보여 주소서

바돌로매(나다나엘 요1:45-49): 간사함이 없는 사람, 세리 마태(레위): 천대받는 직업

의심의 대왕 도마: 디두모, 길을 모른다(요14:1-6),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요21:28)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유다(다대오): 모름, 셀롯 시몬: 열심당원 혹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가룟 유다: 카리옷 출신, 그는 또한 배신자

평가: 7명은 어부, 한 명은 세리, 네 명은 직업을 모름, 서로 다른 성품

보통 사람들(고전1:26-29),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Yes!!! 자랑 No!!!

### 12 사도의 사명(마10:1)

막3:14,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교제), 복음 선포, 병 고치며 마귀들 내쫓음

마10:5-26, 왕국의 복음 선포, 부활하신 뒤에는 경륜이 바뀌면서 마28:18-20

온 세상,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사명: 킹제임스 성경, 교회, 미디어 사역: 1억 원, 27,000원, CD 41,000개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중국: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CD 1500개, 각종 책자, 바른 교회, 바른 교리

### 12 사도의 보상

메시아 통치 때에 열두 지파를 재판한다(마19:27-28).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상의 약속이 있다(계22:12). 그리스도의 심판석(고전3:10-15)

### 12 사도의 순교

예수님의 순교 예언(마20:20-23), 죽음의 침례를 받는다. 아무것도 모르고 Yes!!!

폭스의 순교사화(23-34쪽)

1. 스테반: 행8장, 2. 야고보: AD 44년 헤롯에게 죽임을 당함(행12).

3. 빌립: AD 54년 프리기아의 헬리오폴리스에서 십자가형 순교

4. 마태: 파르티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사역, AD 60년 에티오피아에서 전투용 도끼로 살해당함

5. 작은 야고보: 94세의 나이에 유대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음

6. 안드레: 많은 아시아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소아시아에서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7. 베드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8. 유다: 즉 다대오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을 당함.
  9. 바들로매: 그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태복음을 힌두어로 번역했으며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다 열성적인 우상숭배자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10. 도마: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교도 제사장들의 분노를 샀던 그는 창에 찔려 순교했다.
  11. 누가: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인 제사장들에 의해 올리브 나무에 달려 죽은 것으로 전해짐.
  12. 시몬: 아프리카와 멀리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
  13. 바울: 로마에서 참수형, 맛디아: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참수형을 당했다.
  14. 마가: 무자비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를 숭배하는 연례 축제 때 질질 끌려 다니며 갈기갈기 찢겨 생을 마감했다.
  15. 요한: 요한은 소아시아의 계시록의 일곱 교회 설립, 참혹한 죽음을 면한 유일한 사도
- 그 이후 수많은 성도들이 천주교의 박해 속에서 순교하였다.

특히 우리 침례성도들은 유아세례, 미사, 신자의 교회 회원권 반대, 수 없이 많이 죽음 이 시대에 마귀는 박해보다는 유희 작전으로 오히려 기독교를 약화시킴(너무 편하다). 말씀의 약화, 무방비 이 시대에 바른 성경을 가지고 지키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열심을 다해 보상을 바라면서 할 일을 감당하자. 이것이 우리의 할 일

### 제자 선택의 기준(요6)

예수님, 병 고침, 마귀를 내쫓음,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말씀하심

로마 정치와 유대 종교에 찌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듦(요6:2)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킴: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5000명을 먹임(요6:5-14)

백성들의 반응: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14; 신18:15), 왕을 삼으려 함(15)

예수님은 물러가심: 지도자의 자세, 세상의 영광 No! 지도자는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이 오해함: 기적들을 보고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에만 치중함(26). 은사주의 주님의 권고 말씀(27):

“나는 하늘의 빵이다.”(35),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40),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51, 53)

제자들의 반응: 말씀이 어렵도다(60)

예수님의 말씀(63)

그 결과(66):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질문함(67)

베드로의 대답(68-69)

1.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2.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선생을 좇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제자였다. 그러나 물러가서 다시는 오지 않은 제자가 많았다.

오늘 신학원 2기 8명이 졸업한다. 2년 동안 10과목, 300시간, 책들, 자기 성찰

신학원의 목적: 목사가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러나 가능하면 졸업자 중에 좋은 목사 즉 제자가 나오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계시, 영감, 본존, 번역, 지금 완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인터넷 설교 듣는 모든 사람에게 바라는 것: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없으면 바른 교리, 성장, 교회, 교제, 선교 할 수 없다.

우리 교회, 신학원, 주일학교, 각종 모임: 말씀에 대한 확신

교회, 목사는 없어져도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된다.

이 확신이 들면 성령님의 열매, 인격의 변화, 교제 섬김, 선교/전도, 교회 등

### 결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신학원 졸업생

## 제자의 마음자세(누가복음 17)

성경말씀: 눅6:17-26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 이 일을 위해 교회 설립, 많은 제자들, 요한복음 6장 많은 제자들의 반응: 말씀이 어렵도다(60),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음

베드로의 대답(68-69): 1.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2.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와 자세이다. 하나님도 일의 양이 아니라 동기, 사람의 마음자세 12사도를 택하신 뒤 그들에게 제자의 마음자세를 가르치시고 참된 복을 말씀하신다. <제자의 마음자세>

### 배경

제자들 중에서 12사도 임명, 평야로 내려오심(17): 많은 무리, 동심원의 형태로, 평야 설교 시작 눅6은 산상수훈(마5-7)과 비슷하지만 청중과 장소 등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마태 3장, 누가 1장, 마태 9복, 누가 4복, 마태에는 긍정적인 복도 있는데(온유한 자들, 땅 상속) 누가는 부정적인 복만 이야기한다(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고 따돌림 받고 등).

마태 ...하는 자들은(3인칭) , 누가 ...하는 너희는(2인칭)

마태 영적인 측면(영이 가난한 자), 누가는 물질적인 측면(그냥 가난한 자),

마태는 무리들과 제자들(마5:1), 누가는 구체적으로 제자들(6:20)

아마도 이 둘은 핵심은 비슷해도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대상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됨 눅6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고 따돌림 받는 너희가 복이 있다”고 하심 이것은 마치 원자폭탄과도 같은 설교, 특히 교회에 물질의 복, 육적인 복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 1.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20, 24), 첫째 폭탄선언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고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야 한다. 꼭 가난해야만 하나?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난은 저주이지 복이 아니었다(잠10:22).

이집트 탈출 시: 이집트 사람들의 보물(출12:35, 36), 젖과 꿀이 흐르는 땅(신8:7-10)

다윗과 솔로몬 당시의 영화: 복의 상징(대상29:13-16), 주님을 잘 섬긴 유대인들은 대개 부유함 실제로 가난을 겪은 사람에게는 가난 자체가 복이 될 수 없다.

균형 있게 주님의 말씀의 바른 의미를 찾아야 함.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함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로는 가난 자체가 영적으로 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일단 포로가 되어 가난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 당시 부자들은 대부분 바빌론 문화와 타협한 자,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귀환자도 대개 가난한 자들, 부자들은 거기 남음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여전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함, 바로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함, 권세를 잡고 잘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 No! 예수님의 복음 선포 선언(눅4:18):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심(실제로 가난한 자)

이들의 특징: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메시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눅1), 요셉과 마리아(눅1:46-48), 시므온(눅2:25)과 안나(눅2:36-38)

목자들, 침례자 요한 등 다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으로 부자는 대개 무언가 잘못된 사람들(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레위 사람 등 무언가 특권을 가진 사람들, 영적 타락의 수혜자)

성경은 결코 부자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아브라함, 요셉, 다윗,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바울). 그러므로 이 말씀의 복을 받기 위해 가난하고 매일 우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부자도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면 된다. 실제로 나도 여러분과 자녀들이 부유하기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이 주님을 찾기는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어렵다(막10:23-24).

예수님 당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대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다: 메시아 외에는 소망이 없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되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일을 하심(고후8:9)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 가난한 목수, 십자가 형), 눅9:58, 여우 굴, 공중의 새 보금자리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신뢰, 베드로의 믿음 고백(영생의 말씀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들 그리 하잖아요”를 외치지 않은 자들, 실로 자기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눅5:11, 28)  
부자의 무제: 1. 돈 때문에 늘 시험을 받는다. 2. 많으면 필요를 못 느낀다. 3. 많으면 자랑한다. 4.

안락 추구, 우리는 어떤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부요하여 부자의 문제에 빠지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20절).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 2.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21, 25), 둘째 폭탄선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 배가 고파서 몸이 다 아프다.

시42:1-3, 63:1-2, 다윗의 영적 굶주림은 그를 몸살 나게 하였다.

예수님은 굶주리는 자들, 목말라 하는 자들의 필요를 영원히 만족시켜 주신다(요4:13-14; 7:37-38).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요6:35). 만나를 먹고 굶주렸으나 나는 완전하다(요6:35; 49-50).  
골3:1-2의 굶주림

### 3.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21, 25), 셋째 폭탄선언

항상 울고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다(잠17:22). 행16의 바울과 실라,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런데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영이 슬피 우는 사람에게만 임한다.

온 세상의 하나님 배격, 진화론, 동성애, 성경 변개, 아랑곳하지 않는 성도들, 애통하는 마음  
자기의 조국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눅19:41-44)

바울(롬9:1-4)

메르스, 동성애의 창궐, 지도자들의 갈팡질팡, 매체들의 선동, 이복의 핵위협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미디어 선교(중국 선교)

근본적인 해결책: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 4. 따돌림을 당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22, 26), 넷째 폭탄선언

사람들이 미워할 짓을 하고는 주님을 위해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 안 된다.

복음 기구 이야기(Joseph Bayly): 조그만 마을, 복음 전하기 위해 기구를 띄움, 성경 구절, 전도지를  
뿌리더니 어느 날 확성기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함, 그러자 지역 주민들이 지역  
신문에 반대 사설을 내고 급기야 기구를 터뜨림

이것이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인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센스를 주셨다.

이런 일은 남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의가 없고 교만하며 판단하기 일쑤고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다.

그리고도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한다.

여기의 박해는 사람의 아들 때문이다(22).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품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일할 때 당하는 핍박이 복이 된다. 무례하게 하는 것 No! 오자마자 구원, 치마 등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그분처럼 일하면서 핍박을 당하는가?

그렇게 일하면 정당한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딤후3:12).

반대로 핍박을 피하기 위해 타협하면 사람에게서는 칭찬을 받으나 하나님께는 저주를 받는다(26).

종교통합, 빌리 그래함, 조엘 오스틴, 삼박자 구원, 프렌차이즈 교회, 신사도, 오순정 은사주의  
현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교황, 사제).

“죽은 개도 파도에 밀려 수영할 수 있다. 산 개의 특징은 파도를 거스르고 수영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조류를 이겨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 침례, 주의 만찬, 교리 등

### 결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인격으로 인해 영이 가난한가? 굶주리는가? 슬피 우는가? 따돌림을 당하는가?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다.

저희 아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동성애자(게이) 입니다.

이곳 캐나다는 사람에겐 6개의 성이 있다고 초등학교부터 가르치기 시작한지가 오래입니다. 지금은 4살부터 다니는 유치원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고 그로인해 정상 부모들이 시청앞에서 모여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여자.두가지만 있던것이 성전환 남자.성전환 여자.정신적 남자.정신적 여자.이렇게 6항중에 선택하게 되어있고 저희 아이친구중에도 엄마만 돌인 가정.아빠만 돌인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상부부로 출발했다가(그 전 이성인 남편과 아내에 불만을 품고) 이혼했을경우 같은 성끼리 다시 재혼해서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는 성소수자라며 차별하지 말라고 외치는 그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다수의 저희들을 차별하고 저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딸아이 선생님께서로부터 아이가 직접적으로 심각한 말을 듣고 왔지요.

딸아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친구에게 복도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며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만 간다. 비행기를 타면 조종사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를 움직여서 우리를 데려다 주는걸 네가 믿고 알듯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만드셨고 움직이고 계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들었나봅니다. 크리스천이 제일 나쁘다며 전도하고 다니지 말라고..그리고 우린 다 일종의 동물이고 진화되었고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강하게 마음을 고쳐먹더군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피부로 느끼며 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외침의 탄식과 소망이 공존하는...

## 급진적으로 사랑하기(누가복음 10)

성경말씀: 눅6:27-36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눅6:20-26), 제자의 인간관계

### 신약과 구약의 인간관계

신약과 구약은 인간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신약은 어느 면에서 불가능한 인간관계를 요구한다. 구약 시대의 규정: 제 정신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마22:34-40).

1. 창조주 하나님 사랑, 2. 옆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 원수가 아닌 이웃

3.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레24:20; 신19:21), 다른 이방인들은 죽임. 큰 향상

4. 이방인들의 인간관계 규정, 인지상정: 27-30절을 거꾸로 하는 것, 자연적인 관계

예수님의 요구: 31절,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 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 “내가 잘못해도 용서” 등 구체적으로 이것은 35절에서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마5:43-44)로 집약됨.

‘급진적’ 사랑, “생각이 너무 급진적이야! 그럴 수가 있어?”, ‘초자연적 사랑’, ‘불가능한 사랑’ 이것은 마5의 산상수훈처럼 어느 면에서 메시아가 다스릴 천년왕국에서의 윤리 규범이라 볼 수 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신약시대에는 35절에 있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지는 않는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이런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해 왔다.

세상 권력이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세상과 대조되는 급진적인 삶을 살.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

엄밀히 말해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개조가 아니다.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과 세상 권력이 탄압해도 가능하면 세상 방법과 역행하는 급진적인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예: 요13:1-17에서 죽기 전에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심, 그리고는 사랑하라고 하심(요 13:34-35). 유다는 마귀임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다(13:1).

눅23:34에서 십자가 처형을 수행하는 죄인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심, 급진적 사랑

스테반(눅7:59-60), “주여, 이 죄들의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소서”, 급진적 사랑

바울 포함 초대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 하에 죽어갔고 중세 성도들이 카톨릭 교회의 탄압 아래 죽어갔다.

그러면서도 35절 말씀대로 급진적 사랑, 초자연적 사랑, 불가능한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 급진적인 사랑의 기준

32절: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33절: 죄인들도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감사한다.

34절: 죄인들도 빌려 줄 때에 다시 받을 것을 예상하고 빌려 준다.

32-34절: 자연적인 사랑에는 칭찬할 것이 없다.

스탈린도, 히틀러도, 김일성도, 김정은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 이상을 해야 한다. 새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오늘은 세대주의적 해석/구원 해석을 제쳐두고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 이대로 해 볼 것을 생각하려 한다. <급진적으로 사랑하기> 혹은 <잘 맞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 기독교의 사랑: 급진적인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처음부터 초자연적인 사랑,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과 원수가 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다(요3:16).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다.

롬5:6-8, 10, 다른 종교 및 철학에서는 상상 불가능, 급진적인 사랑, 초자연적인 실행 성경은 이것을 아가페 사랑, 채리티라고 표현한다.

채리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본성은 원치 않아도 의지적으로 급진적으로 사랑하는 것

본성대로 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신약 성경의 성도: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자 우리는 급진적인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초자연적인 행위(27절): 선을 행함, 초자연적인 말(28절): 축복, 초자연적인 기도(28절)

### 급진적인 사랑의 예(눅6:29-31)

매만 맞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함.

저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을 맞본 사람이라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1, 35절이 핵심: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1989년 베를린 장벽, 호네커 동독 국가 평의회 의장(서기장)과 그의 부인은 갈 곳이 없음  
우에 홀머(Uwe Holmer) 목사는 자기 집으로 이들을 데려옴. 호네커의 부인은 26년 동안 교육 시스템  
관장, 홀머 목사의 10아이 중 8명이 반 크리스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함.  
이런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급진적인 사랑, 초자연적인 사랑  
홀머 부부는 그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였다(27-28).

### 초자연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늘의 보상이 크다(35).

돈을 바라고 결혼하면 탐욕가이다. 결혼은 사랑을 위해 해야 한다. 그러면 결혼 자체가 사랑의 보상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때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 소유, 이것이 큰 보상이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으로 사람을 급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

유대인들의 용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은 성품의 존재가 된다는 것

홀머 목사 부부의 호네커 부부 대접: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본성으로 행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능할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벧후1:4), 구원받으면 이런 가능성이 생겨난다.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갖는다(36). “남이 나보다 나올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마5:47-48,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지난 주 하와이 여행: 아내와 무지 많이 다투었다. 여행 가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같이 안  
다니겠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나는 일 중심, 아내는 사람 중심, “오늘 일끝내고 몇  
시까지 어디 어디 구경 가자”고 하면 나는 그 시간까지 거기 가는 것이 목표,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아내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늦어도 되고 안 늦어도 되고. 사람 중심, “이해가 안 된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은 이런 마찰이 거의 없었는데 거기서 8일을 함께하니 너무 맞지 않음.

아내가 아이들에게 이름(이것도 이해가 안 됨). “결혼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서 배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결혼에 성공한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이 식으로는 결혼 성공 불가능”

2년 전에 결혼 시리즈에서 내가 설교한 내용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급진적 사랑”,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나를 그리 사랑하셨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봄: 이제껏 내 일 하느라 살지 않았는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영원토록 그들의 뇌리에 좋은 인간으로 기억되게 해야겠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본 설계 목적: 큰 업적, 교회 중요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더 중요  
성도들도 조금 더 너그럽게: 지금까지 원리 원칙대로 차갑게 대한 것 반성, 조금 더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져야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기본 인성

### 결론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옆의 성도, 심지어 믿지 않는 이웃을 지독히 미워하고 저주하는가?

주님의 요청: 구원받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였으면 이제는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어라.

급진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급진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부부 간에 이 사랑이 더욱 넘쳐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건설적으로 풀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남편, 아내,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급진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사랑하셨다.

과거부터 우리가 부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형제님이 내게 보내 준 편지:

저도 일찍부터 아내와의 기나긴 투쟁(?)을 거쳤고 이제야 부족함이 조금 채워진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에서 서로의 성장 환경이 너무 달라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은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포용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보게 되고 한 인간으로서 아내의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내가 불쌍하게 여겨졌고 나의 도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태도도 바뀐 것 같습니다.

5월 어느 날 시골에 가 있는 아내에게 “당신은 5월의 여왕입니다”라는 몇 문장의 엽서와 꽃을, 어설피지만 예쁘게 포장해 보낸 게 아내에게 조금 감동을 주었는가 봅니다.

부부 간의 문제는 단칼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며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산은 높아 보입니다.

결국 부부 간의 문제에서 장사는 없고 나도 예외가 아니며 언제든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죽고 싶었을 때에는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전9:4)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살아 있는 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좋은 사람 되기(누가복음 강해 19)

성경말씀: 눅6:37-42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눅6:20-26), 제자의 인간관계: 급진적(파격적)으로 사랑하기(6:27-36), 본성 이상으로 해야 한다(32-34).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35)  
요약: 36절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 좋은 교회

교회: 그리스도의 사람들,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개독교, 먹사, 기독교 혐오증에 시달린다. 우리의 고민: 사도 바울 우리 모두가 몇 십 년 동안 바른 교회를 찾아 헤맸다. “바른 말씀이 있으면 바른 교회?”  
바른 교회라고 왔는데 사람들의 언어, 행실, 교회 운영이 비상식, 비합리적이면 어떻게 할까?  
킹제임스 성경 아니라 그 무엇을 이야기해도 거기서 퍼지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옳고 남은 틀린다. 긍휼 없이 비판, 비판, 비판, 사람(교회)을 망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른 교회보다는 좋은 교회를 해야 한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으로 구성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사람, 특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  
그래야 본인, 가정, 교회, 국가가 좋게 된다. <좋은 사람 되기>

### 좋은 사람의 특징(눅6:37-38)

원수도 사랑,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 뒤 곧바로 급진적 사랑, 좋은 성품의 예가 나온다(37-38).

1. 판단하지 않는다. 2. 용서한다. 3. 주고 베푼다.

1. 수용할 줄 아는 사람(37),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37절 말씀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오용되는 말씀

무언가 비판을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성도들도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권면하면 이 구절 인용, 누구나 판단받는 것 싫어함  
그러면 성도들은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매일 판단하며 산다: 먹고 입고 다니고 일하고, 결혼, 직장, 학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판단해서. 나의 죄, 구원자, 베팅, 성화도 판단(그리스도의 심판석)  
왜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나? (1) 바로 뒤의 43-45를 보면 열매로 판단하라고 하신다.  
(2) 바울의 판단, 고전5장: 음행한 자 판단, 6장: 법정 고소, 판단

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삶이 망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구원 성화, 보상도 없다.

심지어 성경도 판단해야 한다. 바른 성경, 빠진 데가 있는 성경, 동성애, 종교통합 등 판단  
그러므로 항상 주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이 구절은 무엇을 뜻하나?

성경 말씀은 항상 문맥으로 이해해야 한다.

27-36절: 급진적으로, 파격적으로 사랑해라. 결론: 긍휼을 베풀어라(36).

그리고는 “판단하지 말라”가 나옴. 성경 전체와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은 좋은 제자가 되려면 ‘긍휼 없이 판단만하고 정죄하는 기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능하면 용서하라는 말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일들이 있다.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매사를 긍휼없이 비판의 눈으로 보고 정죄하면 그 사람과 교회에 기쁨이 없다.

즉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부모처럼.

비판적 시각은 많은 경우 알지 못하게 그 사람 자체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낸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많은 경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윗과 밧세바, 나단 대언자(삼하12:1-7), 부유한 자(많은 양), 가난한 자(암양 하나, 딸처럼 키움),  
부자에게 손님, 가난한 자의 어린양을 빼앗아 잔치, 5-7

바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에게 무한 관대, 남에게 무한 비판



대개 욕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욕심을 비판한다. 야망, 거짓말쟁이 비판은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쉽게 전염된다.

릭크맨 목사, 훌륭한 분, 그런데 책의 삼분의 일이 남 비판, 그분의 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판주의자가 된다. “나만 옳고 다 틀린다.”, 그분을 사도 바울의 반열에 앉힌다. No!

우리는 어떤가?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정죄하려고 하는가? 공홀을 베푸는가? 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 행하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성품의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살기가 힘들다. 부부, 자식 간은 어떤가?

2. 용서할 줄 아는 사람(37),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역시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들을 용서하는가?(마6:12) 교리적으로 아니다. 그러나 좋은 제자가 되려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용서가 쉬운가? 대단히 어렵다.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의 과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용서하려고 해야 한다. 이것이 좋은 사람의 요건 이것 역시 공홀히 여기는 심정에서 나온다.

3. 베풀 줄 아는 사람(38), 줄 줄 아는 사람

누구나 받는 것은 좋아 한다. 성도라면 무엇이든지 줄려고 노력해야 한다.

1. 하나님께(고후9:6-7)

2.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로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고후8:1-2)

3. 바울의 고백(행20:33-35), 35절, 말씀도 주어야 한다. 미디어 선교, 전도 가능하면 무료로 이리 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주어진다(38).

4.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특징: 이 세상의 가장 큰 심판자, 우리의 죄들을 판단하시지만 공홀을 아끼지 않으신다. 용서하시고 주시되 자기의 몸까지 주신다. 우리도 이런 좋은 품성을 가져야 한다.

5.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찬양한다.

#### 좋은 사람: 눈이 좋은 사람(39-40)

사람의 여러 지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 먼 자가 눈 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너무나 당연한 말 육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바로 보지 않으면 다른 데로 빠지고 다른 데로 데려간다. 성경, 신구약, 율법과 은혜, 구원과 성화 딤후2:15, 바울의 기도(엡1:17-19)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 말씀으로 눈이 열렸다(시119:105; 98-101). 내 발에 등불, 내 길에 빛 성경이 열리면 문맹, 독재, 폭정도 퇴치된다. 교회의 모든 문제 사라진다.

이런 사람이 스승같이 된다(40). 그 당시 모든 지식은 스승에게 있었다.

스승처럼 되면 성공, 우리의 스승은 누구인가? 예수님, 그리스도인

#### 좋은 사람: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41-42)

눈이 열리면 자기를 볼 줄 알게 된다.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남의 티를 빼낼 수 있을까?

티만 보이는 사람이 곧 비판, 정죄, 불용서, 자기에게만 관대함

예수님의 판단: 위선자(가장 나쁜 말), 성도라도 위선자가 되면 모두에게 해롭다.

#### 결론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구원 OK, 그 뒤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 가정, 교회, 국가 가능하면 수용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 눈이 열려서 자의 추한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보여야 이 일 가능, 우리 교회의 성장 원인: 좋은 리더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듣자.

## 나무는 열매로 안다(누가복음 강해 20)

성경말씀: 눅6:43-45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 완성 및 신약 시작, 유대교 폐지 및 기독교 시작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눅6:20-26), 인간관계(27-36), 급진적(파격적)으로  
사랑하기, 공흠을 베풀 줄 아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수용, 용서, 베풀, 열린 눈(6:37-42)

### 좋은 사람의 조건

예수님의 초점: 내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세상사람 이상의 인정과 공흠을 베풀어야 한다.

마9:9-13, 공흠을 원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 파괴적인 비판, 공흠이 없는 비판은 모두에게 무익하다.

긍정적인 비판: 교리, 도적, 마음의 동기, 말, 행동 등을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  
그런데 매사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1. 내가 남보다 낫다: 자기 것을 보지 못한다(들보, 티, 42절).
2. 위선적이다(롬2:1-3; 21-24). 많은 죄
3. 사소한 것도 비판: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의 자유, 법으로 정할 수 없는 것, 롬14: 먹는 것, 날
4. 모든 것 불신(고전13:7)

이 말씀 다음에 곧바로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말씀이 나온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  
이 말은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라는 말이다. 37절과 배치되는 말씀: 그러므로 판단해야 한다.

나무의 열매를 판단해야만 나무의 상태, 질을 알 수 있다.

그 뒤 사귄 사람,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

좋은 나무와 변질된 나무(43), 가시나무 무화과 No, 가시떨기나무 포도 No!(44)

변질된 나무(부패한 나무), 좋지 않은 나무(눅3:9)는 베여 불 속으로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좋은(선한) 사람 좋은 보고에서 좋은 것, 악한(나쁜) 자는 악한 보고에서 나쁜 것

좋은 보물 창고: 주님의 두려움(거룩함),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향한 애착, 재림과 부활 소망  
악한 보고: 탐욕, 완악함,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롬2:7-9

말세에는 동성에 합법화 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개심이 그대로 열매로 표출되어 나온다(45절).

미국 대법원, 여러 선진국,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들은 반대,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 반동성애법  
제정, 반기문, 오바마 4억 달러 원조 끊겠다.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시대를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특히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상태, 질을 보여 준다(전5:2).

그리스도인이 되면 언어 습관에 변화가 생겨야 한다.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가 유심히 보아야 한다.

소금을 치듯(엡4:29; 골3:8; 4:6)

이런 변화가 전혀 없으면 내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고치려는 노력이 나타나야 한다.

특히 SNS 등의 공간에서 내 언어 습관이 어떤가 살펴보아야 한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더라도 변해야 한다(약1:26; 3:1-2; 6-12).

한 사람의 언어가 더러우면 그의 마음도 더럽다.

예의, 상식, 배려 없이 더러운 말, 음담패설, 신성모독이 쏟아져 나오면 그에게서 떠나야 한다. 안하무

인

주님의 경고(마12:33-37)

## 바른 판단의 규칙

1. 겸손하게 판단한다: 나도 죄인이다. 연약하다.
2. 기도하며 판단한다.
3. 말씀에 따라 판단한다(딤후3:16-17): 확실한 것(동성애, 종교통합, 구원 교리 부족, 중상모략 등)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음식 문제, 날 문제 등(롬14:1-4)
4. 가능한 한 사적으로 한다.
5. 긍휼히 여기며 판단한다.

이런 일들이 넘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최종 심판자,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한다.

그분에게서 좋은 판단을 받으려면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

## 결론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구원 OK, 그 뒤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 가정, 교회, 국가

좋은 사람을 열매 알 수 있다: 특히 말이 사람의 내면을 보여 준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듣자.

## 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 되기(누가복음 강해 2)

성경말씀: 눅6:46-49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 완성 및 신약 시작, 유대교 폐지 및 기독교 시작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눅6:20-26), 인간관계(27-36), 급진적(파격적)으로

사랑하기, 궁핍을 베풀 줄 아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수용, 용서, 베풀, 열린 눈(6:37-42)  
마음의 선한 보고: 주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향한 애착, 재림과 부활 소망  
나무는 열매로 안다. 언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갈5:22-23)

### 듣고 행하는 것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 제자, 성도가 되려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매주 서너 번씩 교회에 가고 매일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급진적 사랑’, ‘궁핍 베풀기’, ‘선한 보고 채우기’ 등 듣고는 곧장 잇는다.  
마음의 보고에 제대로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약1:22-25).  
듣고 행하는 사람은 열매를 내며 그 결과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평생 교회에 다녀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다.

오래 다녀도 성도로서 성화된 모습, 섬기는 모습이 없다. <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 되기>

### 주님의 의미(46)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분을 주라고 불렀다.

그런데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46). 돌아가는 제자들(요6:66)

주님(Lord)의 의미: 이스라엘 국가, 주인과 종, 로마 제국: 주인과 종(삼분의 일이 종)

특히 로마 제국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로 100%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존재  
신약성경의 주: 주인, 소유주,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구원은 오직 주님께에서 나온다(눅23:42-4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롬10:13).

“주여, 주여”, “주여 3창”이 아니다. 샤머니즘

주님이라는 전 인격체를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

고전12:3, 말로는 주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주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주인으로 인정하는  
주. 이분을 주라고 하면 그분의 전 인격을 수용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요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주

요일5:1-3, 자기, 가정, 지체들, 불신자들

마7:21-23, 고후11:4, 13-15

롬16:17-18, 빌3:18-19, 교회나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살전2:3-6, 아침, 탐욕, 사람의 영광, 성도들 부담

### 두 종류의 사람(47-49)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지금은 흥하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망하는 사람)

후자가 되면 안 된다.

### 어떻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가?(47)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1. 주님께 온다. 주님의 제자들, 12, 3, 요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주님의 좋은 제자, 성도가 되려면 가까이 와야 한다. 예배에,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나를 개방하고 교제하며 섬겨야 한다.

이왕이면 더 친밀하게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2. 들어야 한다. 나를 비롯해서 현시대 사람들의 특징, 수없이 말을 하지만 듣지는 않는다.  
듣는 기술이 없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마11:15; 13:9; 13:43)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계2-3장 7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롬10:17).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기도로 생기지 않는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행위  
말세의 특징(딤후4:3-4)  
설교를 듣는 것은 노동이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야 한다. 푹 쉬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와야 한다.
3. 행해야 한다.  
사과, 고백, 기도, 용서, 긍휼, 언어 변화, 옷차림, 섬김, 헌금, 예배  
제자로서 급진적인 사랑(눅6:27-28), 긍휼(6:38), 판단
4.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설 수 있다(48).

#### 적용

누가복음 6장 제자 삼기: 예수님처럼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그 뒤에 좋은 열매가 나온다.

7장 이후의 모든 열매는 6장에 달려 있다.

나무는 열매를 위해 심는다. 즉 성도는 섬김을 위해 존재한다.

좋은 섬김의 기초: 좋은 성품

교회가 커진다. 커지는 것 자체를 반대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떻게 신실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가?”

목사, 집사, 인도자, 교사, 전도사만 섬기는 것이 아니다.

1. 새로 온 사람 살펴보고 교제(가정 초대), 문자/전화, 교제 모임, 성경 공부  
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지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그 지체가 다른 데 가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2. 새로 오신 분들 역시 질서 존중, 분란 야기 No! 교회 문화 존중
3. 불신자, 기초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 전도/선교 자료 제작 및 전달: 역할이 다르지만 다 해야 한다.
4. 아이들 바르게 교육하기

#### 결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사람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나?(렘23:29)

1. 27-28절
2. 31
3. 36
4. 37
5. 39
6. 42
7. 45
8. 46

이렇게 기초를 단단히 놓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너진다.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다.

믿음 생활에서 실족하고 본인과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더 좋은 성경을 가졌으면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책임을 소유하였으므로 더 많은 회계 보고

## 믿음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강해 22)

성경말씀: 눅7:1-10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 완성 및 신약 시작,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 인간관계, 급진적(파격적)으로 사랑하기, 공활을 베풀 줄 아는 좋은 사람: 수용, 용서, 베풀, 열린 눈(6:37-42), 마음의 선한 보고: 주님의 두려움, 말씀, 천국 애착, 재림과 부활 소망, 나무는 열매로 안다. 언어, 성령의 열매, 이제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 배경

평야에서(17) 백성이 듣는 데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감, 주님의 갈릴리 사역 본거지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으뜸 도시.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주님은 이곳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마17:24; 막1:21-35; 요6:17, 59). ‘그분의 도시’(마4:12-16; 9:1; 막2:1). 이런 명예에도 불구하고 거기 거주민들의 대부분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불신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마11:20-24).

백부장과 그의 종(2), 지금 군대의 중대장(대위),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됨(마비병 마8:6) 세 부류의 사람들(유대인들의 장로들, 백부장, 예수님), <믿음이란 무엇인가?>

### 유대인들의 장로들: 외적인 모습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병 고침을 부탁함(3),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 장로들이 부탁하러 갈 정도이면 이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

그들이 절박하게 간청함(4).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는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이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다(5).

1. 유대인을 사랑한다: 이교도들은 잡신 우상 숭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한다.

행10:2의 고넬료: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2. 회당 건축: 포로생활 이후 등장, 나이가 들고 경건하며 학식이 있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세울 수 있었고 큰 마을에는 여러 개 회당이 있었다. 회당은 교회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회당을 세우는 일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였고(눅7:5) 천국의 열쇠로 생각되기도 하였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회당이 건립되었다. 그래서 한때 예루살렘에만 460-480개의 회당이 있었다.

유대인 장로들의 문제: 이런 외적 치적, 업적을 거론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줄로 착각함

지금 식으로 말하면 성전 건축 헌금, 사회봉사 헌금, 주차장 봉사, 조찬 기도회, 4대째 기독교 집안, 주중 대사, 교수, 대학원장 등이 예수님의 호의(천국)를 받기 위한 조건

성경은 이런 식의 사람의 외적 치적을 내세우는 것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것은 결만 보는 것이다. 영적인 일에서는 결만 보는 것이 눈 먼 것보다 더 나쁘다(요9:39-40). 하나님께 올 때는 우리의 내부를 하나님께 제시해야 한다.

### 백부장의 자기 인식(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사랑해서 가신다.

어찌 된 일인지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수고하지 말고 자기 집에 오지 말 것을 간청함(6).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이방인과 교제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에 위배됨(행10:28)

그러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됨,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은 아닌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증언을 한다: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자격이 없다. 말씀만 하옵소서”(6-7).

백부장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다(하나님 앞에서 진적으로 무가치).

외적 행위는 멋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신다.

교만, 음행, 탐욕, 천박함(경박함), 게으름 등 겉으로는 안 나타나도 속에 내재된 것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흠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보다는 낫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 나를 모른다. 남의 것들만 크게 보는 위선자(41-42)

과거의 물 판별: 투명하면 좋은 물, 현미경이 나온 뒤 물을 보니 세균 투성이

우리가 그렇다. 겉으로는 그럴 듯한데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으로 보면 죄 투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살인범들, “나도 그 상황에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들도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음행으로 보시는 분: “이런 분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사6:5, 내게 화가 있도다. 망하게 되었고도다.

그래서 과거의 청교도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죽을 때까지 자신의 더러운 모습 때문에 슬퍼하였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기독교에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죄로 보는 극단에 빠져도 안 된다. 인생이 비참해진다.

그리스도인은 극단적인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 여기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탈출구를 허락해 주신다(롬5:8).

세상의 지위로 보면 그는 예수님보다 훨씬 낫다: 로마의 백부장(갈릴리 목수), 식민지 지배자, 종속자  
세상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경의를 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들을 보았다(요3의 니고데모)  
생명과 사망을 손에 쥐고 계신 분,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분(눅  
4:12-32), 무슨 병이든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질병이든 죄병이든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1) 자기를 아는 것, (2)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를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마16:16), 베드로, 그분의 제자들, 에티오피아 내시, 바울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말로 표현하였다(7-8).

“가까이 계시든 멀리 있든 말씀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심지어 질병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였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기 바란다.

“구원, 재정, 결혼, 직장, 질병 등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받자.” 히4:15-16

### 예수님의 판단(7-10)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셨다(9). 기이히 여기셨다. “이런 믿음은 처음이다.”

예수님이 놀랄 정도면 굉장한 것이다. 우리도 해 보면 어떨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분이 놀란 일은 두 번 나옴(막6:6).

고향에서 말씀 선포(막6:1-6),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놀라며 이상히 여기심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해 드릴까? 불신 혹은 믿음

믿지 않음으로 그분을 놀라게 하는 일은 멸망의 길이다.

놀라신 이유

1. 이방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 성령이 없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았다.
2. 직업: 식민지 지배자, 권력자, 예수님께 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인식
3. 재물: 회당을 지어줌, 부자가 구원받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움(눅  
18:24-25). “그들은 재물을 신뢰한다.”
4. 믿음의 강도: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 믿습니다.”(히11:1)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말씀으로 지으시고 유지하시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 결론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였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자: 모세(24-27)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가?(재물, 지위, 명예, 학식, 가정, 직분, 교회 봉사 등)  
다른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것에 취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재림, 휴거, 부활, 심판자)

## 생명의 주 그리스도(누가복음 강해 23)

성경말씀: 눅7:11-16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사역, 6장에서 제자들 선택, 지침, 7장부터 공동 사역 시작  
백부장의 종 고침, 주님의 호의를 얻는 방법: 자신의 철저히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함(6-8).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 모든 창조물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병도, 마귀도, 거리 문제없다.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10절: 종이 온전히 회복됨. 99%가 아니라 온전히 100% 회복됨.

### 배경

민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히2:14-15).

주님이 오신 목적 중 하나: 사람 편에서는 죽음 극복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무의미, 이것 말고는 사실 다 무의미

공생애 사역 시작과 더불어 핵심 목표를 이루심, 나인 도시의 청년을 살림, <생명의 통치자 그리스도>  
11절 백부장 사건 뒤 나인이라는 도시로 들어감,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킬로미터, 나사렛 부근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아마 새벽부터 8시간 정도 걸어서 오후 3-4시경에 도착함

어떤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다.

요4장의 사마리아 방문(요4:4), 유대에서 갈릴리, 사마리아 통과

12절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관에 실려 도시 밖 매장터로 나가고 있음.

도시의 많은 사람들, 돈을 받고 애곡하는 사람들, 피리, 심벌즈 등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기쁨의 무리와 죽음의 사자를 따르는 슬픔의 무리가 도시의 문에서 맞닥쳤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무리 중 하나에 속해 있다(승리, 패배).

주님 안에 있으면 산 자들이 있는 도시로 들어가고, 밖에 있으면 묘지로 들어간다. 당신은 어떤가?  
특히 슬픔에 잠겨 비통한 여인, 아무도 없다. 남편도 다른 자식도 없다. 절망 속에 있다.

이 세상에 슬픔이 많지만 가장 큰 슬픔은 아이를 잃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주변의 한 성도, 아들을 잃고 늘 보고 싶어 하는 모습

더욱이 이 여인은 남편 없는 과부요, 자식이 없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절망의 순간

13절 주님께서 그녀를 붙잡고 여김: 창자가 끊어지는 연민의 정

마9:36, 목자 없이 흩어진 무리를 보시고

마14:14, 오병이어 기적, 병을 고쳐 주심, 오병 이어

마20:34: 예리고에서 눈 먼 두 사람, 눈을 열어 줌

눅15:20, 탕자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심정이 있는가? 주님의 섬김의 대상, 우리도 마찬가지

14절 “울지 말라”하시고 관에 손을 댄, 이것 자체가 울법을 범하는 것임. 사람들이 멈추어 섬  
주님은 울법 너머의 사랑을 베푸신다.

세리 마태, 죄인들과 함께 거한다. “나는 희생물이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마9:13).

14절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곧바로 앉아서 말하기 시작함.

어머니에게 넘겨줌.

주님의 사역에서 부활의 큰 기적은 말씀만으로 이루신다. 실로암 소경 사건 등

막5:41, 야이로의 딸, 12살, 방금 죽음, 그녀의 집에서, 달리다굼(소녀야, 일어나라)

눅7장의 나인 성 청년, 무덤으로 실려 가는 중에

요11:43의 나사로, 나이가 든 어른, 죽은 지 나흘, 냄새가 남,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창조함.

온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

아무리 죽은 지 오래 되었어도 문제가 없다.

심지어 죽은 자도 그분의 말을 듣는다.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다(눅



20:38).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두 명의 독생자가 나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통치자(하나님). 과부의 독생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을 고쳐 주심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한다. 그것도 그분의 독생자를(요3:16).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심지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 있다(엡2:1). 다시 태어나야 한다.

15절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 일어나 앉더니 말을 하기 시작함.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배가 고파요. 어머니 피곤해 보이네요. 이들은 다 누구예요?”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일어난다.

살전4:16-18, “일어나라. 올라오라” 이로써 성도들의 모든 슬픔이 끝나고 만다.

산에 묻힌 자들, 바다에 빠져 익사한 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은 성도들의 모든 원자들이 움직여  
부활한 몸을 이룬다. 몸의 부활, 영화로운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질병, 고통 No!)

고전15:51-54, 57-58

구약의 대표 인물: 모세와 엘리야, 특히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함

900년 전에 엘리야는 사렙다라는 조그만 마을에 감(왕상17:19-24). 과부 여인과 그의 아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음, 과부 여인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기를 그를 살림.

21절: 몸을 세 번 펴서 아이 위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함: 예수님처럼 명령하지 못함

아이가 살아남: 24절 여인의 말

나인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다. 너무나 무서웠다. 처음 보는 일,

그리고는 영광을 돌렸다.

그들의 말: “큰 대언자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16).

신18:18-19,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그런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마1:23). 눅1:68

### 결론

우리는 지금도 말 못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심정이 있는가?

육적, 재정적, 영적 신음 소리, 교제와 섬김

찬송가 256장, 석진영 여사, 6.25동란 중 피난지 부산에서 절망과 혼돈에 빠져 있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할 용기와 사명감을 일깨운 애절한 호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와 각성을 촉구하는 외침

1.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 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2.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3.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4.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어 인애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 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는 오직 말씀만으로 사망도 제압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가?

우리의 죽을 몸을 일으키시는 권능을 믿는가? “일어나라. 올라오라” 하시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날  
것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가져가면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선하게 이루어주실 것이다.

## 성도의 의심과 예수님의 위로

성경말씀: 눅7:19-35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 완성 및 신약 시작,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 인간관계, 급진적(파격적)으로 사랑하기, 공흠을 베풀 줄 아는 좋은 사람

나무는 열매로 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그렇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음

7장부터는 공흠의 사역을 시작함: 백부장의 종을 고침, 나인 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림

<성도의 의심과 예수님의 위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의심 속에 잠긴 하나님의 사람 위로

### 침례자 요한

그는 누가복음 시작부터 나옴, 사가랴와 엘리사벳(1:6), 이스라엘의 기쁨(1:14-16)

구약시대 엘리야의 영과 권능(17), 백성을 돌이키는 사역

광야에서 지내다가(1:80)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회개의 침례(마3:1-2)

메시아의 하늘의 왕국 메시지, 성령 침례와 불 침례(3:16-17), 알곡과 겹질, 특히 겹질 심판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난 시점

헤롯 안디바, 헤로디아의 일로 감옥에 갇힘(마14:1-12)

정보를 듣는데 의심이 생김, 광야 생활에서 감옥으로 적응이 되지 않음(정신적, 육체적 갈등)

눅4:18,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준다면 바로 침례자 요한이 첫째 후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의심과 낙담에 빠지곤 하였다.

모세(민11:10-15): “이집트가 그림자. 죽여 주세요.” 엘리야(왕상19), 바울(고후1:8-9)

의심과 불신의 차이

a. 의심은 생각 속의 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b. 불신: 의지의 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겠다.”

c. 의심은 OK, 불신은 No! d. 침례자 요한은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 생겼다. “왜 이럴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두 측면을 보고 있다: 초림과 재림

침례자 요한은 초림(하나님의 어린양)보다는 심판을 가져오는 재림의 그리스도(메시아)

심판과 구출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공흠을 베풀고 구출해 주지 않는다.

초림의 어린양과 재림의 왕, 어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빠르게 살려고 하는데 일이 꼬여요. 아이들이, 남편이 속을 썩여요.

힘들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 힘들어요. 목사가 너무 힘들게 해요. 신약 교회 힘들어요”

결국 침례자 요한은 의심을 풀기 위해 자기의 두 제자를 보내 물어보았다(19-20).

우리도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져가자.

### 예수님의 대답(21-23)

1. 바로 그 시각에 친히 놀라운 기적들을 행함(21): 경험

2. 내가 메시아의 기적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라(22). 사26:19; 29:18; 35:5; 61:1

예수님의 기적들은 1차로 메시아 기적, 그것들을 복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3. 그런데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 요한을 구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음

4.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23).

요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을 믿고 순종하며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5. 구원 받았는데: 병, 재정, 배우자, 자식, 부모,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이들

목사도 도와주고 싶는데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의롭게 처리해 주신다. 믿어라.

### 예수님의 획증(24-29)

요한의 제자들이 없을 때에 요한에 대해 칭찬함. 대개는 칭찬이 사람을 병들게 함

1. 확신의 사람: 갈대가 아니다(24), 바위 같은 사람, 헤롯과 헤로디아의 일

2.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화려한 옷 거부(25), 광야의 사람, 주님을 위해 자기 부인

3. 대언자(26):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특권, 제사장 출생이지만 대언자, 구약은 대언자 시대
4. 대언자 이상 가는 자(27), 말3:1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대언자가 없던 시대에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분을 선포하는 대언자.
5. 구약시대에 그보다 더 큰 대언자는 없었다(28):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해서
6. 그럼에도 그는 왕국의 선포자, 왕국의 시민은 아니다. 그는 구약성도, 이 차원에서 신약성도가 낫다. 신랑의 신부가 아니라 친구(요3:29-30)

#### 백성의 확증과 거부(29-30)

1.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29):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일은 다 옳다.
2. 지도자들(30):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함, 메시아, 왕국 등 다 거절
3. 둘의 차이: 요한의 침례 인정 여부, 그것은 회개의 침례(눅3:3), 회개에 합당한 열매(3:8)  
말씀으로 삶이 변한 자들: 어떤 말씀? “독사의 자식들이 회개하라!” 죄 선포 공감, 회개, 변화  
그렇지 않은 자들(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전통, 명예, 기득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의 요구는 완전함, 그래서 그들은 실패함
  - a. 교회 예식, 전통 등에 익숙함: 특히 목사, 지도자, 오래된 성도
  - b. 죄에 대한 인식이 낮음: “이 정도는 OK”, 하나님은 죄를 차마 보지 못한다.
  - c. 자기 의: “저들보다는 내가 낫지”, d. 죄의 속박(롬3:10-18)

####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31-34)

1. 주님을 거부하는 세대들은 누구와 같은가?(31-32) 장터에 앉은 아이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음, 애곡해도 울지 않음, 무슨 일을 해도 같이 게임을 하려 하지 않는 아이들,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피리를 불고 애곡하며 거기에 따른 일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편 아이들은 전혀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 무슨 일이 생겨도 하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굳힘
2. 침례자 요한: 나사르 사람, 빵과 포도즙 먹지 않음(1:15),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헌신 및 회개 강조 거부자들의 말(33): 정신이 나갔다. 마귀 들렸다.
3. 예수님: 먹고 마시고 보통 사람들의 친구(34), 음식을 탐하는 자, 술주정뱅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
4. 누가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너무 단순해. 심오한 철학이 없어”, 바울의 심오한 설명을 듣고는 “뭐 이리 복잡해. 복음이 쉽지 않네.”, “목사가 회개를 너무 강조하네, 거룩함만 강조해, 너무 교리적이야. 알아야 한다고만 해.” “교회가 사랑이 없어. 냉랭해.”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선자야”, “조선 시대 사람들, 아마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진화론은 틀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킹제임스 성경이 옳아도 나는 믿지 않기로 했어”
5.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죄를 두고 애곡할 때 울어야 한다. 구원의 피리 소리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기뻐 춤추어야 한다. 동기가 주어질 때 바르게 수용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

####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에 의해 인정받는다(35)

1. “그러나”,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일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는다.
2. 지혜는 자식들이 있다. 즉 지혜에 의한 결과들이 있다.
3. 여기의 지혜는 주님 자신(잠8:1, 12-13, 17, 22-23, 30, 32-33, 35)  
지혜의 자녀들은 그분의 말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 이들의 말과 삶을 보면 그분이 다 옳으심을 알 수 있다.
4. 지혜는 그 자녀들 속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 자녀들은 다 동일하게 외친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롬3:4)
5.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가? 주님 때문에 바뀐 것이 드러나는가? 그분의 영광이 되는가?

#### 결론

1. 의심 OK, 불신 No!, 2. 내 뜻대로 안 돼도 침례자 요한은 순종하고 죽으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다.

## 받은 은혜와 주님 사랑의 상관관계

성경말씀: 눅7:36-50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사역, 복음 사역, 인격, 7장부터는 공활을 베푸는 사역  
백부장의 종, 나인 성 과부의 죽은 아들, 의심에 찬 침례자 요한 위로: 메시아 기적, 칭찬, 회개의 침례를  
두고 두 부류로 나뉘, 지혜는 자기 자녀들에 의해 옳다고 인정받는다(35):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 바리새인의 등장

예수님의 바리새인 평가(30), 바리새인: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분리하는 사람들', 좋게 시작되었으나  
후에 위선자 그룹으로 전락함. 그러나 니고데모나 바울 같이 귀한 바리새인도 있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등장(36), 그의 이름은 시몬(40),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심(34)  
무슨 이유에선지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함: 그 당시 순회 랍비 초청 유행, 자기 과시, 예수님 시험  
전체 문맥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초청

유대에서는 귀한 손님을 초청하면 집 주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44-46)

1. 발 씻을 물, 2. 입 맞추며 환대, 3. 머리에 기름을 부어 냄새 제거, 초대인 주인이 되게 함  
시몬은 기본 예의를 하나도 갖추지 않음, 골탕 먹이려고 했음 이 명백함 <받은 은혜와 주님 사랑의 상관관계>

### 여인의 등장

귀한 사람을 초대하면 집 문을 열어놓고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

바로 이때에 옥합을 가진 한 여인이 들어와 시몬의 눈에 가증한 일을 행함

옥합(37): 옥합은 복음서에 두 번 나옴, 초반과 후반, 막14:5를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 10달 봉급

1.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함(38): 이 여인도 초대받지 않음. 물이 없음.  
“주님께 대한 대접이 말이 아님을 보고 자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음”

2. 발을 말리기 위해 수건 대신 머리털로 발을 닦음: 먼지와 머리털이 뒤범벅이 됨

3.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 보통은 볼에 입을 맞추. “자격이 없습니다.”

4. 향유를 발에 부음: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음. 예수님은 10달치 봉급 이상의 대접을 받을 분”

시몬의 반응(39):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여인과 예수님을 정죄함

이 여인은 말 그대로 몸을 파는 거리의 여자(39),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대상, 심지어 예수님도 멸시  
주님이 언급한 두 부류가 나옴(29-30):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와 그렇지 않은 자

### 예수님의 비유(40-42)

주님의 반응: 모든 것을 꿰뚫어보시며, “할 말이 있다”, “말씀하소서”

빛을 준 어떤 사람: 빛을 진 두 사람,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50만원, 500만원)

이들의 문제: 전혀 값을 것이 없다(42).

그래서 빛을 준 사람이 둘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다(42).

누가 그를 더 사랑할까?(42) 시몬의 대답(43): “많이 탕감받은 자, 용서받은 자”

“네 말이 맞다”(43)

자 이제 너와 이 여인을 비교하겠다(44-46): 발 씻을 물, 발, 머리털, 입 맞추기, 기름 바르기

주님의 선언: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47). 그 이유: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다.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 비유의 설명

빛을 주고 용서하는 자: 예수님,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죄인

주님의 선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빛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큰 죄인, 작은 죄인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냥 다 ‘빛진 자’이다(41). 롬3:10-12, 23

이들의 문제: 값을 것이 전혀 없다. 이들의 노력, 선행 등 사람의 것으로는 빛을 값을 수가 없다.

빛 준 사람의 용서: 그래서 너그러이 둘 다 용서해 주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은혜는 창6:8,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120년 동안 복음 선포, 8명만 구원받았다.

얼마나 너그러운가? 요1:29; 3:16, 롬10:13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뒤에 여전히 두 행태가 나타난다.

많이 용서 받는 자: 많이 사랑한다. 적게 용서 받는 자: 적게 용서한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은혜의 가치를 느끼면 10달치 봉급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바리새인이던 바울은 구원받고 얼마나 좋은지 과거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뚱으로 여겼다(빌3:5-9).

고후11:23-27,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도 감사(고후12:9)

결국 그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좋았다(딤후4:6-8).

###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안 사람들: 다른 성도들이 모르는 진리, 영혼의 자유, 신약 교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리를 알고 나면 주님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현상 즉 방종이 나타난다.

1. 말씀 상고 게으름 혹은 지식의 축적
2. 상고한 뒤 적용 부재,
3. 재림을 사모하며 세상과 분리 부재(언행과 사고),
4. 공 예배 출석 게으름,
5. 현금 생활 게으름,
6. 섬김의 부족,
7. 전도의 열정 식음,
8. 지역 교회에 대한 갈증

“왜 이럴까?” 이것이 목사의 마음속 갈등: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지만 답답하다.

왜 그런가? 지식과 자유를 사랑하지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사랑, 덜 사랑, 즉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리되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기 쉽다.

주님의 답변: 많이 용서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사람인 목사의 눈에도 보인다.

그러면 많이 용서받으려고 많이 죄를 저야 하는가?(롬6:1-2)

대부분의 간증자: 엄청난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 받음, 녹15의 탕자, 둘째 아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며 성경으로 구원받은 자: 간증이 밋밋하다. 받아들

그러면 전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며 성경 읽고 구원받아 죄에 덜 물드는 것

그러면 죄에 덜 물든 사람도 크게 사랑할 수 있는가?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

나의 예: 어려서부터 믿음, 소위 ‘악한 죄’라 불리는 죄를 상대적으로 덜 지었다.

그러나 아주 큰 빛을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전 삶을 주님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고 매일 매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한다. 부족하지만 그러려고 애를 쓴다.

그 이유: 무한대의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죄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고 이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다. 어디서 오는가?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온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에 들어온 사람은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자”, “두렵지 않은가?” 1/∞

목사는 이것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본인이 깨달아야 한다.

시몬처럼 주님이 “너는 적게 사랑하는구나” 책망하시면 큰 일, 지시막 혹은 자유만 사랑하면 문제 특히 휴거 받은 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일이 부끄러우면 어떻게 될까?(요일2:28)

### 주님의 판결

“네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48)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올 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 죄가 아니라 죄들 즉 모든 죄가 이미 다 영원히 제거되었다.

사람들의 판단(49); 어찌 사람이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는가?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시몬의 마음속 생각을 꿰뚫어보시는 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도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보라 죄들의 용서는 믿음에서 온다(50): 말씀이 선포되며 죄들을 용서하시는 분이 제시될 때 나의 불신을 버리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원하신다. 믿음에서 믿음까지(롬1:16-17)

평안히 가라: 구원받고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참 평안이 온다.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에 내 자리가 하나 있음을 알면 평안이 온다.” 청년들, 30대, 참 평안은 주님께에서 온다.

## 재물로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

성경말씀: 눅8:1-3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공홀의 사역, 백부장의 종, 나인 성 과부의 죽은 아들, 의심에 찬 침례자 요한 위로, 죄인인 한 여자의 예수님 사랑, 300데나리온 옥합, 많이 사랑하기에 많이 희생하고 섬긴다. 믿음에서 나온다. 전적으로 은혜로 된다. 그 결과 평안을 얻는다.

### 예수님이 하신 일 요약

1. 모든 도시(큰 동네)와 마을(작은 동네)을 다 다니심, 꾸준히 매일 하심, 지치지 않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한국의 모든 도시에 신약의 복음이 전달되어 지역 교들이 서기를 간절히 원한다.
2.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 죄, 사망, 염려, 병, 불안으로 물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눅4:18), 하나님이 형상이 복원되어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자들
3. 12제자가 함께함: 그분의 사역에 필수적인 존재들, 이들에게 복음 사역이 무엇인가 몸소 보여 주심

### 재물로 돕는 여인들

1. 12제자만으로는 사역 불가능, 예수님 포함 12제자는 전임 사역자  
누군가가 물질을 제공해야 함, 아주 실제적인 문제, 정교한 역사가 누가(눅1:2-3)는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기록함, <재물로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
2.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 다른 많은 사람들(many others, 그리스어로 보면 여자): 자고로 여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음, 누가는 이것을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3. 이들의 특징: a. 눅7장의 죄인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음, b. 주님과 그분의 일을 도와야겠다는 생각, c. 다른 이들도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d. 결국 자기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김
4. 이들은 예수님의 환자들(2): 정신적, 육체적, 영적 환자  
a. 주님께 나오면서 치유를 받아 주님의 공홀과 권능의 기념비가 됨  
b. 영과 혼과 영의 의사에게 치유를 받고는 그분을 섬겨야겠다고 작정함  
c. 눅7장의 옥합을 깬 여인처럼 매우 정상적인 반응
5.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미리암의 그리스 이름, a.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b.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c.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d.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던 막달라 마리아.  
e. 이 여인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섬긴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명예를 차지한 인물이었다(마 28:1-10; 막15:47; 16:1-10; 눅24:1-12). 예수님께서 그녀의 속에 들어 있는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셨으므로 그녀는 특별히 예수님에게 헌신하였다(눅8:2-3). 그녀는 부활의 날 아침 일찍 그분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첫째 사람이 되었다(요20:1-2, 11-18). 이 여인이 눅7장의 방탕한 여인이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는 없다.
6. 요안나: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녀는 그분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감(눅24:1-10).
7.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 자기들의 재물로 예수님을 섬김
8. 예수님은 가장 부요한 분이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고후8:9) 사람들의 구제물로 사심 그들이 옥합을, 재물을 가져올 때에 수용하심
9.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갈6:6).

### 하나님의 일과 재물의 필요

BC 1495년경, 이집트 탈출 이후에 엄밀한 의미의 구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났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예배를 위해서는 성막과 제사장이 필요하였다.

출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야기: 이것은 다 물질로 이루어진다.

1. 성막 재료: 총 14종류(보석, 실 등), 금 3톤, 은 4-5톤, 동 4톤, 기타 보석, 재목 등을 합하여 엄청난 액수이다(약7조원).
2.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선정: 죽지 않은 장자들을 대신해서 주님만 섬기게 함  
그 결과 나머지 11지파가 이들을 먹여 살림, 특히 제사장의 의복, 관 등 귀한 것들 예비해야 함  
여기서 십일조가 생김, 백성이 약 10분의 일을 바쳐야만 신정 국가 유지 가능

3. 하나님의 말씀(출25:2): 마음에서 즐거이 내는 모든 자들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 a. 모세의 전달(출35:5)
  - b. 백성의 헌물(출35:21-22, 29)
  - c. 회중의 문제(출36:3-4, 6)
  - d. 이때에도 특별한 여인들이 있었다(출38:8)
4. 구약: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과 헌물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여인들
5.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과 헌물이 있어야 한다. 여인들
6. 신약시대: 초창기 10년은 교회가 유대인들로 구성됨, 이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김, 그래서 행2:44-46, 공동 소유, 나누어 줌, 매일 애찬,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다.
7. 그 이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이방인 중심의 교회 시대
  - a. 교회 역시 말씀 사역자가 필요하다.
8. 고전9장: 자비량 바울, 11-14, 다만 자기는 복음을 가로막을까봐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15)
  - a. 처음에는 집 교회, 건물 불필요, 그러나 후에 자유롭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 건물 필요
  - b.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 c. 우리 교회: 건물, 식사 교제, 아이들 교육, 사무원, 차량
  - d.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 영혼 구령, 선교 헌금(1억 원), 특히 중국 선교
  - e. 누군가가 해야 한다.

#### 누가 하는가?

구약시대: 이집트 탈출의 은혜,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회심한 사람

- a.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느끼는 사람, b. 이런 교회를 유지해야겠다고 느끼는 사람, c. 이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d. 아이들 교육 원하는 사람
- 한 마디로 지금 교회의 헌금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 꿈, 내 철학,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 쓰지 않는다.

#### 어떻게 하는가?

헌금의 원리: 고후8:1-3

방법: 고후9:6-7

약속: 고후9:8-11

헌금은 직무이다(12). 적어도 10분의 1, 이것의 실행이 믿음의 척도이다(13).

복음 사역자 바울의 평가(빌4:15-19)

#### 남자와 여자

이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교회의 일은 여인들이 더 많이 한다.

초대 교회(행1:13-14): 여인들이 다수

사도 바울의 유럽 사역: 자주장사 루디아, 브리스길라,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게

일반 교회: 여인들이 70-80%, 우리 교회: 50%

그 이유: 남자들은 직장, 사회생활, 여인들의 일편단심, 성품 면에서 더 뜨겁다.

우리 교회도 처리하는 일, 주차 봉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은 자매님들이 한다.

더 많이 하기 원한다.

자매님들이 마음껏 주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형제들은 원한다.

12명의 남자 제자들과 재물로 섬긴 여인들을 통해 주님의 일이 진척되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 결론

눅7장의 여인, 8장의 여러 여인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서 섬기게 된다.

이런 자발적인 섬김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 말씀과 마음의 상관관계

성경말씀: 눅8:4-18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공훈의 사역, 1. 모든 도시(큰 동네)와 마을(작은 동네)을 다 다니심, 2.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 3. 12제자, 4. 재물로 사역을 도운 여러 여인들(빌4:2-3)

### 씨 뿌리는 자의 비유(4-15)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 막, 눅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됨. 중요함.

마13의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이고(13:19 왕국의 말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 즉 새로운 출생에 대한 것이다(8:11, 하나님의 말씀). 12 구원

여기서 주님은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화론도 믿음, 다만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 믿음(롬10:17), 4-21절에는 '듣다'(hear)가 12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용하는 자세로 음미하며 듣는 것,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8).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18)

### 씨와 밭의 관계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또 복음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

씨는 하나님의 말씀(11): 씨처럼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런데 심겨야만 열매를 낼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씨가 마음에 심긴다. 열매는 밭에 따라 달리 난다.

원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13:18), '밭의 비유' 혹은 '마음 밭의 비유'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다. 씨는 문제가 없으므로 밭만 잘 준비되면 많은 열매를 낸다.

1. 길가, 새들이 먹음, 2. 바위, 곧 시들, 3. 가시나무들, 숨 막혀 죽음, 4. 좋은 땅, 100배 결실  
사람의 마음은 4종류, 1-2는 열매를 내고 2-3은 내지 못함, 구원으로 보자면 2은 구원, 2은 멸망  
핵심은 말씀과 밭의 관계, 먼저 마음 밭이 좋아야 열매를 낸다. 그 뒤에 그 씨를 다른 데 뿌려야 한다.  
신약 교회를 하는 우리는 씨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 중국, 미국, 이북

### 0. 제자들의 의문(9-10)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들을 이용해서 진리를 그림으로 만들어 알려주는 것: 씨, 흙, 열매  
비유의 그림을 잘 보면 그것이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

종교인들은 그런 거울로 자기를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

그 거울로 자기를 잘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보며 회개하고 믿음  
그래서 비유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해야 한다.

10절은 사6:9에서 가져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1-3), 본인의 죄성(5), 하나님의 용서(6-7), 하나님의 사명 부여(8), 이상한 책무(10), 그 결과(11-12)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 주님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혹독한 심판, 7년 환난기의 큰 환난을 견디고 결국 메시아를 받아들임

예수님의 결론(10): 구원받는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제자들에게는 열려 있다.

<말씀과 마음의 상관관계> 구원, 성장, 성화, 보상

### 1. 길가(5)

씨가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림. 씨가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함(12). 마귀의 주요 관심사는 말씀 제거

음란 동영상, 영화, 낙태, 동성애, 연쇄살인 등은 다 육체의 일(물론 뒤에 마귀가 있지만)

마귀의 일 요약: 1. 일단 듣지 못하게 막는다. 2.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다(즉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3. 의심하게 만든다. 4. 결국 믿으면, 잊어버리게 만든다. 5. 불순종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일: 성경 보존, 한 성경, 마귀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일: 성경 변개, 수많은 성경들

변개 내용의 핵심: 구원(행위, 뎀전2:2; 빌2:12), 주 예수 그리스도 신성 약화, 지옥 제거 등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 2. 바위(6)

팔레스타인의 밭, 바로 밑에 바위가 많다.

얇은 흙, 기빠하는데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간다(13).

싹을 내는데 뿌리가 없다: 뿌리는 예수님, 겉으로 믿음 고백을 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로 인한 죄들의 사면이 없다(히9:22).

감정적인 사람, 해가 쨍쨍 내리되면 시들어 버림.

말씀으로 인해 시험(누가)이나 환난이나 핍박(마태)이 일어나면 실족한다. 구원 No!

## 3. 가시덤불(7)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음. 그런데 나무가 자랄 공간이 없음. 복잡한 흙

구원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음(뿌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14).

그런데 끝에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다. 두 종류 해석 가능, 오늘은 구원 받은 것으로 해석함 성경의 완전함은 죄가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마땅히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딤후3:16-17),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지 못한다.

수확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못한 자들: 어린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파당, 간음, 법정 고소, 음식 문제, 우상 숭배, 방언, 부활 의심 등)

이리저리 교리의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자들,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힘(14)

1. 삶의 염려: 아이들이 아프다, 부부 싸움, 직장 해고, 세탁기 고장 등, 잘 살수록 더 많다.

바울의 권고(빌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

2. 재물의 속임수: 하나님보다 돈을 신뢰하게 만들

많은 목사와 교회의 실수(딤후6:9-10), 오순절 은사주의의 변영 신학

3. 쾌락(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딤후3:1-4

## 4. 좋은 땅(8)

이 땅만 열매를 풍성히 낸다.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낸다(15).

양은 다르지만 30, 60, 100배(마13:8), 반드시 열매를 풍성히 낸다.

마음이 가장 큰 문제(렘17:9),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

요?” 사람에게 원래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 없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예비해 주신다.

아무리 심성이 고와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씨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 의,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요16:8-11).

죄: 불신, 의: 승천 후 재림, 심판: 마귀 심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살전2:13).

그 결과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살전1:3)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킨다: 변개, 식제, 첨가, 영해 No!

이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찬송가 작업 2년, 반복, 누군가가 인내하며 반복해서 작업해야 열매

성경 작업 20년 이상, 바르게 전해 주려고 6판 교정 작업

## 결론(16-18)

등잔불을 켜면 등잔대 위에 둔다. 사람들이 보라고. 그 빛은 누구인가? 예수님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드러난다(17).

이 일을 위해 가장 주요한 것: 말씀을 듣는 것(18),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8)

씨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사명: 씨를 뿌려야 한다.

1. 씨는 많이 뿌려야 한다. 2. 환경에 상관없이 뿌려야 한다. 3. 나이에 상관없이 뿌려야 한다.

4. 그냥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사55:11).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5.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좋은 땅에서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벧전1:23-25).

우리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겸손한가? 열매를 맺는가?

##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성경말씀: 눅8:22-25

두 주 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의 씨, 사람의 마음은 씨를 받는 밭과 같다.

씨는 문제가 없으므로 밭만 잘 준비되면 많은 열매를 낸다.

1. 길가, 새들이 먹음(마귀의 말씀 제거), 열매 No! 2. 바위, 즉시 기뻐하는데 뿌리가 없어 잠시 민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간다. 열매 No! 3. 가시나무들,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음. 그런데 나무가 자랄 공간이 없음. 복잡한 흙, 숨 막혀 죽음, 열매 적거나 나쁨! 4. 좋은 땅, 100배 결실

1-2는 열매를 내고 2-3은 내지 못함, 핵심은 말씀과 밭의 관계, 마음 밭이 좋아야 열매를 낸다.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잠4:23), 딱딱한 마음을 깨야 한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한다(8, 18). 롬10:17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옴(19-21)

어머니와 형제들의 정의: 21절, 듣고 행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이 진정한 어머니요 형제 배경(22)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세 복음서, 중요한 사건

22절: 사역을 하는 어느 날 북서쪽의 가버나움을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갈 일이 생김(마8장 참조).

갈릴리: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잇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의 땅),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이방인들의 갈릴리', 경계가 두로와 시돈이었고 또 거기에 페니키아, 시리아, 아랍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용감하고 근면했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그들이 우둔하고 예의가 없고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사투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었고(행1:11; 2:7) 물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을 모욕하는 이름이 되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어려서부터 서른 살이 되기까지 여기서 살았고 공생애 중에도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갈릴리 호수: 요르단 강이 북쪽에서 나와 이것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흘러가며 이 호수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1킬로미터와 10킬로미터이고 깊이는 50미터이다. 바다라고 불림. 이 호수에는 가끔씩 폭풍이나 회오리바람이 불며 이것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 주님은 종종 이 바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안식하셨고 여기를 건너 이동하곤 하셨다. 또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이곳을 잔잔하게 하시고 기적과 가르침으로 이 바다가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다. 물론 여기에서 그분의 제자들 중의 몇 사람이 부름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마4:18; 14:22; 눅8:22; 요21:1).

23절: 주님은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폭풍이 내리침, 호수는 해발 -150~209미터, 레바논 산에서 찬 공기가 깔때기 같은 계곡을 따라 내려와 더운 공기를 만나면 큰 폭풍이 일어남. 그들이 위험에 빠짐,

24절: 주님을 깨우니 주님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고요하게 됨

25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4-21절의 듣는 것과 마음, 그 결과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부족한 믿음의 부족: 공생애 시작, 눅4장: 부정함 마귀의 영 내쫓음(36),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꾸짖음(39), 병자들을 고치심(40), 마귀들을 꾸짖으사 내쫓으심(41), 눅5장: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 주심(1-11),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심(12-15), 마비병 환자를 고치고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심(17-26), 눅6장: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침(6-12), 눅7장: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침(1-10),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림(11-16)

구원받고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아직도 제자들 자신이 체험한 것은 없었다.

폭풍우 사건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직접 일어난 사건, 이때에 성도의 믿음이 드러난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어려움이 생겨야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이 드러난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단숨에 그분께 순종함

제자들이 의아히 여긴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의 목수, 십자가에 죽은 우리의 구원자로, 희생양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서로 다른 인격체(지정의) 권능과 영광 등 본질에서 동등함  
 인류의 구속을 위해 초림 시 사람을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셨다가 재림 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동안에만 직무 면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름  
 그러나 1000년 왕국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직무상의 이런 우열 관계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 세상의 창조자시요, 주인이시므로 종은 주인의 말에 따른다.  
 시148편: 예수님은 천사들을 포함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다(요1:1-3).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몸의 부활을 이루실 수 있다.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수 있다(휴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폭풍이 와도 이길 수 있다.

롬5:1-6

### 인생의 폭풍

불신자의 경우도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들 모두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시련을 겪었다: 여름에 '이병철 자서전'  
 가난, 슬픔, 비통함, 배신, 노력해도 안 돼서 죽고 싶은 마음, 부부 갈등, 부모자식 갈등, 교회 갈등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변영 신학, 만사형통 신학과 정면충돌

바울의 경험(고후1:8-10)

제자들의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신다: '우리의 본보기'

그 이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평안하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느냐?

구약 시대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 하나를 제어하지 못한단 말인가?

### 내 인생의 폭풍

반공 포로로 풀려난 무일푼의 아버지, 조실부모하여 역시 무일푼의 어머니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폭풍: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가난과 싸우며 살았다.

1976년 고2 봄에는 어머니가 화상을 당해 거의 돌아가실 뻔함

1982년 유학 갈 무렵에는 아버지가 만성 신부전으로 거의 돌아가실 뻔함

석사 과정 중에 실험이 되지 않아 고민함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 비자가 필요한데 받을 수 없어서 캘거리로 이주, 영하 30-40도

차도 없이 사는데 첫 아이 1달 조산함, 아내가 그 추운 거리를 걸어서 병원에 다님

돈이 없어서 생후 3주된 아이를 데리고 야반도주, 미국행 비행기

1988년 박사를 마치고 수백 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취직이 안 됨

한국에 들어와서 다닐 교회가 없어서 10여 년을 고생함

2001년 9월부터 목사가 되어 교회를 시작했다가 1년 반 이후 망함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아내와의 갈등이 최고조, 화병이 생겨 죽을 지경

몇 년간 수고하여 2000년 8월 흥정역 성경 초판을 출간하였으나 판매 부진

그 이후로 지금까지 4번 더 교정하여 2011년 400주년 판까지 냄, 목사들/선교사들의 반란

새롭게 사랑침례교회를 하는 동안 400주년 성경을 내 이후 불면증의 엄습(6개월 동안 치료)

2년 전에는 에스더 차가 눈길에서 미끄러져서 전복되는 사고

이런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특히 한국에 와서 교회와 성경 사역 하는 동안 많은 배신과 모욕 그리고 중상모략을 당했다.

그런데 돌아켜보면 이것이 나를 성장하게 한 원동력: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함께계셨다.

### 결론

인생에 폭풍이 온다. 오지 않으면 좋지만 오게 되어 있다. 오면 이길 힘을 주신다(롬8:28)

## 성도는 바른 정신의 소유자다

성경말씀: 눅8:26-39

주님의 생애의 여러 사건: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며 메시아로서 여러 기적을 베푸신다.

지난 주: 주님과 함께 있어도 폭풍이 온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자. 믿음은 곰곰이 생각한 뒤  
전적으로 베풀는 것,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 자연계의 폭풍과 파도도 주님의 말에 순종한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우리의 생사화복, 과거, 현재, 미래를 손에 쥐신 분, 이 예수님을 아는가?

### 배경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뒤 다음날 아침에 가다라 지방에 도착함(26)  
가다라: 데가볼리(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 순수한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 섞여 삶. 게르게스는 호수 근처의 도시(마8:28)

여기서 주님은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신다: 역시 3복음서에 기록된 중요 사건, 마귀론의 모든 것  
자연의 폭풍을 다스리신 뒤에 이제 한 사람에게 닥친 인생의 폭풍을 다스리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 들린 사람이 2명이다. 마가와 누가는 이 중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 초점

### 마귀와 마귀들

마귀의 존재: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너무 빠지는 사람도 있다.

성경은 죽은 조상들의 혼인 귀신은 없다고 말하나(샤머니즘) 악한 영인 마귀들은 있다고 말한다.

사14, 겔28, 계12 종합, 우주의 창조 이전 어느 시점, 사탄과 천사들의 삼분의 일 타락

마귀들: 타락한 천사, 부정함 영, 더러운 영

마귀와 그의 천사들(마25:41);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영존하는 지옥 불을 예비하심

마귀와 마귀들이 있다. 마귀들: 사탄 마귀의 부하들 혹은 닳은 자들

하나님의 계획, 갖가지 지혜, 우주와 사람 창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인 마귀들은 사람을 멸하려 함

### 주님과의 만남 및 마귀 들린 자의 특성

주님은 마귀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하러 배를 타고 오시며 폭풍우까지 감내하심, 오직 이 사람을 위해(40절)

마귀 들린 자를 만남(27): 이 사람은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26-27). 일단 마귀 들리면 영과 육이 더러워진다.

1. 옷을 벗는다. 정신을 차리면 옷을 입는다(35절). 창세기의 옷
2. 무덤에 산다. 죽기도 전에 이미 사망 속에서 산다. 뱀파이어, 드라큘라, 엑소시스트 추구하지  
말라, 할로우데이(10월 31일): 마귀들의 축제, 사망을 사랑하지 말라(잠8:36).
3.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몸에 상처를 내고 비참한 생활을 한다(막5:5).

왕상18:25의 바알 숭배자들, 몸을 베고 소리를 지르며 날뛰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공포와 위협

(4) 마귀 들리면 초자연적인 힘 행사(29절), 표적과 기적, 초자연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문제가 생긴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니다(고후11:14-15): 고도의 전술, 교황, 목사, 신부 등을  
통한 종교 통합,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부인.

### 마귀가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

마귀는 교만의 결과 타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음

사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형상, 성품과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리하는 것을 싫어한다.

마귀 들림/영향의 가장 큰 현상: 병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짐승같이 됨(바른 생각 No!)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존귀함)을 제거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

마귀들은 교리에 관한 한 근본주의자들이다(28): 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 안다

1. 마귀들도 믿음이 있다(약2:19).
2.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명령하면 쫓겨남과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다(29).  
그 심판의 장소는 깊음이며 고통의 장소(눅8:31): 31절의 깊음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다.

여기의 '아부쓰스'는 마귀들이 심판을 기다리며 고통을 받는 곳이다.

3. 또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다(31).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불신자인 자들  
예수님의 질문(30): 네 이름이 무엇이냐? 로마의 군단 6,000명, 120명의 기병, 여러 기술자, 큰 무리  
정확히 6000명의 마귀들이 들어갔는지는 모른다. 다만 많은 마귀들. 2000마리 돼지 떼  
마귀들이 돼지 떼에 들어감(33), 깜짝 놀란 돼지들이 떼를 지어 호수로 내리달아 하나씩 물에 빠져 죽음,  
마귀들은 깊은 속에 갇힘, 돼지 치던 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도시에 알림(34)  
도시 사람들이 와서 보니 마귀 들린 자가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음(35)  
그 결과: 올바른 정신(딤후1:2, 잠9:10-11): 구원받으면 진리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  
고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신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올바르다. 진리와 오류를 구분한다.  
거짓을 미워한다. 교만을 피하려 한다. 교회에서 섬기려 한다. 진리 추구(개역성경 오류, 베레아  
사람들), 기독교의 핵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한다.

###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면 반드시 사람들이 둘로 나뉜다.

1.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37): 부흥 No!, 기쁨 No, 오히려 주님이 떠나기만을 구함(37)
  - a. 무언가 변화를 보았지만 본인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예감하고 떠나실 것을 요청함: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손실, 2,000마리 돼지 손실, 더 큰일이 날지도 모름
  - b. 부흥이 오면 더러운 것들이 떠나야 한다. 정말로 우리는 그런 부흥을 원하는가?
  - c. 우리 주님은 마귀 들린 이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김, 2,000마리 돼지보다 중하다.
  - d. 마귀 들린 사람의 회복은 많은 재물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짐. 오늘 중국 선교
  - e.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
2. 변화가 되어 제자가 되는 사람(38)
  - a.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열망(38): 공통적인 현상, 변화산의 3제자, 요20의 막달라 마리아
  - b. 저 장미꽃 위의 이슬(499장), c. 주님의 명령: 가서 증언하라(39).
  - d. 증언의 내용: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일을 행하셨는가? 주께서(막5:19)
  - e. 증언의 순서(행1:8):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 f. 이 사람의 증언 실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함(39):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주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g. 이 증언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막5:20)

### 결론

지난 주: 자연계에 대한 주님의 능력, 오늘: 마귀와 마귀들과 병에 대한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마귀의 일을 멸하고(요일3:8)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해 주심

그 결과 마귀 들린 사람에게는 바른 정신이 생겨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통과 교제,  
죄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 받으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다.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 악한 말, 부정직한 행위, 성 문제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가능하다(고전6:9-11).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에서도 우리를 구출할 수 있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두 부류의 사람들: 가다라 사람들 혹은 마귀 들린 사람

우리는 어떤 부류인가? “주님께서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셨는지 알고 전할 수 있는가?”

1.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2.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 미약한 믿음도 예수님이 받으신다

성경말씀: 눅8:40-56

주님의 생애의 여러 사건: 복된 소식을 선포하신다. 사람을 살리신다. 병, 마귀, 죄  
지난 주: 주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배타고 서쪽의 게르게스(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가심, 군대 마귀 들린 사람: 더럽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짐승처럼 산다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의 형상 파괴, 예수님의 말씀에 마귀들이 돼지 떼로 들어가 역사함.  
그러자 그가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섬김. 같이 있고 싶어 함. 결국 돌아가 소식 전파  
그리스도인의 특징: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생각함, 그래야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

### 배경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니 사람들이 환영함(40). 학수고대, 인파 속에 어린 딸로 인해 고통당하는 남자와  
병으로 기진맥진한 여자가 있다. 돌아오자마자 이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신다(눅4:18).  
남자의 이름은 아이로, 여자는 모른다. 남자는 부자, 양반, 여자는 의사들에게 돈을 다 쓰고 가난함.  
아무 소망도 없음, 남자는 자기 딸을 위해, 여자는 자기를 위해  
여자아이는 12살, 아이로에게 큰 기쁨,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 말 그대로 피땀하기 그지없다.  
믿음이 다 미약하다. <미약한 믿음도 예수님이 받으신다>

### 혈루증 여인

여자의 문제: 12년 동안 혈루증, 재산 허비(43), 유대인들의 의식법 규례에 따라 부정함(레15:19-22).  
종교 행사 및 교제 불가능, 심히 곤고하고 낙심이 되어 죽을 지경, 주님께 와서 필요를 채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들었다. 이분은 고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함, 거의 미신적인 믿음(44; 마9:21).

그런데 종교적으로 부정함 여인, 사람들에게 갈 수 없음. 그래서 몰래 다가감.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도 수용해 주심: 얼마나 딱하면 이렇게라도 고침을 받으려 하는가?  
교리가 부정확함, 더러움, 멸시 천대, 가난함, “예수님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소망이 없어 낙담한 가운데 필사적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수용하심.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 교회 간증 시간에 보면 성경적 교리와는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분도 더러 있다(은사 체험 등).  
그래도 나는 이해하려고 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된다. “내 죄 병, 내 영혼의 병, 내 몸의 병을 예수님만 완전히 고칠 수 있다.”  
구원 이후에 자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킹제임스, 삼위일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환난 전 휴거 No!  
구원 이후에 자란다(벧전2:2).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그러므로 새 성도, 새 신자 모두 참아주고 기다려야 한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 성경 공부, 교제, 섬김 등, 새 사람들도 성장할 의무가 있다.  
우리 주님의 반응: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45), 제자들의 반응(45), 주님의 말씀(46)  
주님이 정말로 모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 아니다. 혹시 이것은 여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을까? No!  
다만 주님은 그 여인이 자기의 믿음을 표출하기를 원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셨다.

여인의 반응(47), 주님의 말씀(48)

공개적인 고백의 결과: 이 여인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평안의 메시지를 받음  
무리와 여인 비교: 말 그대로 벌떼처럼 밀려드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한다.  
아니 그분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연약함의 감정을 가지고 손을 댄다.  
히4:15, 직역하면,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여인처럼 그분께  
손을 대야 한다. 우리 믿음이 미약해도 손을 대면 그분께서 수용하신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처럼 인생이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께 가야 한다. 아이들, 젊은이들

## 아이로

지금 아이가 거의 다 죽어감. 예수님을 직접 초빙함(41). 그런데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나 귀중한 시간을 빼앗음. 속이 타는 데 다행히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음

회당의 치리자: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회당 등장, 공예배, 기도, 성경 낭독, 설교, 회당 관리 등 회당에는 장로들이 있었다. 그는 보통 공부도 많이 하고 재물도 있었다.

베드로의 집(장모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던 것으로 보임,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으나 예수님을 배척함, 예수님의 저주(마11:23), 소돔과 비교, 아마 아이로가 이런 일을 주종했을지도 모른다.

유대교의 수장이 지금 몸을 굽혀 예수님께 딸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 그러나 자기 딸의 죽음 앞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목수에게 와서 머리 숙여 간청한다. 놀라운 자체 재산, 지식, 명예, 권세 등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의 구원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아이로는 지금 마지막 끈나풀을 잡으면서 혹시 예수님이 생명의 창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간청함 이 사람의 믿음도 매우 미약하였다. 많은 분들이 병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 미약한 믿음

주님의 수용: “오직 주님만 살릴 수,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이 미약한 믿음을 수용해 주신다.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인이 나타나 시간을 잡아먹고 결국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음(49).

그의 친척들과 친지들의 생각: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50): 1. 두려워하지 말라. 2. 믿기만 하라, 3. 네 딸이 낫는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갈 바를 모를 때,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담대한 심정으로 주님께 가야 한다.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제 생명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예수님만 믿고 집에 갔는데 사정이 좋지 않음: 유대인들의 장례는 가능하면 하루에 끝내야 함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 고용(52),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이들은 더더욱 믿지 않고 비웃음(53).

그 이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모른다(요11:25-26). I am that I am(출3:14).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 1차원적인 사고, “예수도 사람이다”, 생사화복의 주님 우리 주님은 그 아이의 영이 떠난 것을 잔다고 하신다. 성도의 죽음은 잠에 지나지 않는다.

몸이 잠을 잔다. 혼과 영은 떠나서 움직인다. 하나님께 대해 모두 살아 있다(아브라함, 이삭 등). 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하나의 평범한 일이다. 잠의 필요성

어느 면에서 매일 부활 연습, 100세까지 살아야 36,500번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몸이 다시 일어나 영혼육이 결합된다.

더 좋은 것은 죽지 않고 아예 휴거되는 것이다.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꿈(막5:41; 욥바, 행9:40의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안 일어나는가? 나사로의 경우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벌떡 일어난다. 주님은 누구인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계1:17-18)

곧바로 소녀에게 영이 돌아오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먹는다.

부활은 영적 죽음에서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다: 나인 성 과부의 아들(눅7), 아이로의 딸, 나사로(요11), 1. 죽은 자들이 다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 2. 일어나면 말하고 걷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야단법석이다. 즉 숨기려야 숨길 수 없다. 나무로 말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 결론

예수님의 삶에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 매우 바쁘게 하실 일을 하신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이루어진다. 섭리: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영어 Providence Pro, video, 미리 본다. 하나님이 가다라 지방의 마귀 들린 자, 아이로, 그의 딸, 혈루증 여인 미리 보시고 예비하신다. 우리 성도들의 삶, 믿음의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이 수용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신다. 롬8:28, 찬송가 363장

1.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 복음 선포의 핵심과 효과

성경말씀: 눅9:1-9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편에서는 만물의 질서 회복, 사람 편에서는 영원한 생명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원하지 않음에도 죄를 짓고 불안해하고 슬퍼한다(성도도).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사망에서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 이것에 따라 구원, 교회가 결정된다(요17:2).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셨다. 하늘의 왕국 선포(마태복음)

동시에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왕국 선포: 롬15:8-9

예수님 사역의 요약(눅4:18-19), 이것은 한 마디로 '왕국의 도래'라고 한다.

왕국: 왕, 국민, 영토,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있어야 한다.

성경의 왕국 개념은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주권, 통치(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예언: 여자의 씨(창)로 온 인류 회복, 대언서의 메시아로 유대인 회복(갈4:4-5)

신구약 통합(히9:15), 신약과 구약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왕국(하나님의 통치)을 가져오심

이 일을 위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4-8장까지 왕국 복음을 선포하심: 제자의 조건(인격) 설명(공홀,

좋은 마음, 열매), 죽은 자, 병든 자, 마귀, 종교인의 특성 등 자세히 보여 주심

공생애 시작 후 약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할 시점

9:22처럼 자신의 죽음을 예언함, 제자들에게 왕국 복음 선포를 실제로 행하게 하심

### 기적과 표적

1절: 유대인들의 지상 왕국 사역을 위해서는 권능과 권위가 필요하다: 기적과 표적

권능(power)은 말 그대로 에너지 힘,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아이 때에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컨, TV 리모컨, 20세 쯤 돼서 자동차 운전: 권능과 권위

그런데 이런 권능과 권위는 제자들이 받은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모든 마귀 제압, 질병들 고침, 심지어 이들 중 베드로는 죽게도 하고(행5) 죽은 자도 살림(행8).

행5:15-16, 이것은 사도의 표적(고후12:12)

몇 가지 중요한 것: (1)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사도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 (2) 목적:

막16:20, 히2:3-4, (3) 중단: 이러한 표적 선물은 사라진다(고후12; 딤후5:23; 딤후4:20).

AD 70년경 이스라엘 멸망, 90년경에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런 표적들이 사라졌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방언, 대언, 병 고침의 선물, 사도, 대언자 No! (히13:8), 영원토록 동일

지난 6000년 동안 인류 역사: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던 때는 매우 한정적이다. (1) 모세 시대(40년),

(2)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100년), (3)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40년), 약 200년을 제외하면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은 섭리로 역사하심, (4)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시대의 특징: 모두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다: 구약은 율법과 대언자,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됨, 신약은 예수님과 사도들

(5)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시기에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기적들이 주어짐

(6)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3년 반, AD 30년경, 그 후 40년 이후에 예루살렘 황폐화

(7) 바로 이 시점부터 기적이 등장하지 않음, 성경이 완성됨, 성경의 요약(고전1:22)

(8) 성경에 예언된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적그리스도가 행함(살후2:8-10; 계13)

(9) 또한 이스라엘과 관련된 7년 환난기에 두 중인의 기적, 적그리스도와 다른 짐승의 기적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가? 행하실 수 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왕국의 도래와 관련된 표적이 아니다.

여인이 자궁을 들어냈다: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있다. 그러나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이렇게 일하지 않음



현 시대의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 운동, 헤븐리 터치 등의 모두 마귀의 일이다.  
지금은 말씀 선포를 통해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 권능을 주신다. 이 일도 주님이 근원

### 하나님의 왕국 선포

그들이 한 일 요약: 하나님의 왕국 선포(2), 마6:10,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막1:1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막1:14-15

그 당시에 왕국은 가까이 이르렀고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다.

눅11:18-20, 17:20-21

하나님의 왕국의 의미: 아담의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두는 것  
롬8:19-24, 창조 세상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린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히고 통치가 이 땅에서 완벽히 이루어지고(하늘의 왕국)

1000년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뜻만 선다(계21:4-5).

인류에게는 6-7000년의 오랜 시간, 하나님께는 6-7일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왕국 선포, 인류 구원

### 육신의 필요

여행을 간다: 이들은 전적으로 전임 사역, 모두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부르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직업 갖고 가정 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고전7:17)  
전임 사역 등을 위해 지팡이, 짐 보따리, 빵, 돈, 옷, 집이 필요하다.

지금도 복음 선포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교회 사역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도  
주님의 말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3). 내가 다 책임진다.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마6:31-33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선포하면 물질의 필요는 주님이 채워 주신다(미디어, 건물 등).

개개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  
사도 바울도 두 손을 천막을 만들며 사역하였다(살후3:10, 12).

조심할 것: 4-5절, 이것은 유대인들의 풍습,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는다고 저주하면 안 됨

그 시대 제자들의 상황 이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런 것 이용하면 안 된다.

### 하나님의 왕국 선포의 핵심과 효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자(6)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

헤롯의 말(7-8): 복음을 가장 크게 부정하고 침례자 요한을 죽인 하나님의 대적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갈릴리 저 지역 사람들이 내린 결론: 과거에 기적들을 일으키던 대언자들의  
시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대언자가 부활했다

이들도 이런 일은 오직 그런 시대에만 가능했음을 인정함

그 결과 헤롯의 고백: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과거의 기적들보다 더 큰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나도 보고 싶다.

복음 선포의 핵심: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가야 한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단번 속죄, 죄들의 용서, 부활과  
휴거, 만물의 회복,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 공동 상속자, 마귀 멸절?”

베드로, 바울, 야고보, 디모데, 스펠전, 로이드존스

사랑침례교회, 킵바이블, 정동수 목사, 성도들 개개인 등이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그릇된 복음을 전한 것이다. 혹은 불완전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들은 뒤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반응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행8:5의 빌립, 35 예수님을  
선포하였다. 9:20 바울도 예수님을 선포하였다.

이 예수님이 기독교와 성경의 핵심

우리의 복음/교회 사역: 사람 중심 No!, 하나님 중심 맞지만 여기서 더 나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중심, 행26:22-23, 고전2:2

##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성경말씀: 눅9:10-17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중 가장 놀라운 일, 4복음서에 기록됨

오병이어 기적,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사역, 이후로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유대 십자가

헤롯의 질문: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이 내게 들리느냐?”(9), 이에 대한 답변  
벧새다(10)는 요르단 강 동쪽의 도시

원래 제자들의 왕국 복음 선포 후에 쉬려고 모임을 가짐(6, 10): 휴식은 사역에도 필요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외딴 곳까지 따라 나섬(약13km):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아주실 줄 안다.  
제자들의 태도(12):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기보다 가게 함(눅18:15; 마15:23), 우리는 어떤가?  
이들의 상태, 목자 없는 양들(막6:34), 지치고 굶주린 상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의 태도(11), 불쌍히 여기심(막6:34),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1. 받아들이고, 2. 하나님의 왕국, 3. 고치고, 4. 먹임
  - a.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신다(요3:16; 계22:17).
  - b. 진리: 하나님의 왕국 통치의 복음, 회개, 믿음, 인격의 변화(성화)
  - c. 고침: healing, 육신의 병, 영의 병, 병 고침을 주심
  - d. 먹임: 육신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채워 주신다(요10:10) <제목>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육신의 뜻에 따라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 출산, 100세에(이스마엘14세) 이삭 출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 사라의 축출 간청,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냄(창21)

1. 빵과 물 한 부대, 2. 물이 떨어짐, 하갈의 울음소리, 3. 하나님이 그녀의 울음소리와 이스마엘의  
음성을 듣고 물을 주심(17)
3. 하갈에게도 창조자로서 불쌍히 여기시며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4.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 이번 가을의 기근(백합, 새, 마6)
5. 심지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들의 육신의 필요를 왜 안 채워 주시겠는가?  
자기를 잊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들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먹는 것도 다 잊었다. 말씀이 배 고품보다 더 중요하였다.
6. 우리 역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요6:68)

기적의 현장

빌립에게 먼저 물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요6:6),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남자만 5,000명(14), 적어도 10,000명, 200테나리온 어치(천에서 이천만원)

“음식을 사든지 보내야 한다”(13) “너희가 주어라.”(13)

안드레가 한 소년의 오병 이어(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요6:8-9), 순천 형제,

일은 많은데 자원이 부족한 경우: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우리 교회 건물 등  
보잘 것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심: 초대 교회(12명, 120명, 세상 변화), 우리 교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일을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오십 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심(14-15)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은 질서 있게 일어난다. 제대로 정돈된 삶을 사는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질서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함

구원받은 자들: 질서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성화의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 기도하시고 빵을 떼자(부수자) 기적이 일어남(16)

1.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 기도: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이것을 인정해야  
함, 개인이든 교회든 부흥이 일어나면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부흥은 곧 사라진다.

2. 주님의 손에 들린 빵이 쪼개지며 부서지자 기적이 일어남(16): 떼다(Break)

한 소년의 희생,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쪼개지자, 부서지자 10,000명을 먹이는 기적  
눅7장에서 옥합을 들고 오는 여인,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를 발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  
그런데 이렇게 깨어지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동반함

3. 틴데일(AD 1494-1536)의 성경 번역: KJV의 70-80%

“성경이란 필요 없소.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요.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  
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요.”

독일, 벨기에 등을 떠돌아다니며 성경 번역, “평생토록 어떻게 바르게 번역할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의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화형대에서 불타 죽음, 이런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하다.

4. 우리 예수님도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고전11:23-24, 너희를 위하여 찢긴, 부서진 내 몸이다. 흘린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  
히브리서 12:2,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부서지는 희생 위에 이 교회가 창립되었고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교회가 왔다. 바로 이런 교회와 성도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요 성도이다.

우리는 어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수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있는가?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욕망을 부수어야 주님의 일이 나타난다(골3:2).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개인과 교회에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다.

5. 예수님이 직접 주시지 않았다: 소년과 제자들을 통해 하셨다(16-17)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과 사람이 할 부분이 있다(고전3:9).

12명의 제자들, 빵 반 조각, 물고기 육분의 1, 한 사람이 500여 명을 먹였다.

한 사람이 먹기에도 모자라는 양,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었다(17).

그리고 빵 조각을 12 바구니에 가득 채웠다.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남도 도울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부흥에는 이런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일해야 한다.

이런 부흥과 기적을 원하는가? 남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며 나서야 한다.

요약

1. 공홀, 2. 문제는 기회다, 3. 우리의 것을 내놓고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신다.
4. 육신의 필요도 채워 주신다. 5. 나누어 주는 데도 질서가 있다. 6. 좋은 선물은 하늘에서 온다.
7. 주님의 축복으로 작은 것이 크게 된다. 8. 주님이 함께 하면 배부르게 된다. 심지어 12바구니

##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성경말씀: 눅9:18-26

3년 반 공생애, 3년간 갈릴리 사역 마감, 헤롯의 질문, 이 사람이 누구냐?(9:9)

오병이어 기적,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 주시는 창조자  
가이사라 빌립보, 유대로 가는 길, 제자들에게 자신을 정확히 알려야 함

### 예수님의 질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저에 대해 무어라 이야기합니까?” 물으면 교만한 일  
그러나 주님이 누구시냐고 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요5:39; 17:3)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천국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19). 침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른다.

지금도 마찬가지: 4대 성인, 가장 훌륭한 사람, 대언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의견이 아니라 확신을 고백해야 한다.

지금 주님은 이런 고백이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다(18). 그리고 베드로의 확신 고백이 나온다.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

오병이어 기적 이후 베드로는 요6:68-69에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확신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심(마16:18)

우리로 정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한 판단: 희대의 사기꾼(수십억을 속임), 아니면 그리스도  
이분을 정확히 알아야 인생의 목표가 결정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대언자, 왕(즉 하나님의 특별 선택)

예수 그리스도는 3중 직무 수행자

1. 계시의 진보: 타락 이후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약성경의 핵심 특히 아브라함 이후로, 다윗 이후로, 하나님의 왕국 설립, 왕이신 그리스도(눅1:31-33)  
예수님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자가 아니다!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의 예언의 핵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며 자기들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퍼지는 세상 기대(사2:1-5)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성육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메시아 왕국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것이 확실해야 한다. 이것에 의해 기독교가 서고 쓰러진다.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관 신고, 우리도 해야 한다.

### 때가 이르지 않음(21)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알리지 말라고 하심(21)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자,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자, 빵 문제 해결자  
이런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임이 알려지면 큰 문제, 때의 문제

그리고는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심(22). 메시아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함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스미스, 모하메드 No, 마귀의 적그리스도 No!

### 메시아의 희생과 죽음 예고(22)

침례자 요한,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어린양은 반드시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한다.

“성전을 헐라, 사흘 dks에 다시 세우리라”(요2:19, 21), 멸절되어야 한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마12:38-40), 죽어서 세 밤과 세 낮 땅의 중심부, 부활

메시아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다(22).

아직 제자들의 이해가 둔하여 깨닫지 못함, 또 하나님은 숨기심  
지금의 우리와 달리 그들은 부활 이후에야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였다.

### 메시아와 십자가 그리고 사명

이 말씀 뒤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신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이다. 즉 구원받은 뒤 우리는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런가?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이루셨기에.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왕관을 약속한다.

그 당시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다. 수치와 모욕과 거부의 상징,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십자가 목걸이는 상상도 못한다. 가장 치욕적인 죽음 형틀  
십자가는 무엇인가? 괴롭히는 남편, 자식, 상사, 병 No!,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멸시  
진리를 이야기하면 대개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거부를 당한다. 소수만 좋아함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교만, 세우려는 것, 명예, 권세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사랑, 섬김, 희생으로  
나, 가정, 교회, 사회

바울의 고백(고전2:2).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만 알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분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롬12:1-2).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내 것이라도 유익이 없다(25).

눅16의 부자,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지옥에 가면 허사, 영원의 시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26).

주님의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

1.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요14:6), 2. 지옥 불의 심판(막9:42-49; 마10:28), 3. 성경 보존(마24:35)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의 핵심: 고난 다음에 영광이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가? 시간, 성경, 애통, 섬김, 희생

요즘 곳곳에 지역 교회 움직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도와야 한다.

### 결론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고난 다음에 영광, 왕국

## 그리스도의 영광

성경말씀: 눅9:27-42

3년 반 공생애, 3년간 갈릴리 사역 마감, 헤롯의 질문, “이 사람이 누구냐?”(9:9), 오병이어 기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메시아 왕, 제사장, 대언자, 구약성경의 핵심, 왕국, 왕국을 가져오시고 통치하실 분 메시아는 초림과 재림, 그런데 초림 때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고난 다음 영광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 다음 질문

아직도 제자들은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 모른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그분의 영광은 무엇인가? 기적, 표적, 병자, 마귀 들린 자, 죽은 자,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의 일부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glory 402, 총 538),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천국 등과 관련되어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 이와 연관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 A. 구약에서 하나님은 시내 산을 덮는 구름,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머문 구름 등에 의해 친히 자신의 임재를 보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셨는데(출24:16; 40:35) 그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긍휼을 계시하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는 다만 자신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셨으며(출33:17-23) 이런 영광을 접할 때 사람은 그 영광의 광채에 감탄하고(시 111:2-3) 스스로의 죄를 통회하며(수7:19)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시29:1-2, 66:2).
- B.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요1:14)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본체의 형상이시다(히1:3).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롬6:4) 그분의 승천도 그러하며(행1:9) 십자가 역시 죄에 대한 그분의 승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요 12:23).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구속의 사역 속에 빛나게 드러났다(요 1:14; 고후4:6; 히1:3).
- C.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눅24:26; 히2:10)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현재의 고난도 기쁘게 받는다(롬8:17).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고전6:20; 뱀전2:9).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그분의 전지하심 속에서 진리를 고백하라는 것이다(수7:19; 요9:24).
- D. 마6:13,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가장 큰 영광

### 구약의 영광

보통 쉼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의 영광, 이스라엘의 시작

1. 구름 기둥, 불기둥(출13:21)
2.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출33-34), “주의 영광을 보여 주소서”(33:19-23)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남(34:29-35)
3. 성막의 영광(40:34-35), 주의 영광
4. 성전의 영광(왕상8:10-11), 주의 영광
5. 영광이 떠남(겔11:23), BC 560년경

이렇게 이스라엘을 떠난 영광이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을 방문하신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6. 눅2:8-9,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7. 공생애, 마귀 들린 자, 부활, 병자, 오병이어, 아직 불충분, 드디어 그리스도임을 확증함

### 그리스도의 영광(28-36)

믿음 고백 후 약 1주일 뒤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보여 주심(27) 공생애 사역에서 우리 주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단 한 번 보여 주심.

이때 예수님은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얼굴이 변하고 옷이 희게 되어 빛남(29)

즉 계시록 19장, 올리브 산 강림, 왕들의 왕, 주들의 주(16), 빛 그 자체  
제자들의 혼동, “십자가와 왕국은 어떤 관계인가?” “왕국을 이룰 분이 왜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히1:1). 대언자들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30)  
구약 성경의 핵심: 창조, 사람, 타락,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 맞는다.

그런데 이것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왕국이다. 왕국을 이루려면 왕이 있어야 한다.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말4, 주의 날, 4절의 모세, 5절의 엘리야,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이들은 지금 가장 큰 성경 회의/공부: 특별 주제

구약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 고난당하는 메시아(사53), 영광받는 메시아(시2, 슥14)  
예수님은 이 둘을 다 성취하신다(마5:17). “내가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성취는 초림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재림에는 영광의 메시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별세 즉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함(31)  
별세 즉 죽는 것의 원래 의미는 떠나는 것, 탈출하는 것

모세의 이집트 탈출, 엘리야의 이방신들 탈출, 예수님의 죄와 사망과 이 세상 탈출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3명은 잠을 자고 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눅22)

우리는 어떤가? 무언가 중요한 것이 선포되면 정신을 차리고 듣고 행해야 한다.

베드로는 깨자마자 제안 시작: “장막 셋을 지을 테니 거기 거하시라(33).

유대인들의 일곱 명절 중 장막절: 미래에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 심지어 이방인도 지켜야 할 명절  
베드로의 말의 의미: “메시아의 영광이 종사오니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그 영광에만 참여하자.

우리가 3분을 섬기겠다.” 가끔은 선한 사람들의 좋은 제안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주의의 말씀을 주심(34-35).

빛나는 구름(마17:5)이 다시 나타남, 구름 기둥, 모세가 본 영광, 성막, 성전의 그 영광

그런데 지금은 그 구름이 아니라 영광 그 자체가 그들 곁에 서 있다. 바로 예수님  
구름은 많은 경우 영광을 가리킨다: 주님의 승천(행1), 주님의 휴거(살전4:17-18)

### 하나님의 말씀

그는 내 아들이다. 즉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히1:1-2).

유일한 구원자(요14:6)

안식을 주는 자(마11:28-30)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주님만 홀로 남음(36). 이분이 영광이므로

베드로의 증언(벧후2:16-19)

경험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계1:17)

바로 이분이 곧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 참 하나님, 성육신, 참 사람, 인류 구속, 마귀 멸절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분을 확실히 아는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고후4:16-18,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성경말씀: 눅13:1-9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흘러간다.

여러분의 2015년 평가는 어떤가? 지난해보다 나은가? 경제, 가정생활, 사회생활, 영적 생활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다. 모든 것이 좋아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없으면 영원히 패배자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눅9장 이후는 갈릴리 사역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3년 동안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 제자의 삶과 인격 등을 선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함 우리는 어떤가? 1년 동안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전달, 변했는가, 변하고 있는가?

킹제임스 성경 사용, 영혼의 자유 교회, 신약 교회를 다녀도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변화되기 원하는가? 변화하려면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살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 사람들의 질문

눅13:1-9절은 주님께서 유대로 가기 전 갈릴리의 어느 도시에서 생긴 일

유대인들의 고정 관념, 현실 종교=기복 신앙, 일이 잘되면 하나님의 축복,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 주님의 말씀: 이생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영원과는 상관없다. 신약시대의 복은 하늘의 복이다.

13:1의 사건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에 성전에서 일어난 것 같다. 이때에만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도 희생물을 드릴 수 있음, 유월절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리 출신 순례자들의 죽음, 빌라도는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을 판단하고 죽임

그러므로 이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극심한 죄인이 아니었겠느냐?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려 함 예수님의 대답(2-3),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눅5의 나병 환자, 마비병 환자처럼 어떤 경우는 죄로 인해 병이 생긴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인간이기에 누구나 겪는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유대에서의 사건(4-5) 제시, 위의 것은 인위적 사고, 다음은 자연 재해 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음, 더 나쁜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의 결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성경: 회개의 책

### 회개

회개에 대한 오해: 구원의 기초는 회개이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흔들린다. 눈물을 펄펄 흘리고 이틀 삼일 새벽기도하고 철야기도하면서 소나무 붙잡고 씨름 하면서 흔들다가 뿌리째 나무를 하나 뽑아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회개는 감정보다는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머리의 용도

사영리, 영접 기도는 회개가 아니다. 구원시킨 사람 수 표시, 간증 등 No!

하나님의 구원 초청의 핵심이 회개이다(행17:30-31). 회개의 첫 단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 회개: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1. 말씀을 듣는 중 성령님의 간섭에 의해 죄와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으로 계획해오던 것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 궁극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행동으로 입증되어 나타나는 것
2.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말로 고백하고 그분이 계신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
3.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만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뀐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4. 죄를 지으면 좀 어떠냐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 아무 생각 없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안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 생각이 바뀌어서 죄를 미워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5. 지금까지 마귀가 없다고 하고 지옥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모든 생각이



변화되어 마귀가 있어서 자기를 유혹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곳을 알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행동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

6. 침례자 요한의 선포(마3:2):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주신 말씀, 회개하라.
7. 사도 바울이 평생 전한 것(행26:19-21; 20:19-21),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
8. 예수님의 선포(마4:17)
9. 우리가 해야 할 일(눅24:46-48), 회개가 있어야 죄들의 사면이 선포된다.
10. 복음이 말하는 회개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행11:18)는 죄를 슬퍼하고 죄 지은 것을 미워하며 그것을 철저히 증오하면서 되돌아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11.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진다(마4:17; 행3:19; 11:18; 20:21; 26:20).

### 회개의 증거: 열매

회개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 비유를 드신다(6-9). 여기서는 영원한 운명에 대한 것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특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화과나무 주인: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의 좋은 땅에 무화과를 심고 잘 돌보았으니 마땅히 열매를 원한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 레19:23-25, 첫 세 해 부정함, 넷째 해 주님—“베어버리라.” 조건이 매우 좋다: 황무지가 아니라 포도원, 잘 돌봄, 영양분  
우리의 상황: 킹제임스 성경, 구원, 성경 강해, 가정 강조, 거룩함, 영혼의 자유  
마음은 은혜와 긍휼의 열매, 입술은 감사의 열매, 삶은 순종의 열매, 유용함, 섬김의 열매  
판단하는 지혜의 열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심판: “베어버리라” 포도원지기의 말(8-9): 예수 그리스도, 놀랄 만한 이야기, 그들이 회개하도록 1년의 기회를 더 허락함 그 1년 동안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심(벧후3:9).

지난 몇 년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우리가 헛되이 보냈어도 예수님이 다시 한 해를 연장해 주신다. 그리고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신다.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데 더는 아니고 딱 1년이다. 2015년을 그대로 보냈으나 2016년에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영양분도 주고 가지도 쳐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고통도 주고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말씀의 순수한 짓(벧전2:2), 성령님의 신음 중보기도, 말씀 이해, 성도들의 권면 그 결과 갈5:22-23의 열매가 나와야 한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좋은 열매가 나와야 한다.

### 결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보다 일찍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멸망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다. 그 뒤에는 공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히9:27).

회개는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삶이다. 치절한 투쟁이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단 한 번 돌아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

그리고 매일 매일 돌이키는 생활의 회개가 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 나, 가정, 교회, 사회

2015년의 평가가 좋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2016으로 나가자.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 올바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성경말씀: 눅11:1-13

새 해 첫 예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무슨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까? 특히 새 해 첫 예배 목사의 소명(딤후4:1-2),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오늘은 권면과 소망을 전달하고자 함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 온 여러 사람들의 불평 혹은 불만: 기도가 약하다.

교회에 오면 일단 기도,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원 기도 양이 대단하다.

양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된다는 소리에 방언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니 뿌듯함  
기도에서 비는 내용: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기 자신의 필요가 90% 이상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사역, 여러 제자, 사도: 어떻게 설교, 구원 상담, No! 어떻게 기도(11)

그러므로 바르게 질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침례자 요한: 대언자, 순교자,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기록된 곳이 없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신뢰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궁금하였다.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 침례(눅3:21), 무리들이 몰려오자 기도(5:16), 열두 사도 선택 전(6:12), 제자들  
의 믿음 고백 전 기도(9:18), 변화산 기도(9:29), 이 외에도 홀로 기도하심

모든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토픽: 기도, 여러 사례와 패턴

제자들의 궁금증: 침례자 요한보다 크신 예수님은 무어라 기도하실까? 우리도 그것이 궁금하다. 새해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기도했다면 우리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 기도와 기도 응답

기도는 하나님께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며 필요를 알리는 것,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는 패턴이  
있다. 즉 양이 아니라 질이 좋아야 한다. 새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질에 대해 이야기하시고(2-4), 양(5-8), 응답의 내용(9-13) <올바른 기도와..>

#### 1. 기도의 양식(2-4)

이것은 보통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다(마6:9-13),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가르쳐 주신 기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응답받을 수 있는 요점이 요약되어 있다.

성경의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기도를 십자가로 생각하며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 먼저 수직적인 요소

1.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단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셔야 한다.

예수님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교리  
이스라엘 전체의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놀라운 계시(롬8:14-15)  
나를 만든 분이셔야 한다. 내가 자녀여야 한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있다(요8:44).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기도 가능(롬8:16-17)

2. 기도의 목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2)

"지금 기도 요청, 이게 다 아버지의 이름, 통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 하나님의 전 인격, 그분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언행이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

왕국: 하나님의 통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재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경 대언의 확실함, 그것들의 성취 저는 그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 세상일도 이 왕국의 도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눅9:59-62, 왕국 선포, 머뭇거리면 실패

하나님의 뜻: 왕국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요청이 이 셋에 위배가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장시간 기도해야 소용없다. 이 세시 맞아야 응답 가능  
그러므로 기도를 잘하려면 성경을 잘 읽고 사심 없이 내 기도 요청이 합당한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대다수 기도 요청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그러면 기도가 짧아진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소리로 응답하지 않는다.  
이미 성경과 목사와 믿음의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한국 사람들 기도의 다수: 뜻을 들으려고, 그런데 내면에서는 이미 자기 뜻 관철

3. 나의 필요 간구: 일용할 빵(3), 우리의 죄 용서(4), 우리 인도 악에서 구원(4)

일용할 빵: 직장, 공부, 배우자, 재정

영적인 빵(용서): 인간관계, 주님의 마음 긍휼과 은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 타인 용서

시험(고전10:13): 다윗 사건, 우리의 일을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우리의 기도 패턴은 어떤가?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패턴이 되어야 함을 보여 주신 것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수평적인 관계를 기도할 수 있음

## 2. 끈질긴 기도(5-8)

바른 방법으로 기도했다고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된다. 내 필요를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한다.

신정숙 자매님, 남편 혼수상태, 한 번 기도 No! 매일 매 시간 기도, 호전돼서 뿌리 병원  
누구라도 위급 상황이면 기도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 두 친구, 한 밤중에 친구가 찾아옴, 빵 세 개를 빌려 달라. 상대 친구는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 주지 않지만 귀찮게 졸라대므로 하는 수 없이 준다.

(1) 필요가 생기면 반드시 해야 한다. (2) 구체적으로 빵 세 덩이, (3) 받을 줄로 믿고 한다, (4)  
결국 필요대로 다 받는다(8).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귀찮게 하면 들어주시겠지 새벽기도, 금요 기도, 기도원 기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친구도 친구가 귀찮게 할 때에 들어 주는 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 사실 그리 하지 않아도 들어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나 행동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다급하고 절실한 마음  
수로보니게 여인(막7:24-30)

압복강의 야곱,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다급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밤새 싸워 이김(창32:22-32)

한나의 기도(삼상1:14-15), 느헤미야의 기도(느1:4): 민족의 번영

자기 민족을 향한 바울의 기도(롬9:1-3)

## 3. 구체적인 기도(9-13)와 기도의 응답

응답 받는 기도 방법(9-10): 구하고(무엇) 찾고(이유) 문을 두드리라(끈질기게).

A(ask)S(seek)K(knock), 계속해서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하늘 아버지의 심정: 세상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11-12)

세상 아버지는 원래 악한 존재 그래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김일성, 김정은이를 보라.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롬8:32) 성령을 주신다. (\*) 성령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구약 시대,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충만을 주신다.

마7:11,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주시겠냐? 이름, 통치, 뜻에 합당한 모든 것들

수직적 관계 확실한가?

이름, 왕국, 뜻에 합당한가? 빌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질병, 공부, 직장, 재정, 상사 관계, 부부 관계, 성경 읽기(경건 서적), 전도의 문

킹제임스 성경, 미디어 선교, 교회 모임 장소 확장, 지역 교회들, 목사들, 신학생들, 좋은 교사들  
이슬람 비확장, 동성애, 종교통합

정치 지도자, 북한 해방, 이런 모든 것에서 응답받는 한 해를 만들자.

##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성경말씀: 눅12:49-59

목사의 책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리는 것(행20:27), 경륜, 구원, 심판, 축복, 권면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동성애, 도덕의 타락, 가정의 붕괴, 이슬람, 종교통합  
구원받아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와 내주하신다.

그러면 생기는 현상이 있다: 영 분별(요일4:1), 옳고 그른 것,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그러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긴다. 성경을 조명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제자들의 믿음 고백,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심(눅9:51)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심  
오늘은 주님께서 때를 분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려고 함

### 유대인들의 때 분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늘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는 날씨를 예측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가 올 줄로 알았다(54). 지중해, 갈멜 산 엘리야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이 더울 줄로 예측했고 그리 되었다(55).

예수님의 책망(56):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면서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위선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인 것을 모르냐? 엄청난 아이러니  
3년 동안 내가 무엇을 선포하였냐? 하나님의 왕국의 복된 소식, 메시아, 하나님의 긍휼, 회개, 믿음,  
구원, 제자로서 인격의 변화, 말씀 보존, 지옥 불의 심판,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증명  
결론: 너희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느냐?(57)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고 따라야 하지 않는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어느 때인가? 시대의 표적들, 옳은 것 판단, 행동  
우리가 사는 이때

세상의 인구가 60억,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슬람: 16억, 힌두교: 10억, 불교: 5억,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계 23억, 총 53억, 나머지 7억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미국의 2-3천만,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영연방 1천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600만 명, 과연 얼마나 될까? 전 세상의 기독교인 6천만 명 이하, 1% 이하  
100명 가운데 1명이 구원받았을 것으로 추측됨.

2000년 동안 가장 널리 읽힌 책 성경, 가장 널리 선교: 기독교, 그런데 온 세상 인구의 1%가 구원  
받은 사람(눅18:8)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눅17:22 이하),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

이러한 때에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는 모양은 있는데 실체가 아닌 사람

오래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종교 생활, 주일성수, 십일조, 행위, 봉사, 구약식 교회  
이제는 이런 껍질을 벗어야 한다.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바르게 믿고 구원받아 바르게 전해야 한다.

1. 이스라엘의 부활: 1948년 5월, AD 70년 이후 1900년을 떠돌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저 팔레스타  
인 땅에 돌아옴.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여러 차례 침공하였으나 곳곳이 주권을 지키고 있다.  
1967년 6월 5일, 6일 전쟁, 시나이 반도, 골란 고원, 웨스트뱅크(예루살렘 탈환), 설명할 수 없는  
일들, 한 병사,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들, 이들이 모두 손을 들고 항복, 그들을 데리고 부대로  
돌아감, 이집트 장교들에게 물음, “그 병사의 뒤에는 총을 든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항복하였다.”, 당해내지 못한다(수23:10), 슥12:1-3,

지금 제3 성전의 완공이 눈앞에 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살아야 한다.

세상의 역사는 성경대로 진행된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 다 헛것이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

2. 이슬람의 확장: 100년 전에는 중동 국가들이 빈곤을 면치 못함, 그런데 1908년 5월 26일 페르시아  
남부 사막에서 시꺼먼 기름 한 줄기가 솟아올랐고 그 뒤 탐사를 통해 그 지역이 석유 매장량이 많음을  
발견함, 현재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65%, 이슬람은 천대받는 종교, 서방 사회에 진출하지 못함.

그러나 석유의 발견과 더불어 중동은 강대국들의 각축장, 결국 이슬람교가 수출되기 시작  
현재 영국은 이슬람의 확장으로 인해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다. 런던의  
경우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등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무함마드이다.  
이민, 다산, 결혼, 개종을 통해 이슬람은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무서운 종교 확산  
이슬람은 무력을 정당화는 사악한 종교 체제, 시리아 난민 사태를 통해 유럽을 정복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슬람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갔지만 불신 상태이다. 에스겔서 37-39장에 있듯이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  
이슬람의 부흥 역시 성경에 예고된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의 미래는 없다.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에스겔서 38장, 곡과 마곡의 이스라엘 침공(2, 러시아), 이때에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  
아랍 군대, 도갈마(터키)(5-6),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이들을 땅에서 치우는  
데만 7개월이 걸린다(겔39:12). 모두가 새들의 밥이 된다(39:17).

그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강림하실 때에 반 이스라엘 국가들은  
순식간에 멸절되고 만다(슌14:4, 12).

이슬람의 부흥, 시대의 징조이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겨야 한다.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 이슬람 과격 세력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통령 바른 판단, 필요하면 서명

### 3. 경계의 한계가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행17:26). 그 이유, 사람이 모이면  
항상 주님을 대적한다(27), 바벨 탑 등의 사건,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문화가 융합되어 바벨탑으로  
돌아가고 있다. 거주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성경적으로 좋지 않은 것. 국제결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하던 세계적인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미국 이민 거부, 종교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환영, 이제는 그들의 종교를 바꿀 자신이 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무장해야 한다.

### 4. 극심한 빈부 격차(약5:1-6): 대륙끼리, 나라끼리, 민족끼리, 지방끼리, 가족끼리, 양극화 현상

### 5. 적그리스도의 도래: 결국 온 인류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통치자를 바라보게 된다(이스라엘,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등 모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평화를 빌미로 이스라엘을 속이고(단8:25) 전 세상을 속이고 7년 동안 이 땅을 마귀의 권세로  
치리한다. 살후5:3,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바르게 깨어서 살아야 한다.

종교 통합, 정치 통합, 성경 붕괴, 도덕 붕괴, 동성애, 진리 거부 등

###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심(눅2:4), 천사들의 외침, 하늘에는 영광

그러나 그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재림),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거부함  
오히려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불이 붙고 분쟁이 생긴다(49). 분열이 생긴다(51).

예수님만 들어가면 심지어 가족 안에서 분열(52-53). 진리가 들어가면 오류, 우상이 전디지 못함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분리하는 일이 생긴다.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

이것은 진리의 분쟁이다. 인격이 못돼서 욕을 먹으면 안 된다. 다만 좋은 인격을 갖고 진리 수호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면 고통 감내, 심지어 예수님도 고통 받음(50), 십자가 사건의 모욕, 고통, 죽음  
진리를 수호하던 자들이 지금까지 고통당하였다. 그리고 그 반열에 끼어야 한다(히12:2).

### 이때에 꼭 생각할 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 마귀의 자식들, 중생 전에는 지옥 행 운명  
주님의 권고(58-59), 누구라도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 않느냐?

사람도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그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폭우가 예상되면 방비해야 한다. 변호사를 사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폭우가 온다. 우리를 구원해  
줄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요일2:1-2). 때를 분별하고 기도하자.

## 하늘의 사람들과 이 땅의 현실

성경말씀: 눅9:37-56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3년 동안 왕국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돌아서는 자들이 많지 않다.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무서운지 보게 된다. 진리를 보여 주고 알려 줘도 기존의 틀, 기득권 제자들의 믿음 고백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직도 정확히 예수님을 모름(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변화산 사건(눅9:27-36)을 통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보여 주심 예수님은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얼굴이 변하고 옷이 희게 되어 빛남(29),

구약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초림(고난받는 메시아),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35)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년 동안 동행, 12제자의 으뜸, 특별 교육,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집사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한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초림/재림, 신약/구약 구분 못함 눅38, <하늘의 사람들과 이 땅의 현실> 구원받았어도 오래 되었어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 1. 마귀와 질병과 고통(37-42)

제자들이 하늘을 경험하고 산에서 내려오자 마귀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옴(37-42).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마귀가 그를 죽이ना이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38-39).

제자들과 우리가 사는 세상: 병이 있고 마귀가 있다. 유혹이 있고 눈물과 고통이 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두가 당하는 일, 심지어 제자들도 고치지 못한다.

여기의 제자들을 나무랄 수 있는가? 없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예수님께서 이 아들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주신다(41-42).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쥐어뜯는다(42). 심지어 예수님에게 오는 데도.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주신다.

구원받은 성도도 목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나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로 은혜와 왕좌로 담다하게 나가야 한다. “주여 해결해 주소서”

요일5:14-15, 기독교는 만사형통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빌4:12-13, 고난이 따라온다. 나도 마찬가지, 성경, 교회 사역, 여전히 어려움(육적, 영적 고통)

### 2. 예수님을 잘 모른다(43-45)

이 말을 귀에 담아 두라, 내가 죽는다(44).

그런데 사람들은 병고치는 권능에만 놀라고(43)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45).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정말로 예수님과 기독교를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갈보리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다.

땅에서 보상과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 보상과 영광이 없다(요12:42-43).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기존의 구약식 교회가 틀림을 알면서도 기득권 포기 못함 이것은 야고보의 표현에 따르면 죽은 믿음,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행위가 없다(약2:26).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 고후4:16-18

### 3. 자리 다툼(46-48)

누가 가장 큰가 하는 일로 논쟁이 일어남(46)

지금 어떤 때인가? 주님이 내가 곧 죽는다고 하는데 자리 다툼을 한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받아들이고 작은 자가 돼서 섬기려고 해야 한다.

특히 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란 누구인가?

섬기는 자, 막10:42-45

주님의 원리: 섬기면 리더가 된다. 우리 교회의 원칙: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다.

섬기는 것은 종류가 많다: 말씀, 가르침, 권면, 음식 대접, 환영, 교회 봉사, 재물, 재능 그런데 여기의 작은 자를 가난한 약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

금요 모임: 신명기 맥 잡기 강해, 15장,

1. 가난한 자들 배려(7-11), 11, 약2:1-5 등,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2. 그럼에도 교회는 구제나 자선 기관이 아니다.
3. 가난하거나 약하다고 무례하게 구하거나 행하거나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한 청년, 형제).
4. 열심히 일하는데도 힘든 경우, 모두의 인정을 받는 경우 돕지만 늘 한계가 있다.

#### 4. 파당(49-50)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고 막으면 안 된다(49).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50).

카톨릭, 물론, 여증, 안상홍, 신천지 다 예수님을 언급한다. 그래도 같이 못한다.

한국의 기장, 통합은 종교 일치를 실현하려 한다.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같이 못한다.

정상적인 구원의 교리, 실행의 교리: 침례교가 아니라도, 목사가 없어도, 집에서 모여도 인정

심지어 개역성경, 그들의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아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한다.

가장 무서운 이단: “우리만 교회다”, 우리 교회: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 5. 영적 우월감과 능력의 오용(51-56)

드디어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함(51).

얼굴을 고정하셨다.: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

미리 사마리아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음(52-53): 사마리아 사람들

BC 721년 북 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됨, 아시리아 이주 정책, 아시리아 제국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오서 거하면 피가 섞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사마리아 종교(그리심 산)

제자들의 분노(54): 엘리야, 갈멜 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이 보는 데서 불이 내려옴, 잡아 죽임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를 거부해”: 교만과 무지의 극치

작은 자가 되어 섬기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대상을 오직 유대인으로만 한정함

이제 십자가 사건이 생기면서 우리 주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심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음

우리는 어떤가? 세상 사람들을 비하하면 안 된다: 이방인, 이교도, 개나 돼지 No!

그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의 책망(55): “너희가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런 말은 내 사람들에게 부적합

예수님의 결론(56): “내가 온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배, 섬김, 교육, 선교, 구제 등

규정과 절차가 사람을 힘들게 하면 없애야 한다: 특히 오래된 교회의 전통

1년 입교, 2년 집사, 새벽기도, 주일성수, 십일조 주차장 봉사 장로 No!

현금 봉투가 도대체 몇 개인가? 현금 공개 No! 일천 번제, 무리한 새벽기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 종교의 열성분자, “우리만 교회다” 주장하는 자(교황)

요16:1-2, 사람을 죽이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함

#### 적용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침례, 바른 교리 등을 외친다.

이러는 가운데 혹시 다른 교회 성도들, 목사들을 마구잡이로 무시하거나 비하하지는 않는가?

과거의 사례: 사악한 무리들,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최초의 신약 교회

입에 담지 못할 욕이 목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

주님의 경고(55): “킹제임스 성경으로 마귀의 일을 할지 모른다.” “지금도 그러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일은 1차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바른 구원을 가르쳐 일단 살린 뒤에 먹여야 한다.

#### 결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있다(엡2:6).

그럼에도 1. 이 땅에는 슬픔 고통 질병이 있다. 주님께 나가야 한다. 2. 예수님에 대한 무지, 3. 크게

되려는 욕심, 4. 파당, 5. 사람들을 알보는 일

주님의 경고(55), 사람을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

성경말씀: 눅9:57-62, 14:25-35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3년 동안 왕국의 복음, 구원 선포, 제자들의 변화, 변화산 사건 하늘 경험, 예수님 확실히 경험, 하늘의 사람들, 그런데 현실에는 여전히 문제 존재

1. 마귀와 질병과 고통(37-42), 2. 예수님을 잘 모른다(43-45): 갈보리 우선, 왕관 나중, 3. 자리 다툼(46-48), 4. 우리만 교회다(49-50), 5. 영적 우월감과 능력의 오용(51-56)  
예수님의 책망(55): “너희가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런 말은 내 사람들에게 부적합  
예수님의 결론(56): “내가 온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

### 제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관심: 제자가 되어야겠다. 교회마다 제자 훈련, 현 시대 교회의 성패  
disciple: 29, 243, 총 272회, 대단히 중요한 단어

제자: 선생에게서 배우고 안 뒤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지금의 도제 제도(의사, 장인)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보여 주고는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알려 주신다.

### 구원과 성화

성경의 구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 믿음으로 은혜로 사람 편에서 무비용

성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뒤 현실 생활에서 닦이는 죄의 파워에서의 구원, 사람 편에서 비용이 들  
그 결과: 구원받은 자는 많은데 제자는 많지 않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죄에서 해방: 좋은 이야기, 기쁨, “그러나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를 생각하지 못하면 단세포 구원 사도 바울 구원, 구원받은 이후의 그의 삶, 서신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 나감  
빌3:12-14

지난 20세기 동안 세상을 바꾼 위인들: 과학, 통치, 음악, 문화, 목표 매진

그리스도인들: 재침례 성도들, 마르틴 루터, 얀 후스, 틴데일, 웨슬레, 스피전, 목표 매진

현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구원받은 성도는 많을지 몰라도 제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온 교회가 제자 훈련: 내용은 거의 다 인위적인 가르침, 내용의 핵심: 교회와 목사에 충성  
그런데 이런 제자 훈련으로는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다. 순장 등 겉모습의 변화, 그러나 위선자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용과 길을 살펴보고 한다.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이 설교가 쉽지 않다. 그러나 순서대로 나오기에 한다.

### 예수님을 믿은 뒤 성화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눅9:23)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형틀(23), 2. 사람을 죽이는 형틀(23-24), 3. 자기를 부끄러움에 내놓는 형틀(26),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 그의 영광(27)

기독교는 십자가로 인한 고통과 고난 수치와 멸시 희생, 그리고 그 이후에 영광을 보장한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함

지금도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만사형통, 일이 잘 돼요”, 이런 사탕발림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있으나 하나님께는 전혀 쓸모없는 어린아이

주님은 우리가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전장한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

### 제자가 될 수 없는 첫째 사람(눅9:57-58)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주님의 대답: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사람은 마8:19를 보니 서기관이다.

안락한 생활에 젖어 있다. 그것을 버리기 원치 않는다. 목사, 장로, 대접받음(킹제임스 성경 No!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재물의 희생을 요구한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사람이 온다: “설교가 좋아요. 헌금 강요가 없어서 좋아요. 빠져도 뭐라고 안 해  
좋아요.” 헛다리짚은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확신, 신약 교회, 신약 교회는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 사도행전20장의 바울을 보라, 지도자들의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

### 제자가 될 수 없는 둘째 사람(눅9:59-60)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 초청을 받음(59). 영광스러운 일



그런데 이 사람은 핑계를 찾으려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에 더 많은 관심을 둬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 하루 만에 매장, 그 뒤 10일 정도 애곡, 절차가 복잡함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음, 죽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됨.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복음의 긴박성(60)을 무시하고 질질 미루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언가 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희생이 무서워서 무조건 뒤로 미루자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 제자가 될 수 없는 셋째 사람(눅9:61-62)

자원자, 그런데 그는 뒤를 바라보느라 나가지 못함  
 작별 인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왕상10:19-21,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남, 열두 거리 소로 농작함  
 엘리야가 허락함, 그런데 이유: 엘리사는 한 거리의 소들을 죽이고 소의 기구로 고기를 삶아 나누어줌  
 이런 의미의 작별은 얼마든지 가능. 그러나 예수님이 보니 그는 쟁기를 잡고 귀를 바라보는 유형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는 앞으로 나가지 않음  
 교회가 늘어나고 시설이 우리를 수용할 수 없음, 여러 개의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모아 보라고 주문함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들어봄: 모두 희생은 안 하고,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만 희생하는 안을 내  
 내 체면을 구기는 일은 안 하고 싶다(부자).  
 쟁기를 들었으면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한다.

#### 제자가 되는 길 반복(눅14:25-34)

1. 내 부모친척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제자가 된다.
2.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일가친척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26).
3.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 비용 계산

1. 망대를 세우는 사람(28-30): 구원 받았다. 주님의 일을 하려 한다. 제자가 되려 한다. 그러려면 제자의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중간에 그만 두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 비용을 계산해야 함.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을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남을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음: 왜 이 교회에 오는가? 중간에 그만두면 조롱을 받는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을 짚어지고 신약 교회를 하려면 그에 따르는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리 그만 두어야 한다.
2. 전쟁하는 왕(31-32); 자기의 10000명, 적의 20000명, 이길 수 있을까? 없다고 판단되면 평화의 조건을 구해야 함. 그리고는 매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33). 소유와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에서 큰 핵심은 소유와 재물의 희생, 재능을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
3. 소금 이야기: 지금의 소금은 100%,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암염,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기가 빠지면 무용지물(35),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희생과 섬김이 요구될 때는 뒤로 빼고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면 구원은 유지되도 무용지물 성도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

#### 지금의 우리 교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심정 고후 12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지만 진실을 말하려 한다.  
 7년 8개월 전에 송내에서 시작, 보증금, 월세 내가 감당하겠다고 함  
 그 이후로도 늘어나는 보증금 내가 월세 모자라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함  
 이러는 가운데 4년이 지나 몇 달을 찾아도 건물이 없어 고생, 논현동 소래 예배당 1층 반 구매, 10억 내가 담당, 6억 다른 형제 담당, 밀지면 2-30% 내가 감당하겠다고. 2년 반 전에 반 층을 마저 구매, 역시 2사람이 감당, 그때도 반대하고 나감,  
 지금 우리의 모습. 예배당이 없이 어떻게 아이들 교육, 예배 드리겠는가? 안

그런데 이제는 너무 사람이 많이 오므로 안전, 식사 등 모든 것에 문제  
건축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제 닥치니 또 제자의 비용을 치르기로 함  
플링, 원금 갚아주는 것, 80억 프로젝트 10억 우리 돈, 대규모 플링(10억), 성도들 20억 이상, 40억  
이자, 나와 우리 가족이 4억원 플링, 은행에 돈이 있어서? 아니다 아파트 대출하고 내가 년 1600만원  
이자 낸다. 그것도 가능하면 10년 동안, 왜 그리하는가? 내가 이 교회를 이끄는 대장이다.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래서 제자의 비용을 내가 먼저 아내와 어머니와 온 가족이 한다.  
안 돼서 망한다: 30% 손해 날 것이다. 그래도 OK!  
요11: 나사로 사건, 유대에 살므로 거기로 가야 함, 제자들의 반대, 돌로 맞아 죽습니다.  
의심의 왕자 도마(11:16),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저를 믿고 같이 제자의 비용을 대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다.

##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로, 군사다

성경말씀: 눅10:1-24

지난주 성도의 사람 구원과 성화, 구원 무비용, 성화(제자) 비용: 성도들의 보상

제자의 길에는 비용이 든다: 시간, 재능, 재정, 심지어 가족, 비용을 계산한 뒤 따라야 함(눅14:28).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손에 쟁기를 든 채 앞으로 나가는 자가 제자이다.

오늘은 이런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유대 사역 시작

공생애 3년,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약 반 년 동안 유대와 다른 지역 사역(9:51)

이를 위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심(1):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눅9:1-6에는 열두 제자를 보내셔서 비슷한 일을 하게 함. 주로 갈릴리 지방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파송받아 주인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다: 친히 가시고자 하는 데로 보냄(1)

즉 이들은 사도이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대사이다.

한 나라의 대사는 나라와 통치자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기 말이 아니라 통치자의 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 선포(9), 왕국의 통치자, 대사들이 필요하다. 우리를 부르신다.

이들이 해야 할 일(2): 먼저 수확 밭의 주님께 기도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함

여기의 일꾼은 영어로 보면 labourer,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땀 흘려 노동하는 일꾼

킹제임스 성경의 확산, 지역 교회의 필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건축 이야기를 왜 하는가? 지역을 섬길 일꾼들이 없다 보니 여기로 몰림. 피해야 한다.

예수님의 심정(3): 어린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

이 일이 만만치 않다. 우리의 상대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벧전5:8-9), 특히 사역자들 붕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 교회를 시작하려는 사역자들을 돕는다. 도와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대사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4).

이런 구절 오해하면 안 된다: 아무 준비 없이 사역에 임하면 안 된다(4).

사역자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이다(마6:33).

대사로서 사역자가 되려면 성정에 능통, 언변에 능통, 화평한 가정생활 등, 선교사는 언어 공부

하나님의 대사로 말씀을 전하면 양들이 목사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야 한다(7-8).

그럼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지 않기 위해 자비량으로 해도 된다(고전9:14-17).

대사들이 전해야 할 말씀(5): 화평의 복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수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난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들은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 회복을 선포해야 한다.

이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롬5:1).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나 길은 우주 공간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 되라고 선포해야 한다(9, 11).

11절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이상한 이이러니(13-16):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도시들이 불신

고라신, 벧새다,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북부 도시들, 예수님 사역의 증시지

특히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본부, 이 지역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눈으로 봄(죽은 자, 나병 환자, 마귀, 각종 질병, 갈릴리 호수의 폭풍)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지어 소돔이 이들보다 나을 것이라는 저주(12): 그 큰 도시에서 4명이 구원받음

이 시대에도 표적을 쫓는 자들이 많다: 만사형통, 돈 버는 것, 기적(금어빨), 뒤로 자빠지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불신의 행위이다(마12:39).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아온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눅16:31).

하나님의 대사들이 주인의 말을 전한 뒤 보고(17)

이 특별한 시기에 이들은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받았다. 예수님의 대사로 마귀들을 제압하였다. 놀라운 일이다. 흥분되는 일이다(19).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추구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18): 지금의 이 전쟁은 단순히 줄게 마귀들 제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간의 전쟁 상태

사탄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가져온 장본인, 사람을 속이고 죄로 이끈 자

이미 멸망이 선포된 자(창3:15), 그리고 궁극적으로 패배할 자, 영원히 불 호수에 들어갈 자(계12:9; 20:10), 사탄의 운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끝장이 났다(18).

다만 온 세상의 이방인들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구원받도록 교회 시대를 여심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 올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 거짓 종교(천주교, 이슬람 등), 불신자, 모든 악한 일들, 사망, 슬픔, 고통 다 끝이 난다.

하나님의 대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20): 기적들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의 자손들이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다시 말해 사람의 업적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 번역, 목사, 교회 자랑 No!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셔도 하나님이 이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 나 자랑, 교회 자랑은 다 버려야 한다.

“목사님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 교회가 더 금방 클 텐데요.” 진리를 버리며 하지 않는다.

목회 철학을 버리며 일하지 않는다.

큰 교회, 큰일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마귀와 전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날이 가면서 구원의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너무 힘들다.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208쪽

날이 가면서 마귀의 사악한 체제인 이슬람의 세력이 확장되며 일반인들에게도 두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나라에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다. 막기 위해 <이슬람교 바로 알기> 책, 264쪽

올해 미디어 선교 사역의 핵심은 이 두 책의 전달에 있다. 온 힘을 모아 마귀의 왕국을 부수어야 한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게임은 끝이 났다. 그럼에도 현실의 우리는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

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내일은 구정이다: 나라의 앞날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북한의 마귀 집단이 무너지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을 통해 문서를 전달하고 유튜브 등 미디어 선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다. 목사는 그 대장을 섬기는 대사이다. 여러분은 그 대장을 따라 이 대사의 말을 듣고 전쟁해야 하는 대사요, 군사이다.

기적이나 표적, 업적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해 기쁘게 일해야 한다.

건축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해 필요해서 한다. 나 개인에게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대사로써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건물이 필요하면 지으려고 한다.

바른 성경이 필요해서 번역하였다. 교회가 필요해서 개척하였다. 건물이 필요해서 여기로 왔다. 이제는 건축이 필요해서 하려고 한다. 단 힘이 없으면 못 하므로 비용을 계산하려 할 뿐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21-22). 누가 기쁨이 되는가?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자들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자들이다(22).

요17:3, 우리는 영생을 받았는가? 받고 있으면 안 된다. 받으리라고 소망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시간 유일하신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한다. 그 아들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한다.

하나님의 대사들/군사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23-24).

이 교회는 작은 교회이다. 이제 아이들 포함 600명 모인다.

그러나 이 힘으로 한국을 뒤집어놓아야 한다(행17:6).

사람을 죽이는 무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를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